현대불교

THE HYUNDAE BULKYO 불기 2546년(서기 2002년) 6월 26일 수요일 (주간) 제 375 호

신개발 전자칼라인등 佛具院 서울조계사 入口 삼존상실 1층 ☎ 02) 735-0250(代)

법식 조대 **의룡 스님** 직지사 강주



"수행을 하면 그 속의 불성자리가 아이 자리듯 하여 마침내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선이란 심매에 드는 길 아닙니까. 무념무상의 경지에 들기 위해서는 몰기운은 위로 올리고 불기운은 아래로 내리면서 호흡을 조절하는 선 수행을 해야 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12 · 13면

불교계 대북지원사업 중단 위기

주요 종단 분담금 미납… 2억4천만원 확보 못해

불교계 대북지원사업이 중단될 위기에 놓였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회장 정대)가 6월 말 실시할 예정인 북한 어린이 급식지원사업이 2억4천1백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차질을 빚게 됐다.

대북지원사업이 중단될 경우 불교계가 남북협력기금을 지원받으면서 한 정부와의 약속을 저버리는 결과가 초래돼 불교계 신뢰도가 추락하고, 남북불교교류에도 차질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종단협은 18일 긴급 이사회를 열고 각 종단의 대북 급식지원 분담금 납부를 재결의했다. 그러나 지원 금액을 각 종단에서 자율 조정키로 해, 오히려 사업추진 전망은 밝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대북지원금을 약정했던 각 종단들이 지난해 하반기 월동의류 지원사업을 진행한 후 소극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다, 지원금액을 축소하려 하기 때문이다.

종단협 소속 26개 종단 가운데 대북지원 분담액을 납부한 종단은 절반인 13개에 불과하다. 완납했더라도 모두 140~250만원의 소액 규모이며, 지원예산 규모가 큰 조계종(분담액 1억7000만원) 태고종(1000만원) 천태종(5000만원) 진각종(8000만원) 총지종 (3500만원)등은 납부하지 않고 있다. 대북지원금 1억7천8백만원을 미납한 조계종은 24일 종무회의를 열어 실질지원 가능액을 책정할 예정이지만 2000만원선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각 종단들로부터 올 한해 4억3천여만원을 약정 받아 정부로부터 총 3억6천만원의 남북협력사업 지원금을 받게 되는 종단협은 올 상반기, 정부지원액과 같은 1억2천300만원 정도를 북한에 지원해야 통일부에 의한 국고환수조치를 피할 수 있게 된다.

종단협의 한 관계자는 "대북지원에 차질을 빚을 경우 통일을 앞두고 꼭 필요한 통일부 남북협력기금 지원사업에 일체 참여할 수 없는 어려움에 직면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종단협은 2002년도 하반기(2002년 7월~2003년 6월) 지원사업에 주요종단들의 공식참여계획이 없어 통일부 남북협력기금 지원사업비 신청도 보류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현재 대북지원예산은 기독교계가 매년 200여억원인 반면, 불교계는 약 10%인 20억원 수준이다.

김원우 기자 wwkim@buddhapa.com



50만→77만→279만→420만→500만명

한국축구팀이 선전함에 따라 거리응원 인원이 신기록을 거듭하고 있다. 응원단이 대형 태극기를 흔들며 열렬히 응원하는 모습.

한 · 중 · 일 무차선 대법회 10월 20일 부산 해운정사

부산 해운정사(조실 진제)는 1998년과 2000년에 백양사에서 열린 '참사람 무차대법회'를 계승, 발전시키고 부처님의 심인법(心印法)인 조사선(祖師禪) 전통을 확립하고 선양하기 위해 동양 3국 선지식들을 초청, 한 · 중 · 일 국제 무차선 대법회를 봉행한다.

오는 10월 20일 9시 30분부터 오후 4시까지 열리는 이번 무차대법회에는 백양사 방장 서옹스님, 동화사 및 해운정사 조실 진제스님, 중국 백림선사 방장 정혜스님, 일본 임제종 묘심사파 대보리사 관장 종현 스님 등의 주도로 전국의 수좌들과 재가 불자들이 동참, 선문답을 펼친다.

☞ 관련기사 3면

김재경 기자 jkim@buddhapa.com

불교문화 체험하고 신심도 키우고

가자! 부다피아 어린이캠프

현대불교신문은 불교 앞날의 주인공이 될 새싹불자를 키우기 위해 제 5회 부다피아 어린이 여름캠프를 엽니다. 미륵종찰 법주사(사진)와 수영장등 놀이시설이 가득한 유스타운, 속리산 국립공원의 자연 속에서 공동체 생활을 익히면서 건강하고 맑은 신심을 길러주게 될 부다피아 캠프는 어린이들에게 유익하고 즐거운 시간이 될 것입니다. 여름방학을 이용해 불교문화를 체험하고, 속리산 탐사를 통해 자연의 소중함을 피부로 느끼는 풍 멋지고 신나는 부다피아 캠프에 많은 어린이들의 등참을 바랍니다.



◆일 정: 2002년 7월 30일(화)~ 8월 1일(목) 2박3일
◆장 소: 속리산 법주사, 유스타운 일대
◆대 상: 초등학교 1~6학년(선착순 300명)
◆참가비: 7만원
◆준비물: 점심 도시락(당일), 수영복, 수영모자, 필기도구, 세면도구, 모포
◆문의전화: 02-738-7860
◆은행계좌: 농협 053-02-177171 (예금주: 불교레크리에이션협회)

※출 발 : 30일 오전 10시 조계사
※도 착 : 8월 1일 오후 6시 조계사 · 봉은사

●주 최 : 현대불교신문사
●주 관 : 불교레크리에이션협회
●협 찬 : (재)보덕학회, 신수회
●후 원 : 조계종 포교원, 진각종 통리원, 조계사, 한마음선원, 봉은사

뉴스속뉴스 news in news

불교학자들의 수행체험

'수행해 보지 않은 사람이 수행에 대해 말할 자격이 있는가?' 이에 대해 불교학자들은 어느 불교학자의 말처럼 대부분 '말할 자격이 있다'고 답할 것이다.

"불교학자는 지도 그리는 장인(匠人)과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지도 그리는 장인의 경우 히말라야 산에 가 본 적은 없어도, 그 곳에 갔다 온 사람들의 여행기를 참조할 경우 정확한 지도를 그릴 수 있듯이, 불교학자는 깨닫지 못했어도 과거 깨달은 분들의 가르침을 참조해 깨달음으로 가는 정확한 지도를 만들 수 있다."



그러나 반론도 적지 않다. '체험없는 불교학은 사상누각이자, 관념의 메아리가 아니냐'고, '불교학이 수행체계의 화석화를 더이상 방치해서는 안된다'는 문제제기가 잇따르고, 불교학자들이 불교학과 수행, 또는 신행의 접목을 시도하는 움직임이 조용하게 일고 있는 요즘은 더욱 이런 주장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이런 가운데 대표적인 불교학습단체가 이론과 수행의 접맥을 시도하는 워크숍을 마련해 관심이 모아진다.

불교학연구회(회장 해주스님)가 7월 13~14일 수덕사에서 '명상과 불교수행-간화선과 염불선, 위빠사나'를 주제로 여는 여름 워크숍이 그것. 간화선과 염불선, 위빠사나 등 전통 불교수행법에 대한 고찰과 실수(實修)까지 겸한, 이른바 '실천 불교학(Practical Buddhology)'을 모색하는 보기드문 자리다.

이번 워크숍의 제 1부 '불교 수행전통에 대한 고찰'에서는 동국대 김용표 교수의 사회로 동국대 유진스님이 '간화선의 이론', 김재성(고려대장경연구소) 연구원이 '위빠사나의 이론'을, 용타스님(귀신사)이 '염불선의 이론과 실수'를 각각 발제한다. 제 2부 '간화선과 위빠사나 실수'에서는 이평래(충남대) 교수의 사회로 무애스님(수덕사 선원 입승)의 간화선 실수, 붓다락기타스님(보리수 선원장)의 위빠사나 실수 등이 진행되고 종합토론이 열린다.

불교학연구회 회장 해주스님은 "이번 워크숍이 살아있는 불교 연구풍토를 확산시키고, 논리만 팽배해 있는 현 불교학계를 일신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기대했다.

김재경(취재1부 차장)

불자의 생각

금주의 주제: **불교와 직업**

1. 불교가 직업을 선택하는데 영향을 준다고 보십니까?
①상당히 준다 ②주는 편이다
③별 상관없다 ④전혀 주지 않는다.

2. 불자님의 경우 직업 선택에 있어 불교의 영향을 받았습니까?
①많이 받았다 ②조금 받았다 ③받지 않았다.

설문 참여: 6월 27일까지 buddhanews.com에서 참가하세요. 푸짐한 경품이 기다립니다. 설문결과는 현대불교 376호 9면에 실습니다.

세계가 놀란 '한국인의 저력'

'역동성 국가발전 동력 삼아야' 여론

월드컵이 진행될수록 온 국민의 열정적인 응원이 한층 기세를 높이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4일 폴란드전 당시 전국적으로 49만8천명이던 거리응원은 6일 미국전 76만9천여명, 14일 포르투갈전 278만6천여명, 18일 이탈리아전 420여만명, 22일 스페인전 500여만명으로 늘어났다. 이같이 하나된 국민의 응원으로 한국팀은 전 세계인이 경탄할 정도로 기량을 펼치며 폐거를 이뤘다. 이제 우리는 이런 저력 확인에만 민족할 것이 아니라 국민의 다이나믹한 역동성을 국가발전의 동력으로 삼아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하고 있다. 건국대 성태용 교수는 "한국팀의 선전과 이에 따른 자신감, 높아진 국가이미지등을 활용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각 분야로 확산시켜 국력으로 승화시킬 수 있도록 각계의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 관련기사 9 · 20면

중국불교협회 공식 초청 조계종, 한중수교 10돌 기념

조계종이 한중수교 10주년을 기념하고 한중불교계의 선린우호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중국불교협회 대표단을 한국에 공식 초청한다.

중국불교협회 도승인 수석 부회장을 비롯 중국 8개 성(省), 시(市), 4대 명산, 한어, 광어, 팔리어계 등 3대 언어계 대표 총 19명을 7월 16일부터 20일까지 초청하겠다고 발표했다.

중국불교협회대표단은 해인사, 불국사, 직지사등 전통사찰 참배와 전통강원, 선방, 중앙승가대, 동국대 등을 견학한다.

김원우 기자

우리 곁에 혜성처럼 나타나 영가천도를 1~2초에 원격(遠隔)으로 하고 있는 윤정주씨의 놀라운 체험이야기

우리의 육체에서 만드는 氣(마음에너지)와 영혼과의 관계를 밝힌 책

모습없는 모습으로 다가온 사람들

저 자 : 尹 丁 做

몸과 마음을 맑고 깨끗하게 한 사람들의 신체(身體)에서 만들어 내는 기(氣 : 마음에너지)와 죽은 영혼(靈魂)들과의 영원 불멸의 관계를 밝힌 "모습없는 모습으로 다가온 사람들"은 우리에게 다반사로 일어나는 일상사의 크고 작은 심신의 아픔과 온갖 우환들이 우리의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 죽은 영혼들의 시공(時空)을 초월하는 정보능력에 의한 의식작용에서 비롯된다는 여러 가지 실제 사례들을 실 체험을 통해서 자세하게 밝혀놨다.

이 책은 인류가 생겨난 이래로 지금껏 유례없었던 혜성 같은 이야기와 저자의 신비로운 기(氣 : 마음에너지)가 가득히 담겨있는 책입니다.



上, 下 각권 값 10,000원

신비한 기(氣 : 마음에너지)와 마음의 묘법을 밝힌다

도서출판 슈 침

■ 전화 : 02-736-7148, 723-3856
■ 팩스 : 02-736-7148

전국 서점에서 판매중!

사 설

만화 통한 포교영역 확대

불교만화 연구소에서 격월간 만화 포교지 '불교만화 이야기'를 7월 1일 창간한다. 늦은 감이 없지 않으나 그동안 대안 없이 표류하고 있던 불교 어린이 청소년 포교에 적지 않은 활력을 보탤 것이라 기대감을 갖는다.

만화는 메시지를 쉽고 간단하게 전하면서 꿈과 상상의 세계를 한껏 부풀려 줄 수 있는 대중예술로 신세대들을 불교 가까이 불러들이는데 이만한 유인물도 드물 것이다. 여기에 장르 파괴적 애니메이션의 세계까지 발전시킨다면 신세대 포교 인프라의 상당 부분을 구축한 것으로 보아도 좋을 것이다.

현대에 들어 만화의 위력은 이미 입증되어 있다. 그리고 출판 가운데 만화 점유율이 높아지는 추세여서 만화 발전가능성은 크다. 뿐만 아니라 어린시절의 만화독서는 내용의 체화(體化)가 빠르고 그 영향이 평생을 좌우한다. 어려서부터 불교적 심성을 심어 주는데 이만한 것도 없어 보인다.

또한 불교는 종교 · 문화 · 문학적 만화소재의 보고다. 대부분 대화체로 전개되는 수많은 경전 속에도 무궁무진한 이야기가 있고 긴 역사로 하여 축적된 선사, 큰스님들의 설화 역시 삶과 이야기의 보고가 아닐 수 없다. 거듭 말해 불교야말로 만화 소재의 엄청난 광맥인 것이다.

불교 철학과 문화가 지니고 있는 세계성은 한국 불교만화가 앞으로 세계를 겨냥 할 수도 있고 해외포교에도 일역을 감당 할 수 있으리라 믿는다.

만화를 통한 불교포교가 이제 첫 삽을 뜬 셈인데, 불자를 중심한 교계의 폭넓은 관심과 후원이 이를 잘 키워 낼 것이라 믿는다.

'희망의 등 달기' 지속적 운동으로

중앙신도회와 본사가 공동 주최하고 생명나눔실천회, 조계종사회복지재단, 교구신도회가 공동주관하는 '희망의 등 달기 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원래는 초파일 행사의 일환이지만 불교계 내외의 호응이 의외로 좋아 지속적인 운동으로 전개한다고 한다. 단순하게 등 달기 운동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모연등을 달아 모금된 돈을 불우한 이웃에게 회향하여 기쁨과 희망을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미 멎멎 환자들에게 자비의 손길을 펼친 것으로 전해진다.

등이란 원래 밝음을 상징한다. 인간들의 마비된 이성을 치료하여 밝고 건전한 삶을 유도한다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상징화한 것이 등이라 말할 수 있는 것이다. 때문에 등은 어둠과 지혜롭지 못함을 의미하는 무명을 밝혀주는 것이며, 인간이 마땅히 가야 할 길을 온전하게 갈 수 있도록 해주는 안내자의 의미도 담고 있다.

부처님께서는 가난한 여인 난타가 화려하지는 않지만 정성을 다해 소박한 등을 밝혀 세상의 어둠을 없애고자 하는 마음에 감동하여 이를 더없이 소중한 행위라 말했다. 희망과 기쁨이 넘치는 밝은 세상은 이렇게 한사람, 한사람이 실천에 나설때 가능해진다는 가르침이다. 대승불교에서 등을 희망과 구원의 상징으로 보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희망의 등 달기 운동'은 단순히 일회성 운동으로 끝나서는 안된다. 부처님의 제자들이 제자됨을 확인하는 운동이면서 한 시대와 공간을 함께 하고 있는 공업중생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다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밝은 세상 만들기에 동참하는 일이기에 꾸준히 계속하고, 동참이 이어지기를 바란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회 장 : 노대행
발행 · 편집인 : 김광삼
주 필 : 김병규
인 쇄 인 : 김규석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인터넷 日刊 현대불교 www.buddhanews.com
정보센터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불교쇼핑 '마하몰' www.mahamall.co.kr
온라인서점 '여시아문' www.yosiamun.com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 : 다-3379
대표전화 02-737-8881

편집국 (02)722-4162 FAX (02)737-0698
광고국 (02)732-1522 FAX (02)737-0697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737-009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110-170

구독료 : 1개월 4천원 1년 4만원 영구 50만원

중앙승가대학교 대학원 설립

8월내 교육부에 인가신청, 내년 신입생 모집

중앙승가대학교에 대학원이 설립된다.

학교법인 승가학원 이사장 정대스님(조계종 총무원장)과 중앙승가대 총장 종범스님 등 학교 관계자들은 17일 총무원에서 회의를 열고 일반대학원을 설립키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중앙승가대는 금명간 대학원 설립 실무를 추진할 '대학원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본격적인 설립 준비에 들어간다.

이번에 설립되는 대학원은 현재 중앙승가대에 설치돼 있는 불교 · 역경 · 포교 · 사회복지 등 학부과정 4개 학과의 석사과정으로, 40명 정원을 계획하고 있으며, 대학원 건물은 본관의 일부 건물을 사용하게 된다.

중앙승가대는 우선 '대학원위원회'가 구성되는 대로 대학원 정관 및 규칙을 제정하는 한편, 8월 안으로 교육인적자원부에 설립인가를 신청하고 내년부터 신입생을 모집할 방침이다. 최근 겸임교수 4명에 대한 충원작업이 막바지에 이르는 등 대학원 설립에 필요한 교수 정원 확보는 사실상 마무리된 상태다. 중앙승가대는 한달여 전부터 승가교육기획위원회를 구성해 대학원 설립에 따른 제반 현안을 준비해왔었다.

중앙승가대 대학원 설립이 추진됨에 따라 승가교육 및 승가 전문인력 양성 체계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우선 은해사 승가대학원과 학림, 동국대 대학원뿐이었던 대학원 성격의 종단 전문교육기관이 확대됨에 따라 승가교육의 질적 발전을 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중앙승가대 대학원은 이들 전문교육기관과는 달리 교육인적자원부가 공인하는 승가전문교육기관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중앙승가대를 졸업한 스님들의 경우, 대학원이 없어 부득이 동국대나 원광대 대학원으로 진학해야 하는 불편함도 덜게 됐다.

승가 전문인력 양성 기반도 크게 넓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승가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기반이 약한 현실에 비춰, 중앙승가대 대학원은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앙승가대 교학처장 종석스님은 "이번 일반대학원 설립은 종단 현안에 대해서도 깊이 있는 연구가 자연스럽게 이뤄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며 "차후 일반인들을 위한 특수대학원도 설립해 명실상부한 종단 교육기관으로서의 기틀을 다져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명우 기자 mwhan@buddhapia.com



◇한국불교전통문화체험 사업단장 도영(조계종 포교원장) 스님은 20일 한국관광공사에서 19개국 대사 및 대사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직지사 템플스테이 참가 대사 인증서 수여 행사를 가졌다.

템플스테이 국가홍보대사 역할

외국 유력매체들 잇달아 홍보… "월드컵후도 계속을"

한국 전통문화 체험 프로그램의 하나인 템플스테이(Temple stay)가 한국을 외국에 알리는 홍보대사 역할도 톡톡히 하고 있다.

17일 문화관광부에 따르면 월드컵 열기가 갈수록 달아오르면서 미국 CNN방송 등 세계 각국의 유력 방송, 신문 매체들이 템플스테이의 매력을 잇달아 보도하고 있다. 그동안 템플스테이를 이용한 외국인 관광객은 500여명. 양 보다는 질 위주로 진행이 되어 참가자는 예상보다 적었지만, 해외홍보 효과는 톡톡히 거두고 있다.

지금까지 템플스테이를 다룬 외국 언론은 미국 CNN 방송과 뉴욕타임스, 영국 BBC방송, 일본 NHK 방송과 아사히, 요리우리신문, 스페인 국영TV, 라디오프랑스 등 20여개. CNN방송의 경우 지난 7일 오전 2분 40초에 걸쳐 새벽예불, 참선, 다도, 연등만들기, 탑돌이 등 프로그램을 상세히 소개하면서 "월드컵 이후에도 템플스테이가 지속되기를 바란다"는 당부의 말을 덧붙였다.

이에 대해 문화부 관계자는 "템플스테이가 월드컵 이후에도 계속 활성화되도록 불교계와 협의해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재경 기자

불교대학 대표자협 창립

해동·동산 등 20여 교양대도 '불교교육단체련' 발족

신도 양성의 산실인 불교(교양)대학이 조계종 소속과 그밖의 종단 및 단체 소속으로 각각 나뉘어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신도 교육 활성화에 나서고 있다.

조계종 포교원은 지난 5월 9일 43개 불교대학을 전준교육기관으로 인가하는 한편 20일 총무원 불교회관에서 이 불교대학 대표자들이 참여하는 '조계종 불교대학 대표자 협의회'를 창립하고, 초대 회장에 창원 불지수다라불교대학 학장 정인스님(중앙승가대 교수)을 선출했다(관련 인터뷰 4면).

포교원은 이어 조계사 대웅전에서 포교원장 도영스님 등 불교대학 관계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도전문교육 고불식을 갖고, 43개 불교대학에 대한 신도전문교육기관 인가증을 전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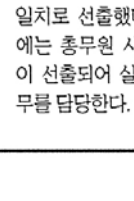
한편 조계종 인가를 받지 않은 불교교양대학과 태고종, 천태종 등 다른 종단의 20여 불교교양대학들도 20일 서울 송현클럽에서 한국불교교육단체연합회를 발족시켰다.

한국불교교육단체연합회는 해동불교대학 학장 대은스님과 한국불교교화원 이사장 한정섭 법사, 동산불교대학 김재일 법사를 공동회장으로 선출하고 불교교양대학간의 정보공유를 통한 신도교육의 향상을 도모하기로 했다.

김재일 공동회장은 "전국 200여 불교교양대학들은 조계종이 요구하는 인적, 물적 토대와는 달리, 다양한 포교 및 교육 여건을 갖추고 있다"며 "종파를 초월해 새로운 불교 신도를 양성하는 자율성과 다양성을 갖춘 불교교양대학 협의체로서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재경 기자

공동대표의장 정대스님 종교지도자협의회 총회



(사)종교지도자 협의회는 12일 총회에서 공동대표 의장(이사장)에 정대 스님(사진)을 만장일치로 선출했다. 또 운영위원장에는 총무원 사회부장 양산스님이 선출되어 실질적인 사업과 사무를 담당한다.

김원우 기자

'현대' 만평

김 영 민



부처님 자비가 고갈돼서야…

제보받습니다

현대불교신문이 보다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전하기 위해 제보창구를 상설하고 독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기사화됐으면 좋겠다고 생각되는 사안(사건, 사고, 미담, 사진 등)에 대한 취재요청은 물론, 각종 행사나 모임에 관한 소식도 좋습니다. 기사화되는 제보 가운데 불교발전과 기사로서의 가치가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정의 기념품을 증정합니다. 또한 지면제작과 관련한 문의나 투고, 의견개진은 물론 출판과 관련한 각종 제안도 환영합니다.

제보자의 신원은 한국전문신문협회 윤리강령에 의거해 철저히 보호됩니다.

제보전화 : 722-4162 FAX : 737-0698 인터넷 주소: buddhanews.com

미륵대불 금강도덕법립 성탄절에 즈음하여

억조창생들이 기다리고 기다려 왔던 미륵부처님 용화세상이 중앙무기오십토운(中央戊己五十土運)으로 지구촌의 중앙인 한반도에 돌아오니, 세계 인류들이 몰려 와서 월드컵의 축제를 벌이고, 미륵부처님의 천지인 삼법이 이루어지는 이인횡삼십이월록(二人橫三十二月綠)이라, 인천(仁川)과 부천(富川)의 중간이 되는 송도(松島)에 용화세운(龍華世運)으로 진인께서 도덕진리로 만중생을 교화하시는 것이니, 인천시에서 36天의 천운으로 단군자손들이 세계의 강대국으로 발돋움을 시작하였으니 이 신비하고 오묘한 신부지(神不知) 용화세상의 이치를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구세주 미륵부처님 용화세상을 알지 못한다면 이 세상에 살고 있다고 하나 사는 것이 아니며, 구세주 미륵부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모르고는 종교를 가졌다 한들 무슨 소용이 있을 것이며, 미륵부처님 일월도덕진리를 알지 못하여 인연이 없다면 기도를 한들 성취가 어려울 것이니 아무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믿음이라 하여 다 같은 믿음이 아니건만 앞날을 헤아리지 못하는 사람들은 성운이 다한 말세종교의 말만 알아듣고 편하여 앞날을 어둡게 하고 있으니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 창조주 천지님께서 대자연의 절후 속에서 원형이정으로 만물을 생성하여 살리시듯이 후천 용화세상을 창조하시는 미륵부처님께서는 측은지심(惻隱之心)과 수호지심(守護之心)을 배합하여 운행하는 금강도덕법립성탄절을 정명하고 건운곤복(乾運坤福)으로 만중생을 먹이고 입히어 살리시고자 법고를 울리고 계시니, 오만대운의 새로운 성운으로 태양같이 떠오르는 구세주 미륵부처님 인연을 찾아, 칠대 조상부모님을 이고득락케 하고 지옥에 떨어지는 내 영혼을 구하며 어두웠던 자손들의 앞길을 밝게 열어 곤난과 시련의 고통에서 벗어나는 새로운 운명을 개척하시기를 기원하는 바입니다.

- 안 내 -

- 일 시 : 개도법립 5019년 5월 19일(양 2002. 6. 29) 오전 10시
- 장 소 : 미륵대도 총무원(인천시 연수구 옥련동 산 84-3)
- 전 화 : 032-832-0626 / 팩스 : 032-831-8967
- 주 최 : 미륵대도 금강연화종 총무원
- 후 원 : 대도문화재단, (사)미륵종교협의회

하늘뿌리종교 태극민족종교 인류도덕종교

彌勒大道 金剛蓮華宗

2만 불자 운집 결연한 환경수호 천명

'6·26' 범불교도 대회 개최 의미와 전망

26일 오후 2시 조계사에서 개최되는 '북한산 국립공원 파괴행위 규탄 범불교도대회'는 조계종 뿐 아니라 태고 천태 진각종 등 주요 종단스님들과 신도들이 대거 참여할 전망이다. 이날 최대 규모인 2만여 불자가 동참, 정부의 일관성 없는 환경정책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고 북한산 국립공원을 살리겠다는 결연한 환경수호의지를 다진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날 대회는 조계종 총무원장 정대스님의 격려사, 조계종 원로의원 성수스님의 환경법어, 둔정현 신부의 연대사, 북한산 살리기 운판 봉정식, 고은 시인의 환경시 낭송, 대정부 국회 촉구문, 북한산 환경수호대 발족식 등의 순서로 진행될 예정이다.

'자연환경과 수행환경수호를 위한 조계종 공동대책위' (위원장 성타, 이하 공대위)가 6·26 범불교도 규탄대회를 개최하게 된 가장 직접적인 계기는 4월 18일 건교부 장관이 조계종 총무원장 정대스님을 예방한 자리에서 밝힌 △북한산 관련 고소 고발 취하 △우회노선 검토의 구성 △LG건설 직원에 의한 비구니스님 폭행 사과 및 관련자 문책 등 불교계의 요구를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3월 16일 조계종 원로회의에서 '자연과 수행환경 수호'라는 유시까지 발표됐음에도 사찰수행 환경보존 문제에 대한 정부의 무성의한 대처가 한몫 했다는 분석이다.



◇6·26범불교도 대회는 6월달 이후 북한산 관통도로 건설공사가 강행되려 하자 추진됐다. 사진은 지난 3월 5일 조계사에서 열린 '자연보전과 사찰수행환경 수호를 위한 범불교도대회'.

국민적 관심 환기, 정부에 대안노선 촉구
해결 안될땐 실력행사 등 강경한 대응책

최근 들어 북한산 관통도로 건설뿐만 아니라 천성산과 금정산 고속철도 건설, 통영 미륵산 케이블카 건설 등 불교계 환경현안들이 한 건도 해결되지 못한 상태로 방치되고 있었다. 여기에 서울고속도로(주)가 12일 조계종 총무원장 정대스님 등을 상대로 '건축물 철거 및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자 불자들의 공분은 더욱 거세어 졌다. 따라서 이번 범불교도 대회에 참여하는 불자들은 정부에 대해 친환경적 개발정책의 수립을 요구하고 동시에 불교계의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조계사 대회장에서 종묘까지 시위도 갖는 등 강력한 대정부 규탄에 나선다.

불교계는 26일 대회 개최를 계기로 월드컵과 지자체 선거 기간 동안 수그러들었던 북한산 관통도로 건설문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환기시키고, 정부에 대해 대안노선을 검토할 노선검토위 구성과 공사 중지를 적극적으로 요구할 예정이다.

불교계는 또 불자 청년들로 구성된 수호대 등 비상조직을 가동해 북한산 살리기 수행정진도량을 보호하고, 연말 대통령 선거까지 북한산 관통도로 건설을 유보시켜, 새 정권에서 관통도로 건설을 새롭게 논의하겠다는 장기적인 계획까지 준비하고 있어 앞으로 더욱 강력한 대응을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조계종 환경위원 현응스님은 "6월 30일 이후 본격적으로 공사 강행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이번 기회에 불교계가 결연한 의지로 북한산을 지켜내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지 않는다면 1천 6백년 한국불교가 뿌리부터 흔들릴 지도 모른다"며 불자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촉구했다.

강유신 기자 shanmok@buddhapia.com

선종사에 새로운 이정표

한·중·일 무차선대회 어느 고승 참석하나

부산 해운정사(조실 진제스님)가 오는 10월 20일 9시 30분부터 오후 4시까지 여는 '부처님의 심인법(心印法) 선양과 참사람의 인간성 회복으로 세계평화 및 남북평화통일 성취' 주제의 무차선(無遮禪) 대법회는 1998년과 2000년 백양사에서 열린 '참사람 무차선대법회'를 계승한 세 번째 국제 무차선 대법회다.

이번 대법회는 중국이 사회주의의 영향으로 선불교의 전통이 명맥만을 유지하고 있고, 일본은 지나치게 형식주의로 흐른 가운데, 선종의 원형을 가장 잘 보존하고 있는 한국 선불교를 세계에 알리고 그 전통을 바로 이어가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한국이 선종의 적통을 잇고 있는 화두선의 종주국임을 세계에 과시하는 의미도 깔려있다.

특히 이번 국제 무차선 대법회는 한, 중, 일 동양 3국의 선지식들이 처음으로 한 법단에 등단해 법거량을 펼칠 예정이어서, 선종사에 새로운 이정표가 될 전망이다. 아울러 티베트 밀교나 일본 선불교에 의해 가려져 있는 한국불교의 진면목을 세계에 제대로 알려 국제포교 활성화의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해운정사 조실 진제스님은 행사 취지문에서 "큰스님들의 법문이 있으신 후에 대중 누구나 원하는 이가 나와서 큰스님들께 질문하고 답을 들을 수 있는(법거량) 뜻 깊은 자리인 만큼, 인간의 참된 삶과 본래적이고 근원적인 진리에 관심을 갖는 모든 분들의 많은 동참을 바란다"고 말했다.

'무차회'는 범어 'Panca-parisad' 또는 'Panca-varsika-parisad'라 하며 승려 및 남녀노소의 차별없이 일반대중들이 평등하게 법문을 듣고, 잔치를 열어 공양을 베푸는 일종의 법회의식. 이번 대법회에는 진제(眞際) 스님을 비롯 백양사 고불총림 방장 서옹(西翁) 스님, 중국 조주원 백림선사 방장 정혜(淨慧) 스님, 일본 임제종 묘심사파 대보리사 관장 종현(宗玄) 스님이 등단해 선문답을 펼친다.

중국 백림선사 방장 정혜(중국불교협회 부회장) 스님은 문화대혁명으로 존폐위기에 놓였던 중국 불교를 살린 허운 대사의 선농일치(禪農一致) 사상을 이어, 운문종의 13세 종통을 계승한 고승. '각오인생(覺悟人生), 봉헌인생(奉獻人生)'이란 기치 아래 1991년부터 매년 생활선 대회를 열고 있다. 중국 선종의 부흥에 심혈을 기울여 귀운암(歸雲庵)에 일체의 출입을 통제한 무문관(壁觀)을 설립, 중국 선종의 중흥에 심혈을 쏟고 있다.

일본 임제종 대보리사 관장 종현 스님은 72년 묘흥사(妙興寺) 무위실(無位室) 종의(宗義) 노사의 전법제자가 되었다. 84년 대보리사 주지에 이어, 95년 임제종 본사인 묘심사(妙心寺) 화원선숙(花園禪塾)의 숙두(塾頭)로 취임해 임제선풍을 드날렸다. 이번 국제 무차선회 참석은 임제종 묘심사파의 공식 추천에 의해 이뤄졌다.

김재경 기자



◇서옹 스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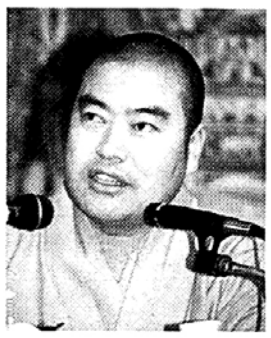


◇진제 스님



◇정혜 스님

한= 서옹·진제, 중= 정혜, 일= 종현 스님
3국 선지식 한 법단 등단 선문답 펼쳐



"신도전문교육 내실·활성화 최선"

불교대학 대표자협의회 초대회장 정인 스님

저변확대 위해 인가조건 완화 건의
교육기관령 등 제도적 미비점 보완

"요즘 불교에 대한 관심이 부쩍 높아진만큼 신도 저변확대와 자질 향상을 위한 신도 전문교육의 내실화,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일 조계종 총무원 불교회관에서 열린 '조계종 불교대학 대표자 협의회'에서, 초대회장에 선출된 창원 불지수다라불교대학 학장 정인스님(중앙승가대 교수, 조계종 중앙종회의원)은 포교원과 43개 조계종 인가 불교대학은 물론 비인가 불교교양대학과의 교량역할을 통해 사회에 이바지하는 신도를 양성하겠다고 말했다.

정인스님은 불교(교양)대학이 조계종 소속과 그밖의 종단 및 단체 소속으로 각각 나뉘어 협의체를 구성한 것과 관련, "비인가 불교교양대학이 다양한 포교여건과 재정난, 또는 자율성 등의 문제로 종단 인가를 받지 않은 경우가 많다"며 "교육 여건이 미비하더라도 가능한 불교대학의 저변확대가 이뤄지도록 인가조건 완화 등을 종단에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정인스님은 조계종 소속 이외의 불교교양대학과들과도 상호협조 체제를 유지해, 불교 전체의 포교 인프라 구축을 도모해야 신도교육의 본래 취지가 살아난다며, 종단과 비인가 불교교양대학들간의 유기적 협력관계에도 관심을 기울일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인스님은 불교대학들이 실질적인 정보교환과 업무협조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역별 부회장을 선임, 분기별로 회의를 갖기로 했다. 불교대학 협의회를 통해 신도전문교육기관령 등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해 불교포교에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 신도교육체계를 모색하겠다는 것이 정인스님의 구상이다.

창원에 있는 불지수다라 불교대 학장이자 중앙승가대학 교수인 정인스님은 순수 신앙적 강의와 불교학적 강의의 강단경험을 살려 신도교육이 질적, 양적인 성장이 가능하도록 부지런히 정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재경 기자 jgkm@buddhapia.com

인생을 바꾸는 아름다운 힘
아봐타코스
당신 마음의 무게는_?
천근, 만근??
깃털처럼 가볍게 사십시요!
지금 당신을
진정한 행복/풍요/건강으로
초대합니다.
쉽지만 강력한 마음스런 여행 – 해산스님과 함께 하십시요
해산아봐타 센터 011) 606-1976 www.haesanavatar.com
세이아봐타 센터 02) 782-0022 www.sayavatar.com

모시는 말씀

귀의삼보하옵니다
선무(禪武)는 심신(心身)을 하나로 묶어
정신이 건전하고 신체 강건한 올바른 인재를
길러내는 것이 목표입니다.
소납이 스승님으로부터 금강승선관무를
전수 받고, 그 제자들이 같이 모여
동고동락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하고자
수많은 세월동안 염원을 키워왔습니다.
이제 그 염원이 자그마한 결실을 맺어
사단법인으로 인가 되었고,
원주시 남녘 미륵산 남쪽 자락에
금강승선관무 중앙수련도장을
마련하여 '개원식' 및 '선관무정기수련'
'하계특별수련회'를 안내해 드리게 되었습니다.
공사다망하시더라도 개원식 및수련안내에
참석하시어 커다란 격려와 함께
조촐한 자리를 빛내주시기를 간절히 앙망합니다.

사단법인 금강승선관무
이 사 장 이 원 욱 합 장

중앙수련원 개원식

▷ 일 시 : 2002년 7월 7일(일) 오전 11시
▷ 장 소 : 원주 금강승선관무 중앙수련원

2002년도 사단법인 금강승선관무(선무도) 정기수련과정(1개월) 안내

1. 과정소개

개인 및 단체가 원주 금강승선관무 수련원에서 1개월간의 입산 수련을 통해 심신을 단련하는 과정입니다. 신행 단체, 직장단체, 각종 사회단체, 체육선수단, 외국인 참가단체등 각 특성에 따라 지도자와 사전협의 하여 일정표를 짜게 됩니다.

2. 참가회비

■ 개인 : 1개월 50만원 ■ 단체 (30인이상 기준) 회비조정

3. 기준일과표

시 간	내 용	시 간	내 용
4시	기상, 예불	13시	불교기초교리
5시	오체유법 및 참선	15시	선·관·무 수련
6시 30분	아침공양(발우)	17시 30분	저녁예불
7시 30분	운력	18시	저녁공양(발우)
9시	선·관·무 수련	19시	예습 및 복습, 독서
11시	참선	22시	취침
12시	정심공양(발우)		

4. 개 강 일 ■ 2002년 7월 25일 년중무휴

5. 참고사항

가. 매주 금요일 회주스님 면담시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나. 입과 후 개인외출, 술 담배 등은 허락되지 않습니다.
다. 규칙을 어길 경우 일정제재나 퇴소조치됩니다. 라. 수련회 참가자는 손해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6. 접 수 처 ■ 전화 : 033)764-6362, 011-722-4779, 02)803-4779, 02)598-6771
■ 팩스 : 02)803-4779

2002년도 사단법인 금강승선관무(선무도) 하계 특별수련회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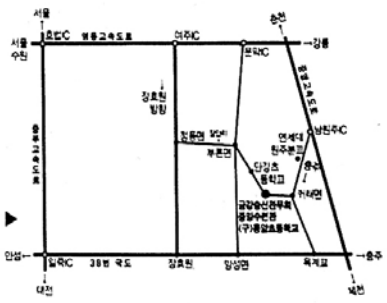
1. 일정 및 내용

기간 (3박 4일)		내 용
1차	7월 25일 (목요일) ~ 7월28일 (일요일)	禪·戱·武 수련, 묵언(참선), 발우공양, 사찰예절, 전통문화강습, 예불, 108배, 운력
2차	7월 30일 (화요일) ~ 8월 2일 (금요일)	
3차	8월 6일 (화요일) ~ 8월 9일 (금요일)	
4차	8월 13일 (화요일) ~ 8월16일 (금요일)	
5차	8월 20일 (화요일) ~ 8월23일 (금요일)	

※초·중·고생 수련회는 다소 다른 일정으로 진행됩니다.

2. 준 비 물 ■ 필기구, 세면도구, 우산, 운동화, 도복(별도)
3. 장 소 ■ 강원도 원주 금강승선관무 수련원
4. 신청방법 ■ 전화 : 033)764-6362, 011-722-4779, 02)803-4779, 02)598-6771 ■ 팩스 : 02)803-4779
5. 신청기간 : 2002년 6월 ~ 각 차수 2주전까지
6. 수련회비 : 6만원(1인)
7. 입 금 처 :
국민은행
812-24-0442-619
예금주 – 이동규

찾아오시는 길 ▶



사단법인 금강승선관무 총본회
· 강원도 원주시 귀래면 용암리 (구)용암초등학교 우 220-852
· 서울시 서초구 방배 3동 963-1 거양 B/D 4층 우 137-849

일주문



'효 실천의 날' 행사 열어

현성 대한불교청소년교화연합회장은 23일 서울 혜명양로원에서 '효 실천의 날' 행사를 가졌다.



해외연수 등 위해 출국

현해 오대산 월정사 주지는 원행스님 등과 함께 21일 이집트 등지로 성지순례, 학술토론회를 위해 출국했다.



여름학교 지도자 연수

지현 불교어린이지도자연합회 부산지구회장은 29일 양정청소년수련관에서 여름불교학교 지도자연수회를 개최한다.



자랑스러시민상 수상

성덕 불교자원봉사연합회장은 18일 세종문화회관 소극장에서 고건 서울시장으로부터 자랑스러운시민상을 수상했다.

6·13 지방선거 불자당선자 8인

전국 16개 시·도지사와 시장 군수 구청장 232명 등 모두 4천415명의 지방공직자를 뽑는 6·13 지방선거가 13일 일제히 실시됐다. 이번 선거에서 불심으로 국민을 위해 일하겠다는 불자들이 다수 당선됐다. 이중 천태종 신도인 안영일 부산진구청장, 삼보회 초대회장 출신인 최용수 동두천시장, 시흥시 불자회 창립을 주도한 정종훈 시흥시장 등 8명의 자치단체장과 구의원 당선자를 소개한다.

안영일 부산 진구청장



상월 원각스님의 수행담을 읽고 난 뒤 불교에 귀의했다는 안영일 당선자는 금강불교대학

하화중생심으로 區政

의 법사과정과 교법사 과정을 수료했다. 틈만 나면 불서를 탐독하는 안 당선자는 "모든 것이 부처님의 가피라고 믿는다"며 "불교의 하화중생심으로 구정 활동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98년부터 부산 삼광사 신도회장을 맡고 있다.

정종훈 시흥시장



경기도 행정의 일선 현장에서 26여년을 바친 전형적인 행정전문가. 수원 용주사에서 신행활

신행경력 30년…법명 해향

동을 시작한 정종훈 당선자는 신행경력만 30년이 넘는 독실한 불자로 시흥 법륭사 회주 우룡 스님에게 '해향(海香)'이란 법명을 받았다. 경기도 시흥시 부시장 재직시 '시흥시 불자회'의 창립을 주도했고, 지금은 법륭사 거사림회 고문을 맡고 있다.

우호택 화성시장



우호택(44) 당선자는 학사 장교 시절 '법운'이라는 법명을 받았고 두 아들 이름도 스님이

충효예 바탕 정체성 확립

지어줄 정도로 불교와 인연이 깊다. "사회가 각박하고 빠르게 돌아갈수록 불교의 근본 가르침이 사람들 마음을 편안하게 해 줄 수 있다고 믿는다"는 우시장은 효행도량 용주사와 연계, 충효예의 정신문화를 통해 시 정체성을 확립해 갈 계획.

성무용 천안시장



성무용 당선자는 천안 천불사와 큰 인연을 맺고 있는 불자다. 주지 부불스님은 최근에 창건된 사찰인

천불사 108법수회원

천불사가 전국적인 명망을 얻도록 성 당선자가 물심양면으로 지원했다고 밝혔다. 현재 천불사 108법 수회 고문을 맡아 도반들의 대소사를 챙길 뿐만 아니라 천불사 행사에도 빠짐없이 참여하는 천 당선자는 "정치에서 쌓은 경험을 불교발전을 위해 회향하고 싶다"고 밝혔다.

천사령 함양군수



선거운동 중 함양의 보림사와 화과원 법당을 찾아 참선으로 마음의 안정을 찾았다는 천사령 당

경찰청 불자회장 역임

선자는 경찰 요직을 두루 거친 '경찰통'으로 알려졌으며 경찰청 불자회장을 역임하는 등 부처님 정법 구현에도 앞장섰다. 불명이 우암인 천 당선자는 지역갈등을 치유하고 화합하는 분위기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용수 동두천시장



최용수 당선자는 동두천시청 불자모임인 삼보회를 창립을 주도했을 뿐만 아니라 초대 회장을 맡았다.

삼보회 창립 주도…첫 회장

어머니를 따라 소요산 자재암에 다닌 인연으로 신심을 키웠다. 선거 직전 근무지였던 남양주시청에서도 경제환경국장으로 있으면서 불자회 활동을 적극 후원했다. 삼보회는 19일 동두천 보문사에서 최용수 전 회장의 당선축하법회를 열어 축하했다.

조용수 울산 중구청장



조용수 당선자는 작년부터 울산 정광사 신도회 부회장직을 맡고 있다. 시간 날 때마다 사찰에

정광사신도회 부회장직

들른다는 조 당선자는 "부처님 전에 이 모든 결과를 바친다"며 "항상 불자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구정활동을 펼칠 것이며, 모든 문제를 자비사상을 바탕으로 구민들과 집적 대화로 해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미성 서울 성북구의원



성북구 구의원 29명 당선자 가운데 유일한 여성 사회복지전문가. 서울 진각종 탑주심인당에

치매노인복지경험 풍부

서 신행활동을 하고 있는 이미성(진각복지재단 총무과장) 당선자는 사회복지 실무현장경험 7년의 젊은 사회복지사. 특히 96년부터 서울시립남부노인복지관에서 치매·중풍 노인에 대한 노인복지 분야에 실무 경험이 풍부하다.

학술분야 김훈 씨 실천분야 심산 스님 신라문화원

제17회 불이상 수상자 발표







불이회(회장 홍라희)와 불이상 심사위원회는 제17회 불이상 수상자로 학술 분야에 조선족 중국 불교학자인 김훈씨(맨 위), 실천분야에 (사)한나래문화재단 이사장 심산 스님(가운데), 과 신라문화원(원장 진병길, 사진 아래)을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김훈씨는 한국불교 특히 원효 연구를 통해 중국 및 일본 등지에 한국불교를 소개해 온 조선족 중국불교학자로 활발한 저술활동과 다방면에 걸친 연구 성과로 학술상을 수상하게 됐다.

신라문화원은 1993년 창립이래 경주 불교계의 중요한 단체로 활발한 활동을 펼친 공로로, 심산 스님은 통도사 부산포교원을 설립해 부산지역 도심 포교에 이바지한 공을 인정받아 실천분야를 공동 수상했다.

시상식은 7월 5일 오후 2시 신라호텔 영빈관 토파즈룸에서 있을 예정이다. (02)3411-6167

권형진 기자 jinny@buddhapia.com

독거노인돕기 부채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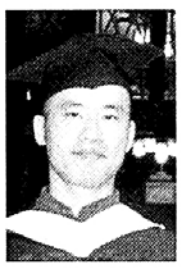
지장선원 주지 혜봉 스님

"독거노인을 돕기 위해 신 바람부채전시회를 준비했습니다"

30일까지 강릉시 거목레스토랑에서 독거노인돕기 신바람부채 전시회를 개최하는 혜봉 스님(강릉 지장선원 주지)은 "강릉단오제 기간에 열리는 신바람부채전시회는 일반인들에게 불교문화를 알리는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033 643-5789.

강릉= 전유진 지사장

비교종교학 전공 일미 스님 하버드大서 석사학위 받아



미국 하버드대 대학원에서 비교종교학을 전공하고 있는 일미스님(사진)이 6일 졸업식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스님은 오는 9월부터 종교학 박사코스에 들어가 하버드대학 장학금을 받으면서 공부한다. 이번 박사코스에 합격한 8명중 동양인은 2명으로 모두 스님이다. 다른 한 스님은 티베트 스님. 동국대를 조기졸업하고 일본 용곡대에서 공부한 일미스님은 영어 일본어 중국어 범어 독일어 등 6개 국어에 능통하다.

이경숙 기자 gslee@buddhapia.com

다구·다기 모음전 … 개촌 한돌 자축

강서예술촌장 청원 스님



"지역민들의 문화적 욕구 충족에 기여하겠다는 각오로 출발한 강서예술촌이 개촌 1주년을 맞았습니다. 다구와 다기 모음전을 열어 그동안의 성과를 자축하고 재도약의 기회로 삼고자 합니다."

예술 인구의 저변확대와 지역민들에게 다양한 문화예술의 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강서예술촌이 문을 연 지 1년, 강서예술촌 촌장 청원스님은

"전통문화 참멋 느끼는 기회 됐으면"

1년을 정리하는 전시회를 연다. 청원스님은 "그동안 1만 2천여명이 강서예술촌을 찾았으며 예술촌에서 실시하는 체험교실에도 3천명에 달하는 시민, 학생, 외국인들이 동참했다"고 성과를 정리했다. 또한 스님은 "6월 22일~7월 30일 사이에 예술촌 제2전시실에서 여는 〈다구와 다기모음전〉 전시도 보다 많은 사람들이 전통문화의 참 멋을 느끼고 가까이서 볼 수 있도록 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전시회에는 청원스님을 비롯 한주영, 박광기 등 조각가와 도예가들의 작품 40여 점이 선보인다.

22일 1주년 기념행사로 풍물한마당, 다도시연, 대금독주, 학생 도자기 만들기 경연대회를 열어 지역민들과 함께 했다.

천미희 기자 mhcheon@buddhapia.com



'실천불교 이념과 역사' 출판회

실천불교전국승가회(의장 청화)가 창립 10년을 맞아 20일 서울 한국일보 송현클럽에서 〈실천불교의 이념과 역사〉 출판기념회와 불교포럼 3주년 기념 후원의 밤 행사를 열었다. 조계종 총무부장 원택스님, 도선사 주지 혜자스님 불교포럼 박승원, 김연규 대표 등 300여 명이 참석한 이날 행사에서 청화스님은 "실천불교 운동을 위한 경전인 이 책을 발간하게 돼 한없이 기쁘다"고 말했다.



호국영령추모 산사음악회 개최

광주 신광사(주지 경주)는 호국의 달을 맞아 19일 호국영령 추모천도재 및 산사음악회를 개최했다. 정토사 회주 한탑·원효사 주지 현지스님 등 500여명이 동참한 이날 행사에서는 광주불교사암연합합창단과 장성농악단, 육자배기 등의 민속공연이 펼쳐졌다.



포교사단 군포교 4팀 위문공연

조계종 포교사단 군포교 4팀(팀장 김시우)는 16일 28사단 82연대 예하 대대 삼보포교원에서 불자가수 머루와다래를 초청, 위문공연 및 노래잔치를 펼쳤다. 군불자 100여명이 참가해 열린 이날 위문에서는 장병들은 떡과 음료, 불교서적 등을 받았다. 군포교4팀은 머루와다래와 함께 분기별로 군법당을 위문할 예정이다.

기도처 자연속에 묘존자리 자광원

행복하고 편안한 노후를 위한 최고의 선택입니다.



기도처 자광원의 특징

≫ 남한산성 자락에 위치하여 쾌적한 환경 속에 날마다 부처님을 모시고 염불과 기도정진으로 마음을 닦으며 남은 여생을 편안하게 즐기며 보내시도록 새로운 기도처를 마련하였습니다.

≫ 20년간의 무료 노인요양원인 사회복지법인 부처님 마을 자광원에서의 경험을 통하여 얻어진 전문지식에 의하여 설계된 노인을 위한 기도처 입니다.

≫ 외롭고 우울하게 혼자사는 노인 또는 부부노인중 한분의 거동불편으로 의·식·주 해결에 고민하시는 어르신들을 위한 낙원입니다.

≫ 자손들에게는 효도의 기회를 노인들에게는 안락한 여생을 제공하며 임종 시까지 정성껏 모셔드리겠습니다.

≫ 타 실버타운과는 확실히 차별되는 편리하고 다양한 프로그램(표1)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위치 및 시설개요

◈ 소 재 지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복정동 116
◈ 대 상 : 만 65세 이상. 노환스님 또는 부부, 개인 등 거처하고자 하는 모든 불자
◈ 정 원 : 24명~30명 내외
◈ 시설개요 : 본 건 물 → 방규모(약 5평) 24실 (각실 인토폰 설치)
→ 오락실, 체련실, 제1물리치료실, 팔각정자
부대시설 → 제2물리치료실, 목욕탕, 이·미용실, 법당, 식당
◈ 입방비부담 : 평생회원과 일반회원으로 구분 자비부담
◈ 연 락 처 : 전화 031)759-5320 팩스 031)759-4209



2002년 5월 15일 개원 대한불교 조계종 자광원

"행복한 가정 만들기"

제3기 가정폭력 전문상담가 교육생 모집

가정폭력의 증가로 인한 가정해체 현상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불교계에서도 가정폭력 전문상담원을 양성 「불교가정폭력상담소」를 곳곳에 설치하여 불행한 사람을 행복으로 이끌어가는 불국토를 만듭시다

본 프로그램은 가정 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거하여 가정폭력 상담의 전문성을 확보하여 보다 질적인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상담윤리 7시간, 여성학 15시간, 가정복지 6시간, 상담학 23시간, 심리검사 6시간, 법 9시간, 가정폭력상담 15시간, 성폭력상담 13시간, 상담실습 7시간)등 다양한 접근으로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1. 대 상 : ①자원봉사 희망자
②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자
③가정폭력 상담원 및 1366 상담요원 희망자
④가정폭력 상담소 설치 희망자
2. 제출서류 : 경력증명서, 수강신청서
3. 연수기간 : 2002년 6월28일~8월 14일까지(오전 10시~12시, 오후1시~4시까지) (강의따라 요일 변경)
4. 장 소 : 동국대 덕암세미나실, 만해교육장
5. 수 강 료 : 15만원(당일 등록시 16만원)
6. 모집인원 : 50명(선착순)
7. 신청방법 : 입금후 전화신청(입금처 : 한빛은행 098-088769-01-501) 예금주 : (사)한국여성불교연합회
8. 신청기간 : 2002년 5월 30일~6월 28일까지
9. 문 의 처 : (사)한국여성불교연합회 TEL 02)738-5586, FAX 02)738-7576
10. 본 프로그램의 수료증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인정합니다.

1. 본 프로그램 이수자에게는 보건복지부 인정 가정폭력 관련 상담원 자격을 수여함.
2. 본 행복한가정상담소에서 필요시 상담활동(봉사·유급)을 할 수 있습니다.

사단법인 한국여성불교연합회 중앙본부

불자가수회 학생 8명 장학금

대한불자가수회(회장 김활선)는 10일 불자가수회 사무실에서 저소득가정 학생 8명에게 각각 3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이날 전달된 장학금 240만원은 불자가수회가 사찰 순회 음악회와 일일찻집을 열어 얻은 수익금. 김아람(예일여중 1), 현수희(명지중 2) 등 8명의 수혜 학생은 서울 서대문구청과 은평구청의 추천을 받아 선정했다.



세무사불자회 부석사등 순례

한국세무사불자회(회장 정구정)는 15~16일 김천 김용사, 대승사, 윤필암, 봉화 축서사, 영주 부석사, 각화사 등지를 순례했다.

50여 회원 및 가족이 동참한 이날 순례에서는 축서사 조실 무여스님과 부석사 주지 근일스님의 법문을 들었다. 무여스님은 "바쁜 생활 속에서도 늘 수행 정진하는 불자가 되라"고 당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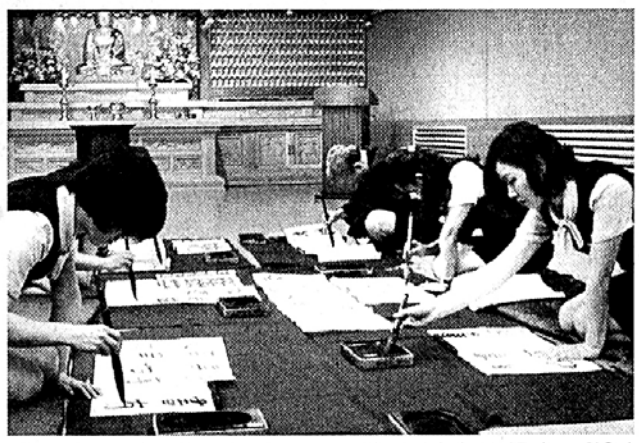


농협불자회 송림사 순례법회

농협중앙회 불자회(회장 정용근)는 15일 경북 칠곡 송림사를 찾아 순례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는 농협중앙회 불자회원을 비롯해 부산, 경남, 충북농협 불자회 등 지방 농협 불자 50여명이 동참, 향후 농협중앙회 연합체 결성을 위한 교류 물꼬를 텄다.



인터넷 화상 무료 법률 상담
law.buddhapia.com
■전화상담 : 매주 월~금 (오전 11시~오후 4시)
☎ 02)596-7231
■방문상담 : 매주 토요일 (오전 11시~오후 4시)
☎ 02)722-4162



◇직장내 법당들이 불자회원은 물론 일반직원, 방문객의 휴식 · 문화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사진은 경찰청 법당에서 서예를 하고있는 경찰청 직원들.

직장내법당 문화공간 활용

아산병원 새벽4시 개방…환자 · 보호자 신행
경산조폐창 금강원 불자직원들 휴식의 장
경찰청법당 서예·노래연습등 취미생활장소

직장내 법당들이 직장 불자들을 위한 신행공간의 성격을 넘어 일반 직장인은 물론 외부 방문객들도 활용하는 문화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직장내 법당을 갖고 있는 직장불교회는 경찰서, 교도소 등 특수한 상황에 있는 경우가 대부분. 때문에 전국에 4백여 직장불교회가 활동하고 있지만 자체 법당을 갖고 있는 곳은 40여 곳에 불과하다. 서울아산병원, 산업은행, 국회, 경산조폐창 등은 직원불자들의 적극적인 활동으로 공간을 할당받아 자체 법당을 운영해 오고 있다.

서울아산병원은 10평 규모의 법당을 불자법우회 회원과 환자, 보호자들의 기도와 법회 등 신행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잠실 불광사 자원봉사자들의 지속적인 포교활동 덕택으로 개원된 아산병원 법당은 매주 소식지를 만들어 병실에 돌리는 등 적극적인 활동으로 병원측으로부터 할애 받은 공간을 법당으로 개조했다.

아산병원 법당은 새벽 4시부터 저녁 6시까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되고 있으며, 신행상담은 물론 기도를 위한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법당을 찾는 이들은 부처님 법을 전하는 공간이면서 마음을 쉬어갈 수 있는 열린 쉼터라고 입을 모은다.

한국조폐공사 경산조폐창도 법당(금강원)을 개방해 호평을 듣고 있다. 회사에서 공간을 제공받아 금강원을 마련한 금강회는 법당을 회원 뿐만 아니라 일반 직원들의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1년내내 문을 열어 놓고 있다. 금강원을 찾는 이들은 대부분 금강회 회원과 직원불자. 이들은 점심시간 등 틈날때마다 법당에 들러 기도하는 등 금강회원들과도 친숙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부처님 오신날을 전후해서는 회사에 걸린 연등을 보고 외부인들이 찾아와 참배하고 가기도 한다.

경찰청 법당은 직원들의 문화공간으로 자리잡고 있는 대표적인 곳. 회원 뿐만 아니라 일반 직원들도 취미생활 공간으로 이용하고 있다. 법당에서는 서예 교습과 노래 연습이 이뤄지고 있으며, 출입도 자유롭다. 의무복무를 하고 있는 전 · 의경 불자들도 자유시간을 보내는 공간으로 활용하기도 한다.

국회정각회 직원불교신도회와 산업은행 불자회도 회원이 아니더라도 직원이면 누구든지 이용할 수 있도록 연중 개방하고 있다. 때문에 법당은 기도, 참선, 법회, 연등 제작, 회의장소등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이밖에도 국립의료원, 국립서울정신병원 등 병원 법당들과 각 경찰서 법당이 직원 및 방문객의 휴식 공간으로 제공하고 있다.

경산조폐창 금강회 윤종우 회장은 "법당은 법회를 비롯해 기도와 참선 등 불자들이 활용하는 신행공간이면서도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휴식공간"이라며 "직장인들의 지친 마음을 재충전하는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신행단체 담당=박봉영 기자 bypark@buddhapia.com

전남도청불자회 불교기본교육

7~8월 두달, 불교예절·기초교리·다도 등 강의

공무원불자회 활성화를 기치로 지난해 창립한 전남도청 불자회(회장 박재순)가 창립 1주년을 맞아 회원들의 자질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을 마련해 관심을 모은다.

전남도청 불자회는 7월과 8월 2개월간 광주불교교육원 교육관에서 회원들의 불교기본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불교예절, 사찰예절, 기초교리, 다도 등 기본적인 소양교육과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수행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교육 장소와 강사는 광주불교교육원이 협조하기로 했다. 이번 교육을 위해 전남지방경찰청 불교회와 공동으로 6개월간 진행해온 한탑스님의 금강경 강좌를 끝으로 마무리한다.

기본교육이 끝나는 시점에 맞춰서는 광양, 순천, 해남, 무안 등 전남지역 시·군불자회가 참가한 가운데 창립 1주년 기념법회와 합동수계법회를 봉행할 계획이다. 또 상반기 창립을 추진했으나 연기된 광주광역시청 불자회와 미창립 시·군 불자회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김채홍 총무는 "불교기본교육과 수계를 통해 불자로 새롭게 태어나는 한편 올바른 공무원 불자상 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직장직능지도자 지침서 발간

포교원, 7월6~7일 전국직장단체 임원수련회 맞춰

직장직능 불교단체를 이끌고 있는 임원 및 지도자들의 능력과 자질 향상을 위한 지침서가 발간된다.

조계종 포교원(원장 도영)은 7월 6~7일 열리는 '전국 직장직능 신행단체 임원 및 지도자 수련회' 시기에 맞춰 '직장직능 지도자 수련지침서'를 발간한다. 수련지침서에는 직장불교회 창립과정의 절차와 법회, 수계법회, 수련대회 등 법회의식은 물론 불자회 운영지침, 회원관리 요령, 모범 직장직능단체 사례모음 등이 수록될 예정이다. 개인 신행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기도법과 수행법, 명상법 등도 소개된다.

직장직능 단체들의 여름 수련회를 앞두고 발간되는 수련지침서는 전국 직장직능 단체 지도자 수련회에서 처음으로 선보이며, 참가자들에게 배포될 예정이다.

한일법우회 정기총회
김수덕 회장등 재선출

한일합섬 한일법우회는 19일 마산포교원 정법사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김수덕 회장, 정장근 부회장 등 회장단을 재선출하는 한편 법회 활성화를 위한 토론을 벌였다.

법회 활성화를 위해 법회의식을 간소화하고 찬불가 배우기, 참선 실수 등 회원들의 자율적인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로 했다. 또 98년 이후 실시하지 못한 성지순례를 분기마다 실시하고, 무료급식소 봉사 및 소년소녀가장 후원 등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김수덕 회장은 "98년 외환위기 이후 회원들의 급감 등으로 위축된 법우회 분위기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면서 "회원들이 함께 마음을 나누고 동참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법우회를 변화시켜 나가자"고 말했다.

한전본사 반야회

신라문화유적 '달빛기행'
전통음악공연·들차회도

한국전력 본사반야회(회장 김영창)는 7월 20~21일 경주 황룡사지 등지로 문화유적 답사 '달빛기행'을 떠난다.

야간에 이뤄지는 이번 답사에서는 '황룡사에 담긴 의미-황룡의 꿈' '불교의 수용과 발전' '신라왕은 석가족' 등에 대해 문화이벤트업체인 신라사람들의 안내로 진행된다. 또 대금 산조 등 전통음악 공연과 들차회가 마련돼 이색적인 문화답사가 될 전망이다. 반야회는 경주박물관과 불국사 참배도 계획하고 있다.

박경수 사무국장은 "지난해 처음 실시한 이후 참가자들의 호응이 좋아 다시 실시하게 됐다"며 "여름방학을 맞아 가족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정착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우리 모임에선

석불선양회 치악산 흥양리마애불 친견

한국석불선양회(회장 이귀인)는 7월 14일 원주 치악산 흥양리마애불을 찾아 친견법회를 봉행한다. 법회 후에는 주변 청소와 소쩍새마을을 방문, 장애인들의 삶의 현장을 체험한다. 이날 오전 7시 서울 동대문 이스턴호텔앞에서 출발하며, 7월 5일까지 신청자 접수를 받는다. 016-267-7945

서울아산병원 법우회 반야심경 강좌

서울아산병원 법우회(회장 김영태)는 6월 19일부터 10월까지 총 10회에 걸쳐 반야심경 강좌를 실시한다. 매월 두차례 열리는 이번 강좌는 홍성복 전 동방불교대 교수가 강의를 맡았다. 회원은 물론 환자, 보호자 등 청강을 원하는 희망자는 모두 참여할 수 있다.

춘천시청 도반회 현지사서 임원선출

춘천시청 도반회(회장 정상현)는 26일 오후 7시 춘천 사북면 현지사에서 임원을 선출한다. 이번 임원 선출은 창립 이후 회원수 증가로 임원단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지난 3월 열린 총회에서 임원 확대 회칙을 개정한 바 있다.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진각스님의 제22대 마곡사 주지 당선을 축하드리옵고
불조혜명의 원력으로 중생교화를 이루시어
인류의 대화합과 행복을 성취하옵길 기대합니다.

불기 2546년 6월 10일

사단법인 대한불교청년회 충남지구
회장 김철현 합장

범음대학 여름특강 안내

본 범음대학에서는 학인들의 요청으로 다음과 같이 여름방학 특강을 실시합니다.

1. 강의내용 : 요잡, 천수바라, 도량게
2. 응시자격 : 승려, 특별히 연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3. 전형방법 : 서류전형
4. 구비서류 : 1)특강원서 2)증명사진 2매
5. 원서교부 및 접수기간 : 2002년 6월 17일 ~ 6월 26일
6. 원서교부 및 접수장소 : 범음대학 교무처 (봉원사 내)
7. 합격자 발표 : 2002년 6월 28일
8. 입학일시 : 2002년 7월 1일 월요일 오후 4시. 봉원사 삼천불전
9. 교육기간 : 2002년 7월(1개월) 월, 화, 수 4시 ~ 6시
10. 연 락 처 : (우)120-15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봉원동 1번지 봉원사
전 화 - 범음대 교무처 02)392-3234
봉원사 종무소 02)392-3007~8

※ 주의사항 : 본 강의는 바라와 착복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므로 천수바라태징박자와 도량게범패를 숙지하고 있는 분이어야 가능 함

대한민국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보존회 부설 범음대학

신행 365일
이젠 실천이다

6월-지계(持戒)의 달
- 재가불자와 계율
- 지계 없는 수행의 위험
- 사회윤리로서의 지계
- 일상 속에서의 지계

일상 속에서의 지계



◇지계를 위해서는 참회가 필요하다. 사진은 8일 서울 서초동 정토회 실무자들이 포살법회 후 부서별로 계율 하나하나에 대해 구체적으로 참회하고 있는 모습.

서울 서초동 정토회 실무자 50여 명은 3년 전부터 30계본을 마련해 매월 한 차례 지계를 점검한다. '살아 있는 생명을 함부로 죽이지 않는다'로 시작해 '잘못한 줄 알면 즉시 참회하고 정기적으로 포살과 자자를 행한다'로 끝나는 30계본은 일상생활 속에서 불자들이 지켜야 할 기본적인 생활 윤리를 담고 있다.

매월 두번째 토요일에 열리는 포살법회는 한달 동안 이 30계본을 얼마나 잘 지켰나 점검하는 자리다. 전체 법회에서 지도 법사가 계본 하나하나에 대해 "…이 계본에 대해서 청정합니까?" 하고 세 번 물으면, 그 계본을 지키지 못한 사람은 스스로 일어나 삼배를 올린다. 이어 열리는 부서별 시간에서는 어떻게 해서 계본을 어기게 됐는지를 구체적으로 참회한다.

장도연 기획실장은 "오계를 기본으로 한 30계본은 수행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정토회원들이 함께 생활하면서 꼭 필요한 것들로 짜여져 있다"며 "한 가지 계를 계속해서 지키지 못하는 경우도 생기지만, 포살법회를 통해 참회를 계속하다 보면 스스로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찾게 된다"고 말한다.

교리 공부, 참선, 기도가 신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풍토 속에서도 일상 속에서 계를 지키기 위한 움직임이 일부 사찰이나 신행 단체를 중심으로 퍼지고 있다. 서울 조계사는 2000년부터 오계 지키기 캠페인을 펼치고 있고, 조계종 중앙신도회도 불자들이 지계를 생활화하자는 '불자 생활 윤리 운동'을 올 한 해 동안 펼친다.

그러나 지계를 생활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꼭 지켜야겠다는 자각'이 우선해야 한다. '자기 점검'이 필요하고 '참회'가 뒤따라야 하는 것이다.

해인사에서는 매월 음력 10일 재가불자들을 대상으로 참회기도를 하고 있다. 법회 때마다 200여 명이 참석하는 이 날, 불자들은 참회기도를 통해 스스로 계를 지키겠다는 다짐을 되새긴다. 참회기도를 집전하는 해인사 율원장 혜능스님은 "지계가 생활화되지 않는 것은 자기한테 적합한 계가 없기 때문이 아니라 꼭 지켜야겠다는 자각이 부족하기 때문이다"고 지적한다.

혜능스님은 "계를 지키지 못했을 때 그냥 덮거나 합리화해 버리면 더 큰 허물이 된다. 참회하는 마음이 바로 지계다"며 "깨어있는 정신에서 늘 점검하고 반성하는 것이야말로 일상에서의 지계"라고 강조했다.

권형진 기자

신행 캘린더

6월 27일 (목)

■용진신행회 '성지순례' = 중국 오대산 문수도량, 대동 은강석굴, 북경, 만리장성…. 중국불교 유적을 찾아가는 용진신행회의 성지순례가 7월 2일까지 5박 6일로 마련됐다. 2천년 중국불교의 현장을 찾아가 달마, 혜능 등 대조사들의 발자취를 따라가 보자. 참가비는 1백18만원.(02)2279-1191

■한국전통사찰음식문화연구소 '사찰음식특강' = 한국전통사찰음식문화연구소가 28일까지 서울 필동 '한국의 집'에서 사찰음식 공개강좌와 무료시식회를 실시하고 있다. 또 사찰음식과 연꽃을 주제로 작품 30점도 전시된다.(02)355-5961

6월 29일 (토)

■대구 맑고향기롭게 '연기사상 강좌' = 맑고향기롭게 대구모임은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대구은행 본점 옆 대구모임 사무실에서 불교 출판가 박훈천 선생이 진행하는 불교연기사상 강좌를 연다. 강좌는 원시불교 경전인 아함경 속에 있는 12 연기법 등 기초교리를 중심으로 진행된다.(053)753-8883

6월 30일 (일)

■경기불교문화원 '불교유적 답사' = 공주 마곡사, 청양의 장곡사와 보물 제18호 정선리 구층석탑을 찾아서. 물과 산의 형세가 태극형이라 해서 온갖 전란을 피할 수 있었다는 십승지지(十勝之地)의 하나로 꼽히는 마곡사 등을 찾아가는 성지순례. 불교문화재 전문포교사 권중서 씨가 명쾌한 안내를 해준다. 출발은 오전 7시 30분 수원 종로 매향다리 앞. 참가비는 1만원 (031)251-1083

7월 1일 (월)

■불교사회문화원 '꽃꽂이 강좌' = 불교 꽃꽂이 모임인 '연화플라워' 회장 정명스님의 지도로 매주 월요일 오후 2~4시에 진행된다. 육법 꽃공양, 영단 장엄, 위패 장엄, 부처님 오신날과 성도일, 10재일의 관불단 꽃꽂이 등과 함께 실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생활 꽃꽂이도 배울 수 있다. 수시 접수.(02)736-6940.

7월 3일 (수)



◇골굴사선무도단의 시범모습.

■신라문화원 '전통명상음악과 선무예' = 신라문화원은 오후 3시 경주 노서동 고분군에서 '전통명상음악과 선무예' 행사를 마련했다. 이 행사의 참가자들은 경주 남산 탑골 마애조상군, 감실불상, 황룡사터 등을 둘러보고 골굴사 선무회단이 선무도시범, 동국대 윤소희 교수의 가야금 시연 등을 관람할 수 있다. 참가비는 무료다.(054)774-1950

■정토회 '깨달음의 장' = '자연과 더불어, 이웃과 더불어, 겨레와 더불어, 삶의 매 순간마다 항시 깨어 있는 그를 우리는 깨달은 사람이라 부른다.' 정토회가 문경 정토수련원에서 낮 12시부터 4박 5일 동안 진행되는 자기 성찰 프로그램으로 불자들을 초대한다. 참가비 20만원.(054)571-6031

■영주 장애인종합복지관 '손으로 여는 세상' = 불교 설화, 불교 교리 등을 수화로 배워보면 어떨까? 영주 장애인 복지관과 자원봉사단체인 소리나눔회는 3일 오후 1시 50분 복지관 2층 강당에서 수화교실을 진행한다. 수강료는 월 1만원. 수·금 2회 3개월 과정.(054)633-6415

신도들 어려움 '척척' …해결사 별명

우리 절 우리 신도

서울 여래사 김범열 거사회 회장



◇아미타 부처님 점안법회와 여래불교대학 현판식을 앞두고 김범열 거사(가운데)가 동갑내기 동네 친구이자 도반인 김철한(오른쪽)·이광우 거사와 행사일정에 대해 대화를 나누고 있다.

"마음에 절 지어보라" 말 듣고 불교와 인연
'돈키호테식 포교' …집 데려와 법회 권유도

"글쎄요, 다른 일이 있어서 올 수 있을지…."

"오셔야지, 무슨 말씀입니까. 안 오시면 앞으로 얼굴 안 볼 겁니다."

17일 오후 서울 성북동 여래사. 업무 차 여래사에 왔던 동사무소 직원 두 명이 이곳 거사회 회장인 김범열 거사(48, 법명 무경)의 협박(?)에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인다. 23일 오전에 봉행되는 여래불교대학 현판식 및 천년(千年)된 나무로 조성했다는 불단과 아미타 부처님 점안 법회에 꼭 참석해 달라는 것이었다. 함께 있던 다른 신도들은 이 모습을 보며 "역시 해결사다워!"라며 한바탕 웃음을 터뜨린다.

여래사에서 김범열 거사가 차지하는 비중은 가히 절대적이다. 불단을 꾸미는 일에서부터 사찰 주변 환경미화까지 모든 대소사는 어김없이 김 거사의 손을 거친다. 특히 신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김 거사의 위력(?)은 유감없이 발휘된다.

한 신도의 집이 경매로 넘어가기 됐을 때 김 거사가 나서서 깨끗이 허결해 주었고, 또 실직한 후배 신도에게 직장을 얻어주었는가 하면, 사업이 기울면서 집까지 잃게 된 같은 동네 사람에게 집을 마련해 주기도 했다. 이번에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는 천년된 나무 불단도 김 거사가 전국 각지를 돌며 수소문한 끝에 밀양에서 구한 것이다. 주유소와 중고차 매매업을 하는 김 거사는 유명 연예인이나 정치인은 아니지만 여래사는 물론 이 지역 최고의 '스타'다.

이런 사실을 잘 알기에 신도들은 무슨 일만 있으면 김 거사를 찾는다.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김 거사가 나서면 해결되지 않는 일이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래사 주지 동휘스님과 신도들은 그런 김 거사를 '호법신장' 또는 '해결사'라고 부른다.

김 거사가 불교와 인연을 맺은 것은 2년 전 친구인 김철한 거사(48)의 권유에 따라 여래사에 와서 "절에 오지 않아도 좋으니, 마음에 절을 지어보라"는 주지 스님의 말을 듣고 나서부터다.

그 뒤로 김 거사는 매주 토요일 철야정진법회는 물론 사찰에서 하는 모든 법회와 행사에 거의 빠지지 않고 참석했다. 바로 이틀 전에도 철야정진법회에서 1천배 기도를 했다.

김 거사는 근래 들어 사찰 출입이 부쩍 잦아졌다. 하루에도 두 세 번씩 오는 경우도 많은데, 이 때마다 낯모르는 사람과 함께 와서는 "앞으로 여래사 신도가 될 분"이라며 소개하곤 한다. 문을 연지 3년도 안된 여래사가 신도 1천여명의 사찰로 자리 잡게 되기까지는 김 거사의 '돈키호테식 포교'가 큰 몫을 했다.

"사람들을 만나면 우리 절 신도로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에 바로 여래사로 데리고 오죠. 어떤 때는 집으로 데리고 와서 절에 나오라고 권하기도 합니다. 정말 돈키호테 같아요." 여래사 합창단 반주자인 육자혜 보살(42)은 그런 김 거사의 터프함이 매력이라며 웃는다.

사람들을 집에 너무 많이 데려오는 탓에 김 거사 아내 정필례보살(47, 법명 여대현)이 달가워하지 않을 법도 하지만 오히려 정반대다. 어떤 때는 김 거사보다 정 보살의 고집스런 권유에 여래사를 나오는 사람들도 있다. 정 보살 역시 신도회 부회장으로 여래사에서 없어서는 안될 핵심인물이다.

김 거사는 지난해 12월부터 스님과 함께 전법도량을 마련하겠다는 원을 세우고 1천일 기도를 해오고 있다.

"주지스님께서는 늘 '많은 사람들이 부처님 법으로 인생을 새롭게 디자인할 수 있는 그런 도량을 가꾸자'고 하십니다. 더 큰 도량에서, 보다 많은 사람들이 부처님 법을 만날 수 있다면 그것 이상 기쁜 일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한명우 기자

추천의 말

동휘스님 서울 여래사 주지



아마 전국 어느 사찰엘 가더라도 김범열 거사와 같은 신도를 만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자기 일에 충실하면서도 사찰과 신도들 일을 그렇게 열심히 거들고 나설 수 있는 것은 지극한 신심이 없고서는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김 거사는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 전혀 내색을 하지 않습니다. 마을의 어려운 학생들에게 남모르게 장학금을 주고, 또 봉사활동에도 열심히 참여해 왔다는 사실을 얼마 전에야 알았을 정도입니다. 요즘에는 여래불교대학에서 기초교리 공부도 열심히 하면서 더욱더 왕성한 포교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절 신도들은 대부분 불교에 입문한 지 1~2년 밖에 되지 않은 초심자들이지만 김 거사와 같이 열심히 신행을 하는 신도들이 많습니다. 이런 신도들과 함께 부처님 법을 전할 수 있다는 사실에 그저 감사할 따름입니다.

제 5회 전국강원연합 불교학술대회

- 강원 교육의 현황과 불교의 시대적 역할 -

귀의삼보하옵고, 전국강원연합회에서는 변화하는
현대 사회속에서 바람직한 승가교육의 방향을 진지하게
검토하고 모색하는 노력을 지속해 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강원 교육의 현황과
불교의 시대적 역할」이라는 주제로
'제 5회 전강련 불교학술대회'를 개최합니다.

▷ 일 시 : 2002년 7월 12일(금) · 13일(토)
▷ 장 소 : 중앙승가대학교 대강당 · 지혜관
▷ 주 최 : 전국강원연합
▷ 후 원 :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 교육원,
강원교직자협의회, 중앙승가대학교,
해인사강원총동문회, 현대불교,
불교텔레비전 btn, 불교방송, 불교신문

- 7월 12일(금) -

▣ 제 1부 개회식 (오후 1:00 ~ 1:30)
● 삼귀의 인사말
● 격려사 : 무비스님(교육원장)
● 축 사 : 법장스님(전강련 상임고문, 수덕사주지)
지오스님(강원교직자협의회장, 해인사 강주)

▣ 제 2부 공동주제발표 (오후 1:30 ~ 3:00)
● 제1주제 「강원교육의 교학과 수행의 고찰」
- 혜국스님(남국선원 선원장)
● 제2주제 「한국불교의 바람직한 사회적 역할」
- 종범스님(중앙승가대학교 총장)
● 제3주제 「한국불교 포교의 현장」
- 지광스님(능인선원 이사장)
● 기념촬영(오후 3:00)

▣ 제 3부 분과별 주제발표(오후 3:30 ~ 6:00)
● 제1분과 : 인도철학, 인도대승 이전 불교
- 임승택교수(동국대강사), 이중표교수(전남대철학과)
- 희찬스님(쌍계사 사집사), 일창스님(범어사 사교과)
- 원우스님(해인사 사교과), 심근스님(동학사 대교과)
● 제 2분과 : 중관 · 기신 · 유식
- 김성철교수(동국대 불교학과) 은정희교수(서울교대)
- 이평래교수(충남대 철학과), 혜현스님(삼선강원 사교과)
- 성종스님(백양사 사집과), 호선스님(동화사 사집과)
● 제 3분과 : 응용불교 · 선심리 · 비교불교
- 조현춘교수(경북대심리학과) 이혜숙교수(동국대 불교학과)
- 종우스님(운문사 사교과), 혜각스님(해인사 사교과)
- 선현스님(법주사 치문과)
● 제 4분과 : 대승불교, 법화천태 · 밀교
- 노권용교수(원광대) 이병욱교수(고려대강사)
- 법광스님(해인사 사집과), 태원스님(봉녕사 사교과)
- 명우스님(동학사 사교과)

▣ 저녁공양 (오후 6:00 ~ 7:00) ▣ 다 과 회 (오후 7:00)

- 7월 13일(토) -

▣ 학술대회 종회 (오전 8:00) ▣ 폐회식

전 국 강 원 연 합

불교학술대회 조직위원회 055)931-3290, 931-1016 홈페이지 http ://www.insca.or.kr

불교대학을 찾아서

③ 전북불교대학


◇전북불교대학은 이론 중심의 강의를 탈피해 실수를 병행, 학인들의 체험교육을 강조한다. 사진은 지난 3월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발우공양.

호남불교계 중흥 이끌어온 재가 명문교
동아리활동 의무화…이론중심교육 보완
통신반과정 개설, 타지역서 수강가능케

불교세의 절대 열세인 호남지역의 불교 중흥을 이끌어 온 전북불교대학(학장 강건기). 1988년 설립 이후 3백여명의 전법사와 2천여명의 졸업생을 배출, 호남 제일의 불교교양대학으로 자리매김했다.

전북불교대학 배출생들은 다방면에서 눈부신 활약을 펼치며 지역불교 활성화를 이끌었다. 전주를 비롯한 익산, 군산 등 지역으로 흩어져 전북도청과 전주시청, 전주경찰서, 전주전화국 직장내 불교모임등 전북지역 신행단체의 창립을 주도했다. 이는 재가불교와 직장불교를 활성화하는 단초가 되기도 했다. '인격을 불격으로 중생을 부처로' 라는 학훈 아래 전북지역 재가불자들과 재학생, 졸업 선배들이 일궈낸 결과다.

전북불교대학이 종단이나 사찰에 소속되지 않으면서도 호남불교를 상징하는 불교대학으로 성장한 것은 한탑스님(정토사, 지묵스님(송광사), 강건기(전북대), 정병조, 목정배(동국대) 교수, 고은 시인 등 화려한 교수진과 신 · 해 · 행 · 증을 강조한 교과과정 등 재가불자들의 내실있는 운영에서 비롯됐다. 사찰에서도 하기 힘든 교육사업을 뜻있는 재가불자들이 의기투합해 얻은 성과라는 것이 주위의 평가다. 전주 정혜사에서는 불교회관을 지어 전북불교대학에 우선적으로 학사를 제공할 정도.

전북불교대학은 특이한 재학생 구성비율을 보인다. 매년 불교를 믿는 입학생들은 절반 수준으로, 나머지는 타종교 또는 종교를 갖지 않은 학생들이다. 이들이 전북불교대학을 찾는 이유는 사찰에 적을 두지 않은 특성과 활발한 대외 봉사활동에서 얻은 높은 인지도 때문이다. 여성불자 보다도 거사불자들이 많은 점 또한 전북불교대학의 특징 중의 하나다. 최근에는 20~30대 수강생들이 증가하고 있어 고무적으로 받아들여진다.

불교의 대중화, 생활화를 위해 교과과정을 편성한 전북불교대학은 경전독송회, 자원봉사회, 문화재 답사회 등의 동아리 활동을 의무화해 이론 중심의 교과과정을 보완하고 있다. 이들 동아리는 재학생과 졸업생들의 만남의 장이면서 공동 신행의 장이기도 하다.

경전독송회의 경우 〈금강경〉〈천수경〉 등 각종 경전 독송을 기본으로, 매월 전주 군경묘지에서 영가의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법회를 개최하고 있다. 또 상을 당한 가정을 찾아 독경봉사도 펼치고 있어 찬사를 얻고 있다.

1998년 현재의 전주 삼천동 완산불교회관으로 학사를 이전한 전북불교대학은 전북지역 재가신행단체의 요람으로서의 면모를 과시하고 있다. 350평의 학사에 법당과 강의실, 시청각 교육실을 갖추고 법당과 강의실을 연결하는 첨단장비와 녹음시설을 보유, 현대적인 교육 여건을 갖췄다. 2000년부터는 통신반 과정을 개설해 타지역에서도 강의를 들을 수 있도록 했다.

강건기 학장은 "전북불교대학 졸업과 동시에 재적사찰을 갖고 가족이 함께 신행하는 교육을 실현해 왔다"며 "연수원과 지역 포교당을 개설하고 정규과정의 대학원 대학으로 키워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063)226-7878 전주=박봉영 기자

"불교가 삶의 밑거름"
경전독송회 류성근회장



"가르침이 너무나 마음에 와 닿았어요. 그래서 아내도 함께 등록했죠. 나중에는 아내가 더 좋아하더군요."

전북불교대학 동아리 경전독송회 류성근(54 · 사진) 회장은 불교대학에서 배운 불교가 삶의 밑거름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전주시 팔복동에서 '팔복금방'을 하는 류 회장은 바쁜 일과에도 불구하고 경전독송회의 봉사활동에 한차례도 빠지지 않고 몸으로 실천하는 보살행을 펼쳐 대학내 불자들의 모범이 되고 있다. 류 회장은 "어려운 모든 이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고 싶다"는 서원을 밝혔다.

연중캠페인 - 나눔의 손잡기 운동

'후원합시다'

열흘전 아들 가슴에 묻은 쪽방 할머니

"이젠 누굴 기대고 살지…"

심한 좌골신경통·왼쪽 눈수술 고통
생활비 아끼려 정보지 오려 휴지로


◇이순자 할머니가 열흘 전 세상을 떠난 아들의 사진을 말없이 들여다보고 있다.

열흘 전, 아들을 가슴에 묻었다. 화장터는 따라갔다. 하지만, 아들의 유골을 뿌리기로 했던 인천 월미도 앞바다까지는 차마 갈 수 없었다. 아들이 가는 마지막 길. 행여나 늙은 어미가 눈에 밟히기라도 할까봐.

긴 한숨 끝에 되돌아오는 아들 생각. 이순자 할머니(81)가 낡디 낡은 소형 냉장고에서 소주병을 꺼내들고는 힘겹게 말문을 열었다.

"숨 거두는 것도 보질 못했어. 온몸이 퉁퉁 부은 아들놈이 목에 가래가 걸려 숨조차 쉬지 못할 땐 어미의 맘이 오죽했겠어? 지켜 볼 수 없어 집에 잠깐 왔더니만, 며느리한테서 전화가 왔더군. 아들놈이 새벽2시에 떠났다고…. 좋은 병원에서 제대로 치료도 못해주고 보낸 가난이 원망스럽기만 해. 아들놈만 믿고 의지하며 살아왔는데…."

아들 김석배 씨의 임종을 못 지켰던 것이 '한'으로 맺혀버린 할머니. 6.25 전쟁 통에 유복자로 태어난 아들이기에 더더욱 마음이 사무친다. 홀로 국수장사며 행상을 해가며 억척스럽게 키웠던 아들. 4년 전 아들 김 씨가 방광암 진단받고 병원을 전전 했을 때에도 막연히 나을 거라고 믿었던 할머니였다. 그동안 식당 일하며 벌어놓은 돈을 죄다 아들 병원비로 쏟아 부었던 이 할머니. 지금은 채 두 평도 되지 않는 '쪽방'에서 살고 있다.

비좁은 방. 궁색 맞게 벽에 걸려 있는 밥상에서부터 발밑에 차이는 휴대용 가스렌지, 두 겹 세 겹 겹겹이 쌓아놓은 종이수납장과 그 위로 놓인 이불더미들. 어느 것 하나 제 때 제 때 꺼내 쓸 수 없을 정도다. 방안이 워낙 비좁다 보니, 얼마 되지 않는 세간살이에 짓눌려 이 할머니가 맘 놓고 발 뻗고 눕고 지낼 공간조차 없다.

요새 들어 이 할머니에게 30년 째 앓고 있는 좌골신경통이 다시 도졌다. 게다가 6년 전 백내장 수술을 했던 왼쪽 눈까지 말썽이다. 큰 맘 먹고 병원에 갔었지만, 빨리 수술을 해야 한다는 의사의 말만 듣고 마음만 심란해졌다.

끼니 때가 되면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방 앞에 걸터앉아 국을 끓여 먹는 할머니. 그나마 여름이나 되니까 방문이라고 열어 놓고 밥을 해먹지, 겨울에는 어림도 없다.

"지난 겨울에는 큰일 날 뻔 했었어. 방안에서 밥해먹다가 불에 타 죽는 줄 알았어. 가스렌지에서 가스가 나오는지도 모르고…, 이 담요 봐, 검게 그을렸지. 너무 놀라서 이걸로 덮어 버렸었거든."

이 할머니의 한달 생계비는 정부로부터 받는 26만원의 생활보호대상자 지원금이 전부다. 몇 해 전부터 생활비를 조금이라도 아낄 요량으로 생활정보지를 모아다 오려놓고 휴지로 쓰고 있지만, 매달 들어가는 악값과 전기세, 수도세 등 공과금 감당은 언제나 벅차다.

한낮의 복사열. 방안을 금새 찜통으로 만들어버리는 오후. 이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친척도 없고, 하나 남은 아들놈도 먼저 갔으니 누굴 기대고 산다지, 이제 나도 갈 때가 됐는데. 내가 죽으면 누가 장례나 치러 줄는지…."

주소 : 서울시 성북구 안암2가 139-15 10통2반
전화번호 : (02)921-3510
후원계좌 : 농협 026-02-096530(예금주 이순자)
김철우 기자

시인 김홍성의
네팔사는 이야기
〈2〉 보리수



연못가 보리수 버림받은 송아지 거처
부인네들 새벽치성…동물 먹을것 남겨

봄이 다 가도록 나목인 채 묵묵하던 하리가웅의 보리수들은 5월이 가까워서야 봄바람 속에 귀여운 새 잎사귀들을 내밀기 시작했습니다. 보리수 잎새는 미루나무 잎새처럼 생겼는데 미루나무 잎새보다 끝이 더 뾰족하고 깁니다. 건기에 들어선 네팔에서 보리수들이 살아남으려면 그 뾰족하고 긴 잎 끝에 밤이슬이라도 모아야 하나 봅니다. 동 틀 때 보면, 잎 끝마다 이슬방울이 매달려 있습니다.

하리가웅의 여러 보리수들은 허리나 어깨 위 또는 손가락 사이에 난초를 비롯한 여러 더부살이 식물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보리수 잎 끝에 매달린 이슬방울은 그 더부살이들의 목을 추겨주기도 하나 봅니다.

하리가웅 연못가 보리수 밑은 버림받은 송아지들의 거처이기도 합니다. 네팔에서는 소를 잡는 게 금지되어 있지만 소를 내쫓는 것마저 금지되어 있지는 않나 봅니다.

버림받은 송아지들은 쓰레기 하치장에서 쓰레기를 뒤져 먹고삽니다. 10년 전만 해도 카트만두에는 쓰레기 하치장 같은 게 없었습니다. 아직 플라스틱이 대중화되기 전인 10년 전에는 버려질 쓰레기라는 건 애당초 없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플라스틱 봉지에 꽁꽁 싸매서 버려지는 것들이 그 때까지는 비료로 쓰였고, 사료가 되었던 것입니다.

네, 하리가웅의 버림받은 수송아지들은 쓰레기 하치장에 쌓이는 플라스틱 봉지를 터뜨려서 그 속에서 나오는 콩 껍질이나 밥알이나 무 꽁다리 걸 먹고살면서 밤이 되면 보리수 밑에서 모여 잡니다. 그리고 아침이 되기 무섭게 다시 쓰레기 하치장으로 달려갑니다.

어느 날 오후에는 그 송아지들이 우리 집이 있는 좁은 골목 안으로 들어왔더군요. 송아지들은 골목 담 밑에서 자라는 풀을 뜯으러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골목에 사는 아주머니 한 분이 대문을 나서다가 송아지들을 보고 쯧쯧 혀를 차더니 집으로 다시 들어가서 더히(요구르트의 일종)를 가져다 그 놈들에게 먹이더군요.

더히를 얻어먹는 수송아지들의 표정은 어쩌면 꼭 그렇게 어미 품에 돌아온 어린 애 같던지…

네팔에는 그 아주머니처럼 짐승을 자기 새끼처럼 여기는 아주머니들도 참 많답니다. 그리고 그 아주머니들의 대부분은 새벽마다 보리수에 치성을 드리는 아주머니들입니다. 아주머니들이 치성을 드릴 때 보리수 밑에 먹을 것을 놓는 이유도 그런 송아지나 까마귀나 개들을 위한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고불총림 백양사 참사람 하계수련회 안내

최고의 참선 수행도량인 백양사에서는 새롭게 신축한 수련관에서 다음과 같이 2002년도 참사람 하계수련회를 개최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동참바랍니다.

1. 불기 2546(2002)년도 하계 수련회 일정

차 수	수 련 기 간	참가인원		계
		여	남	
30	7. 25(목) ~ 7. 28(일) (3박 4일)	50	50	100
31	7. 31(수) ~ 8. 4(일) (4박 5일)	50	50	100
32	8. 8(목) ~ 8. 11(일) (3박 4일)	50	50	100
33	8. 14(수) ~ 8. 18(일) (4박 5일)	50	50	100

2. 참가자격 : 20세이상 ~ 60세미만 (정원관계로 신청자중 소정의 심사로 선발)
3. 접수기간 : 2002년 7월 17일(수) 오후 6시까지(미리 예약 접수)
4. 접수방법 : 서류전형, 전화예약 접수후 신청서류 작성(신청서는 홈페이지 참조)
5. 접 수 처 : 백양사 종무소 홈페이지(www.baekyangsa.net)
   전화 (061) 392-7502, 팩스 (061) 392-2081
6. 장 소 : 전남 장성군 북하면 약수리 26 참사람 수련관 (우 515-854)
7. 수련회비 : 7만원(4박 5일), 6만원(3박 4일)
8. 준 비 물 : 필기도구, 세면도구, 운동화 지참 (수련복 지급, 수련후 반납)

대한불교 조계종 **제18교구 본사 고불총림 백양사 주지 다정 합장**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제6교구 본사 마곡사
제22대 주지로 당선되신
진각스님께 축하의 말씀과 함께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불기 2546년 6월 10일

대한불교조계종 제6교구 본사 마 곡 사
신도회 회 장 김수경
신도회 부회장 유석근 박금자

목련회장 조인상 / 총무 김진화
좌선회장 박금자 / 총무 정선교
금강회장 배진희 / 부회장 이상현 / 부회장 양희상 / 총 무 김석원
합창단장 조정희 / 회장 김미희 / 총무 황은자
운불련회장 김창희 / 총무 윤석영
청년회장 김규석 / 총무 강윤태
수련회 간 사 정선희 외 신도일동 합장

박영재 교수의

첨단 과학과 불교 ③



그림 · 문병성

과학과 종교의 대립과 화해

17세기 뉴턴의 자연현상에 관한 법칙화 이후 18세기까지 대부분의 과학자들은 창조주 하나님은 믿었지만 현상세계와 인간 생활에 적극 개입하는 인격화된 하나님은 더 이상 믿지 않게 되었다. 그러나 뉴턴의 결정론적인 세계관(초기 조건을 알면 차후 운동의 상태를 완전히 기술할 수 있다는 견해)이 확립되고 19세기에 들어와 다윈의 진화 이론이 발표되면서 일부 과학자들은 기독교에 적대적이 되었다. 또 20세기에 접어들면서 불확정성 원리를 근간으로 하는 양자물리학과 DNA 분자 구조를 바탕으로 하는 유전자 이론이 확립되면서, 종교(기독교)와 과학의 상호작용은 다양한 형태로 전개되어 왔다.

새로운 과학적 발견들에 의해 여러 가지 전통적인 기독교식 사고에 의문이 제기되자 어떤 이들은 여전히 전통적인 교리를 옹호하는가 하면 전통적인 교리를 버리기도 했고, 또 다른 이들은 과학에 비추어 새롭게 해석하기도 했다. 21세기가 되면서 과학자, 신학자, 언론 매체 그리고 일반 대중 사이에 과학과 기독교의 관계에 대한 새로운 관심이 일어나게 되었다. 최근(2002년 1월 18일부터 22일까지)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국내외 종교학자와 과학자들이 참가한 가운데 개최된 '과학, 신학, 그리고 동양종교들'이란 주제의 학술회의에서 첨단과학과 종교가 대립과 갈등을 넘어 화해와 조화의 길을 모색하고자 발표한 내용들은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판단된다.

예를 들어 러셀 박사는 '성경의 창세기 설화는 이스라엘 민족이 바빌론 포로 시절 당시, 세계에서 가장 앞선 그곳의 첨단과학을 통해 신의 창조를 해석한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현재의 첨단과학을 통해 이 설화를 새롭게 해석하는 노력은 지금도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김승혜 수녀(서강대 종교학과 교수)는 '성경 창세기는 하나의 상징'이며, 중요한 것은 '신의 뜻과 사랑'이고, 종교는 '왜'를, 과학은 '어떻게'를 설명하는 등 참가자들은 회의 내내 과학과 종교의 화해와 상보성 등을 역설했다.

아울러 괄목할 만한 과학적인 발전을 통해 어느 면에서는 인간은 첨단 생명과학기술을 통해 인간을 신과 같은 창조자의 지위에 올려놓았지만, 거꾸로 자연의 질서를 심각하게 파괴할 수 있는 상황이 전개될 수도 있기에 과학자와 종교인이 함께 이 같은 문제에 진지하게 해결책을 찾아야 할 때라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이 회의를 통해 '자연과 인간의 관계를 중시하는 동양종교의 총체적인 사고방식'이 환경오염, 생명윤리 등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해 주면서 과학과 종교의 대화에 새로운 길을 열어줄 것이라 전망했다.

참고로 핵물리학을 전공한 이안 바버 교수는 2000년 그의 저서 〈과학이 종교를 만날 때〉(김영사 · 2000)에서, 과학과 종교를 다루는 다양한 방법을 분류하는 네 가지 이론 유형을 이용해 과학과 기독교, 창조와 관련된 대폭발, 양자론, 진화론과 창조론, 인간의 본질 및 하느님과 자연에 관한 주제를 날카롭게 분석하였다. 이는 종교 간의 대화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불교인들도 꼭 알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그 유형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환경 · 생명윤리문제 동양종교서 해결책"
종교인 · 과학자들 새로운 대화의 길 모색

첫 번째는 '갈등이론'으로 성서문자주의자(성서를 문자 그대로 믿는 사람)는 진화론이 종교적 신념과 맞지 않는다고 믿는 반면, 무신론적인 과학자들은 진화의 과학적 증거는 유신론과 공존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두 번째는 '독립이론'으로 종교의 교리나 과학적 주장은 인간의 삶에서 완전히 다른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서로 비교할 수 없는 두 가지 언어로 취급되나 과학과 종교의 두 가지 탐구는 이 세계에 대한 상호 보완적인 관점을 제공한다고 주장한다. 세 번째는 '대화이론'으로 과학 연구영역의 한계에 이르러 과학 자체가 답할 수 없는 극한 몰린 질문들이 제기될 때 비로소 종교와의 대화가 가능해질 수 있으며 아울러 특정한 과학 이론과 종교적 믿음 사이의 개념적인 유사성은 과학과 종교의 관계에 관한 보다 깊은 이해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주장한다. 네 번째는 '통합이론'으로 과학과 종교 간의 좀더 체계적이고 폭넓은 동반자 관계는 두 원리의 긴밀한 통합을 모색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볼 수 있다.

사실 과학은 자연현상에 대한 제한된 범위의 질문을 조심스럽게 던지기 때문에 연구실을 벗어나 윤리적인 측면 등 과학적 연구 이외의 일을 생각할 때 과학자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현명하다고 볼 수는 없으며 지혜로운 삶을 지속적으로 영위하기 위해 종교가 필요한 것이다. 필자의 견해로는 불교와 과학은 굳이 분류하자면 '독립이론'이나 '대화이론'의 유형 범주에서 기술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불교인들은 우선 이를 지지하는 타 종교인들과의 격의 없는 대화를 통해 자연스럽게 종교 간의 벽을 허물며, 훼불 사건 같은 갈등 없이 어려운 이웃과 함께 하는 삶을 이어 갈 수 있으리라 판단된다.

박영재/서강대 물리학과 교수
ypark@ccs.sogang.ac.kr

이렇게 들었다

당선자 10%가 전과 보유

6 · 13 지방선거

▧물을 건너는 길잡이 소가 길을 잘 인도하면 뒤따르는 많은 소들이 물에 빠지지 않고 물을 건너듯 나라의 임금이 바른 법을 행하면 모든 백성들이 편안하고 즐거우니라. <증일아함경>

▧나라의 중신이 직무를 태만히 하면서 사리만 생각하고 부지런히 뇌물을 챙기면 나라의 기강이 급속히 무너진다. 부정직한 공직자들은 백성의 복리를 훔치는 도둑일 뿐 아니라, 임금과 백성을 속여 나라를 불행하게 하는 원흉이다. <대살차니건자소설경>

부처님은 한 사회의 지도자에 대해 "마하삼마디는 여러 사람에게 뽑힌 사람이라는 뜻으로, 여러 사람을 위해 법을 맡은 사람을 말한다"라고 하셨다. 오늘날의 선거는 부처님이 말씀하신 대로 공익을 위해 일할 일꾼을 뽑는 자리일 것이다.

우리는 바로 6 · 13 지방선거에서 4년여에 걸쳐 국민들에게 봉사할 사람을 뽑았다. 하지만 한가지 반갑지 못한 소식이 국민들의 마음을 어둡게 했다. 6 · 13 지방선거를 치르면서 후보자들의 신상을 확인한 결과 전체 9,172명 가운데 12.1%에 달하는 1,114명이 금고형 이상의 전과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99년이래 재산, 소득, 종토세 납부실적이 전무한 사람도 774명(8.1%)에 달했다. 이외에도 시도지사 후보의 30%, 기초단체장 후보의 15.6%, 광역의원 후보의 12.1%, 기초의원 후보의 12.5%가 각종 사유로 병역면제를 받았다고 한다.

또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5일 밝힌 바에 따르면 지방선거 당선자 4,415명 중 10.7%인 471명이 전과기록을 가지고 있다고 집계했다. 각종 시민단체와 선관위 등이 '기피인물 1호'로 꼽았던 부패하거나 타락한 후보의 상당수가 당선된 셈이다.

부처님은 장아함경에서 지도자란 전답 등 재산 문제로 발생한 다툼과 분쟁을 판정하고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 그런데 사회 지도자가 먼저 법을 어겼다면 누가 주민을 보호하고 상벌을 공정히 할 수 있겠는가?



'임제록' 통한 선 공부 ⑮

모양없는 마음자리

본래 마음자리 들면 언제나 여여

도를 배우는 이들이여! 얻었으면 바로 쓸 뿐 또다시 이름에 집착하지는 않으니, 이것을 일러 '그윽한 뜻(玄旨)'이라고 한다. 내가 설하는 법은 천하의 사람들이 설하는 법과는 다르니, 예컨대 문수와 보현이 눈앞에 나타나서 각각 하나의 몸을 나투고 법을 묻는다고 할 경우, 그들이 "스님께 묻습니다"라고 말하자마자 나는 벌써 알아차려 버린다. 나는 편안히 앉아 있지만 도 배우는 이들이 찾아와 서로 만나볼 때면 나는 모조리 알아차려 버린다. 어찌하여 이러한가? 나의 견처(見處)는 달라서, 밖으로는 범부와 성인을 취하지 아니하고 안으로는 근본에도 머무르지 아니하며, 꿰뚫어 보아서 다시는 의심하거나 잘못됨이 없기 때문이다.

모든 것은 오직 마음이 만드는 것이다(一切唯心造). 만들어진 것은 고정된 것으로 남아 있지 않고 생주이멸의 무상(無常)한 변화를 겪는다. 마음은 생멸하는 인연법을 만들어내지만, 마음은 모두 마음이다.

마음은 모양이 없다. 모양이 없으므로 마음은 생기고 없어지거나 커지고 작아지거나 더럽고 깨끗하거나 할 수가 없다. 모양이 없기 때문에 마음을 공이라고 한다. 그러므로 5온 · 18계의 만법은 공이다. 〈반야심경〉에서 5온이 바로 공이며, 만법은 공의 모습(空相)이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다.

5온을 5온으로만 알고, 만법을 만법으로만 알고, 18계를 18계로만 알고 있는 것이 바로 범부의 견해이다. 그러므로 범부는 모양의 세계만을 보고 있다. 모양은 생기고 사라지는 무상한 변화를 겪는 생멸법이므로, 범부는 생멸법의 세계를 살아가면서 생노병사에 시달린다. 이처럼 범부가 생노병사에 시달리는 것은 전적으로 생멸하는 모양의 세계만을 알고 있을 뿐이기 때문이다.

모양의 세계만을 알고 있는 범부는 다가오는 인연에 반응하되, 인연에 끌려다니기만 한다. 그리하여 인연에 따라서 좋아하고 싫어하고 기뻐하고 슬퍼하고 만족하고 불만족하고 흐뭇해하고 분노한다. 이런 자들은 불법은 알지 못하고 부처의 모양을 숭배하며, 보리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면서 나름대로 상상하여 추구하고, 번뇌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면서 복잡하고 불쾌한 생각과 느낌을 무작정 끊어 없애려고 한다.

불법을 알고 보면 모든 모양은 모양 없는 것 하나에로 귀결된다. 모양 있는 것은 곧 모양 없는 것이다(五蘊皆空). 모든 모양 있는 것들이 곧 모양 없는 공일 뿐임을 통달한다면, 어떤 인연이 다가오고 어떤 경계에 마주하더라도 늘 변함없는 자리에서 흔들림 없이 쉬고 있을 뿐이다. 모양 있는 경계는 서로가 달라서 모두가 분별되고 취사선택의 과정을 거쳐야 하지만, 모양 없는 공인 마음은 다를 수가 없어서 분별과 취사선택이 없다. 분별과 취사선택이 없는 모양 없는 마음자리에 확고히 머물러 쉬면, 경계를 마주하여 아무리 눈 · 귀 · 코 · 혀 · 몸 · 의식을 사용하더라도 늘 여여부동(如如不動)하다.

김태완 · 부산대 강사, 철학

■ 김태완 박사 선어록 강좌 안내
부산대학교:매주 토요일 오후(2~5시), 수원경기불교문화원:매달 1,3주 일요일 오후(1~4시) 문의 011-9520-0054(이정희)

영어로 배우는 불교용어

삭발 Shaving one's hair

When one becomes a monastic, one severs all worldly desires and enters onto the road to seeking the truth.

수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세속적인 욕망을 끊고 진리를 찾기 위한 길로 들어선다.

To help eradicate the three poisons(craving, anger ignorance) from the mind, practitioners shave their head.

초심자는 마음의 삼독(탐, 진, 치)을 끊는 것을 돕기 위해 그들의 머리카락을 자른다.

In Buddhism hair is called 'weeds of ignorance'. Ignorance means the world of darkness, namely, the world that is not exposed to the bright truth. So by cutting the weeds of ignorance they rid themselves of illusions and go forth on the road to enlightenment.

불가에서 머리카락은 '무명초'라고 불린다. 무명이란 세상의 어둠-즉 밝은 진리가 나타나지 않는 세상-을 의미한다. 때문에 머리카락을 자름으로써 자신을 망상에서 구하고 깨달음의 길을 향해 정진하게 된다.

"코골이, 당뇨, 암, 특효"


달마사 백련스님

(코골이 연구 10년)

KBS 2002. 3. 13 토요아침 방영
MBC 1999. 8. 7 고향은 지금

경양위 제365호 특허 13629출원

오랜 세월 산사에서 토굴을 짓고 살면서
동양철학, 육학+음양오행+신통력+선도특수법+천지 민간 약초로 수년을 연구하신 백련스님
공기오염 자동차 매연 오염된 물 농약에 찌든 채소과일등으로 현대병이 많은 이런 분께 드리겠습니다.

1. 오랜 세월 코골이와, 비염, 축농증 고생하신 분
2. 간 복수찬데, 각종 암 생사에 허덕이시는 분
3. 만성변비, 약 드실 때만 괜찮고 재발 하신 분
4. 당뇨병으로 수년간 고생하신 분
5. 류마치스 관절염, 신경통 산후병 고생하신 분
6. 위장병 고민하신 분

이 제품은 깊은 산중에 자생하는 약초로 되어 있습니다.
일주일이면 모든 제품에 효능을 직접 느끼십니다.
보내주신 후원금은 달마사 불사에 쓰여집니다.

◉ 단위농협 813015-56-022193 정광채

TEL. 055-385-0065~6
H.P. 011-570-3357

간(肝)이 간 염 지방간 간경화 ...

건강해야 장수할 수 있습니다.

지리산자락 신비의
참다슬기 농축액

토종 웅담과 비길만한 자연산 참 다슬기로 삶의 활력을 찾으세요.
지리산 자락 청정 지역에서 서식하는 자연산 참다슬기만 가지고 전통 재래식(가마솥) 방법으로 달인 참다슬기 농축액은 상쾌한 하루를 열어 줍니다.



◎ 다슬기 농축액 : 지리산 자락 계곡 맑은 물에서 채취한 참 다슬기와 구슬알 다슬기를 죽은 것과 빈 껍데기를 골라 내어 깨끗이 씻고 해금 시킨다. 다음 다슬기 10kg을 분쇄하여 가마솥에 넣고 전통비법으로 다슬기 속살이 녹을때까지 48시간을 다린다. 여기 마늘, 생강, 대추를 넣고 24시간을 더 달입니다. 농축액은 60포 단위로 포장합니다.

◎ 다슬기 기름 : 다슬기 15Kg을 항아리에 넣고 왕겨 9가마니를 덮은 뒤 왕겨에 불을 붙여 그 열로 다슬기가 땅속에 묻어둔 빈 항아리에 녹아 흘러내리게 합니다. 다슬기 기름을 만드는데 왕겨가 다 타들어 가기까지 꼬박 8~9이 걸립니다. 한달분은 1.8리터입니다.

「농축액을 개발하여 KBS TV "6시 내고향"에 방영된 이래로 "생방송 좋은아침" MBC TV "고향은 지금" 조선일보, 중앙일보에 소개 됨」

자료신청 : 055) 963-9583 · 상담문의 : 055) 355-5626
산마을 토종 (민속농원)

한정섭법사와 함께하는
보현정사 불교 경전 강좌

보현정사에서는 한정섭 법사님을 모시고 매주 일요일 경전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불교를 처음 찾는 분이나, 경전공부에 관심 있으신 불자님의 많은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 강의개요

1.강의일시	매주 일요일 오후 2시
2.교육장소	보현정사
3.개강일시 및 교 과 목	2002년 6월 2일 천 수 경 6월 9일 천 수 경 6월 16일 천 수 경 6월 23일 천 수 경 6월 30일 반야심경 7월 7일 반야심경 7월 7일 금 강 경
5.지도법사	한정섭 법사
8.지원자격	제한없음

매주 3시(토) 중국어 교실 강좌 (회비 월 5만원)

※ 문의 전화번호 : 02)583-1080, 02)521-1415
H · P : 016)321-1080

보현정사 포교원

주 소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576-7호 이화빌딩 5F

음양체형관리 자원봉사자 모집

서울 서초구 소재 보현정사(주지 보현스님)에서는 현대의 선 · 후천성 기형, 비만, 체형의 변화에서오는 병상증들이 음양체형관리에 의하여 건강을 되찾고 체력, 활력이 개선되는 것을 체험하고 자기 자신과 가족의 건강은 물론 양로원, 장애인, 고아원 등의 소외된 국민의 복지 향상에 기여하여 스님의 수행에 도움을 드리기 위한 자원봉사자를 모집합니다.
음양체형관리에 궁금증이 있으신 분들은 (주)음양피부체형연구회 홈페이지 www.skin-reform co.kr(com)/음양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교 육 안 내

▶ 모집기간 : 수시모집
▶ 교육기간 : 매주 수요일
오전반 AM 10 ~ PM 12시 30분
오후반 AM 7 ~ PM 9시 30분
▶ 교 육 비 : 보현정사 추천에 의하여 무료교육
▶ 교육장소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579-4
진솔빌딩 B1
(주)음양피부체형연구회
▶ 준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1통,
직장재직증명서1통 (전업주부아닌 경우)
▶ 상담 및 문의처

보현정사 포교원
주 소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576-7호 이화빌딩 5F
전화번호 : 02)583-1080, 02)521-1415
H · P : 016)321-1080

※ 현 피부미용이나 비만 체형관리실 운영하는 분은 제외

목어 소탐대실



마음이 심란하면 불자가 아니더라도 절을 찾는다. 절이 위치해 있는 곳이 대개 산중이거나 도심이라도 조용한 환경에 위치해 있기 때문이다.

마음이 담담해 지는 것이 어찌 절의 위치만의 영향이랴. 부처님의 말씀이 있고 이를 전해 주는 스님들의 노고가 있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몸이나 마음이 불편하면 절에 가보기를 권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만큼 절은 종교적인 도량으로서의 의미만 지니는 곳이 아니라 우리들의 마음을 평정하게 해 주는 복합적인 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신심과는 무관하게 절을 관광 삼아 찾는 이들도 없지 않다. 하지만 볼거리만을 찾아 절을 가는 사람은 드물 것이다. 찾는 사람들의 마음 밑바탕에 있는 무의식적인 동기가 절을 통해 평정한 마음을 얻고자 하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공양시간에 맞추어 절을 찾으면 누구에게나 공양을 들고 가라고 한다.

사소한 지적일지 모르겠으나 좀 달라졌으면 하는 것이 있다. 절 입구나 절 경내에는 대부분 커피 자판기가 있다. 커피에 익숙해져 있는 방문객들은 자판기를 많이 이용한다.

헌데 자판기 커피 값을 보면 대개 400~500원 정도다. 이런 생각을 해 본다. 커피 자판기가 기왕 절 경내에 서 있어야 한다면 그 값을 100원 정도로 하는 것이 어떨까 하고.

절의 경제가 대부분 신자들의 보시로 이루어지는 것을 생각하면 멀리 절을 찾아온 손님이나 방문객들을 위해 차를 따로 한잔 대접하지는 못할지언정 셀프로 자판기 커피를 뽑아 먹기에는 400~500원의 값은 시중의 값과 동일하거나 비싸다. 100원 동전 하나로 커피를 마실 수 있어야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그냥 드려도 되겠지만 자판기 속성상 동전을 넣어야 나오기 때문에 100원짜리 하나가 적당할 것 같다. 원래 사찰에 즐비한 자판기는 산사의 경관과 어울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값이 400~500원이면 더욱 어울리지 않는다.

시원한 물 한 모금 마시고 가듯이 입맛 따라 커피 한잔 가볍게 뽑아 먹고 절을 나설 수 있다면 그 절은 이미 중생의 마음을 보듬는 절이다. 작은 이익을 얻으려다 큰 것을 잃는 '소탐대실' 이 아닐까 해서 하는 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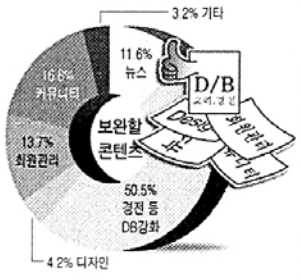
이근후(불교상담개발원장)

불자의 생각

불교사이트

현재 운영중인 불교관련 사이트들의 수준은 어느 정도일까?

붓다뉴스 네티즌 설문에 동참한 95명의 불자들 가운데 42명(47.7%)



"경전등 DB강화 필요" 50.5%

은 불교관련 사이트의 수준이 높은 편이다, 23명(26.2%)이 보통이다, 19명(21.6%)이 낮은 편이다, 3명(3.4%)이 매우 낮다, 1명(1.1%)이 매우 높다고 응답했다.

콘텐츠 가운데 가장 보강해야할 분야를 묻는 질문에는 48명(50.5%)이 D/B(교리, 경전 등), 16명(16.8%)이 커뮤니티, 13명(13.7%)이 회원관리, 11명(11.6%)이 뉴스, 4명(4.2%)이 디자인, 3명(3.2%)이 기타 라고 답변했다. 임연태 기자

불자 세상보기



구승회
동국대 교수
윤리학

'축제의 여인' 은 떠나고…

월드컵 때문에 온 나라가 한달째 '적 · 화 · 야 · 욕(赤化野慾)' 으로 붐타고 있다. 18일 이탈리아와의 경기는 적화야욕을 달성하는 글자 그대로 대회전이었다. 태극전사들은 목숨건 전투를 벌였고, 드디어 승리했다. 전 세계 8000만 한국인은 하룻밤 기꺼이 '빨갱이(Be the Reds)' 가 되었다. 전쟁이 강자의 이성이 약자의 이성을 억압하는 인정투쟁이라면, 축구는 전쟁의 전형이다. 그날의 승전은 억압과 질곡의 현대사를 살아온 한국인이 세계 만방에 민족자존을 인정받는 순간이었으므로, 조국은 그날의 승리에 목이 멨다.

전혀 빨갱이가 되고 싶지 않은 수십만의 사람들이 가슴마다 '빨갱이가 되세요(Be the Reds)' 라는 문구가 적힌 붉은 티셔츠를 입고 제2의 애국가 '오~! 필승 코리아' 를 외쳤다. '붉은 악마 응원단이 되라(Be a Red Devil)' 는 의미겠지만, 'Be the Reds' 는 러시아 혁명기에 적군이 백군을 선무공작(宣撫工作)할 때 사용하던 용어로, 그 후로 공산주의 이데올로기를 상징하는 결함이 있는 색깔이 됐다.

백주(白晝)에 공공연하게 "빨갱이가 되라" 고 선동하는 이들. 박정희, 전두환 시절 같았으면 모두 반공법, 보안법으로 체포되어 감옥으로 갔어야 할 우리는 지금 이 순간 '착하고, 무해한(harmless) 빨갱이' 로 칭송받고 있다. 베를린 봉쇄 당시 49일간의 베를린 공수작전, 수천 수만의 공산주의 이론가들과 그들의 저작들, 쿠바 봉쇄, 그리고 휴전선…. 이 모든 것은 이데올로기의 철옹성이 얼마나 견고한가 보여주는 사례다. 하지만 지난 며칠동안 광화문에 모인 '무해한 빨갱이들' 을 보면서 그것이 얼마나 허망한 가를 확인했다.

월드컵은 세계인의 스포츠 축제다. 축제가 즐거운 것은 그것이 계층, 성별, 이데올로기를 초월하기 때문에, 온갖 금기, 억압, 감시로부터 해방되는 '한정적 무규범' 의 상태를 허용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래서 유럽 사람들은 축제를 '제5의 계절' 이라 부른다. 이런 비실재적인 계절에 만나는 '순수 환희' 를 '애국심' 과 연결지으려는 아주 불순한 시도가 있다. 축구를 통해 국민통합을 이룩하고, 국가발전의 전기로 삼자는 주장이 그것이다. 만약 그것이 가능하다면, 차라리 '고스톱을 통한 국가발전' 을 꾀하는 것이 더 역동적일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때와 장소,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함께 즐기는 국민스포츠이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을 외치는 서포터즈는 80여년 전 '대한독립 만세' 를 외치던 사람들, 15년 전 시청광장에 모여 '독재타도' 를 외치던 사람들의 절박하고 처절한 외침과는 전혀 다르다. 이는 국민의 단결된 힘도 아니고, 성숙된 문화시민 의식도 아니며, 축구를 통한 공동체 의식의 고양은 더욱 아니다. 일상의 억압에 주눅 들고, 축제와 놀이에 굶주린 도회의 소시민들의 '집단적 패닉(공황)' 일 뿐이라고 한다면 지나친 표현일까.

월드컵이 끝난 뒤 서포터즈들은 아무도 응원하지 않는 조기축구 모임에 수백의 응원단을 보내고, 십 수명의 학부모들만 응원하는 초등학교 축구선수권 대회장에 모일까? 섣부른 예단인지는 몰라도 결코 그렇지 않을 것이다. 월드컵 기간 중에 치러진 6 · 13 지방선거에는 유권자의 절반도 참여하지 않았으며, 앞으로도 여전히 우리 집 관리비와 직접 관련이 있는 아파트 입주자 대표 및 구의회 의원 선출을 위한 투표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다. 진짜 애국심은 축구에 열광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주민 자치에 적극 나서는 것이다.

'축제의 여인' 은 떠나고, 부패한 FIFA가 장삿속으로 벌이는 잔치판에서 놀아났음을 확인하면 허탈감은 더욱 클 것이고, 일상의 과업은 더 야멸차고 냉혹하게 다가올 것이다. 이제 우리는 이런 우울한 '일상' 을 '현실' 로 받아들일 준비를 해야 한다.

본란(本欄)의 내용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한국축구 '쾌거' …절마당도 환호

코리아팀이 월드컵 8강에 오르던 날, 절마당도 열광의 도가니에 빠져 들었다. 18일 세계 최강 이탈리아에 기적 같은 승리를 낚는 순간 스님과 불자들은 일제히 환호성을 지르며 감격을 나눴다. 불자 선수들은 그라운드에서 '불심투혼' 을 발휘했고, 그 가족들은 승리의 영광을 부처님 가피로 돌렸다.

순간순간 탄식 · 환호 반복

○…폴란드전과 포르투갈전에 이어 이탈리아전까지도 대웅전 앞마당에 설치된 대형스크린을 통해 조계사에서 경기를 시청하던 스님과 신도 500여명은 한국팀의 골든골이 터지는 순간 서로 얼싸안으며 감격의 눈물을 쏟아냈다.

강원과 선방, 종무소 등에서 경기를 지켜보던 양산 통도사 등 전국 사찰의 스님들과 김포학사 본관 4층 대강당에 설치된 대형스크린을 통해 경기를 지켜보던 중앙승가대 200여 학인들도 경기 순간순간 마다 탄식과 환호를 반복하며 한국팀을 응원했다.

진각종에서는 서울 성북구 총인원 잔디마당에 대형 빔 프로젝트를 설치하고 효암 통리원장을 비롯, 종무원과 지역주민 100여명이 함께 한국팀을 응원했다.

불자선수들 눈부신 활약

○…한국팀이 강호들과의 경기에서 차례로 승리를 거두며 선전한 데에는 설기현, 박지성, 홍명보, 김남일, 최진철 등 불자선수들의 활약이 눈부셨다.

한국의 히바우두 설기현(23)은 이탈리아와의 16강전 경기종료 직전, 황금같은 동점골로 8강행의 주역이 됐고, '만능 멀티플레이어' 박지성(21)은 14일 환상적인 논스톱 결승골을 터트려 포르투갈을 일찌감치 리스본으로 돌려보냈다. 10일 달구벌에서 열린 대 미국전에서 잡초의 근성을 보인 이을용(28)은 단 한번의 절묘한 어시시트로 벼랑 끝의 대표팀을 살려냈다. 대표팀의 정신적 지주 홍명보(34)와 김남일(26), 최진철(32)은 함께 환상의 철벽 수비라인을 구축해 세계 최강팀의 막강 화력을 잠재웠다.

이들 불자선수들은 성실한 플레이 만큼이나 신행생활도 열심히 하고 있어 불자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설기현선수(앞)가 이탈리아와의 16강전에서 동점골을 터트린후 기뻐하고있다.



◇박지성 선수의 어머니 장명자 씨가 화성 용주사에서 아들의 선전을 기원하며 헌향하고 있다.

색으로 본 월드컵

붉은색 삿된 기운 물리쳐 흰색은 '善' · '최선' 을 상징

예부터 우리나라에서 붉은 색은 특별한 사람, 특별한 상황에서 사용돼 왔다. 세종대왕의 초상화를 보면 붉은 옷에 금색 수를 놓은 데서 알 수 있다. 녹의홍상(綠衣紅裳)으로 상징된 우리나라 신부 옷도 마찬가지다. 붉은색은 삿된 기운을 물리치는 의미도 있다. 동짓날 붉은 팥죽을 쑤어 먹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다.

흰색은 평화를 사랑하는 우리 민족의 전통적인 복색이었다. 또한 흰색은 전통적으로 선(善)을 상징하며, '최선' 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탈리아 전에서의 승리는 붉은 악마들의 열띤 응원과 흰색 유니폼을 입은 선수들의 투지가 빚어낸 당연한(?) 결과인 셈이다.

조계종 총무원장 정대스님은 이탈리아전 승리 다음날인 19일 "국민의 염원이 하나가 돼 좋은 결과를 만들었다. 온 국민이 열심히 응원하는 모습이 보기에 흐뭇했다" 고 말했다고 종정예경실장 원철스님이 전했다.

정대스님 축하메시지

○…조계종 종정 법전스님은 이탈리아전 승리 다음날인 19일 "국민의 염원이 하나가 돼 좋은 결과를 만들었다. 온 국민이 열심히 응원하는 모습이 보기에 흐뭇했다" 고 말했다고 종정예경실장 원철스님이 전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정대스님은 20일 설기현, 김남일, 이을용, 최진철 등 불자 선수들에게 이탈리아전 승리를 축하하는 난을 보냈다. 이에앞서 15일에는 16강 진출을 이뤄낸 대표팀에 격려의 축하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갓바위서 선전기도
설기현 어머니 박지성 어머니
용주사서 승리기원

설기현 선수의 어머니 김영자씨는 이탈리아전이 끝난 뒤 눈물을 흘리며 합장을 했다. 대구 갓바위에서 기도를 올리며 한국의 8강 진출과 아들의 선전을 기원했던 김씨는 "기현이가 국민들의 오랜 염원을 푸는데 한 몫을 한 것이 대견스럽기만 하다" 고 말했다.

박지성 선수의 어머니 장명자씨(43)는 이탈리아전을 앞두고 화성 용주사를 찾아 한국팀의 승리를 기원했다. 이탈리아전이 있기 전까지 장씨와 함께 아들의 선전을 기원하기 위해 부산 범어사와 대구 동화사에서 철야기도를 올렸던 아버지 박성종씨는 "지성이가 부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자랑스럽다" 며 기뻐했다.

만삭의 몸으로 매일 인천 연화사에서 기도를 드리고 있는 이을용 선수의 아내 이숙씨는 "부처님과 국민의 염원 덕분에 좋은 결과를 얻게 됐다" 고 말했다. .

부모님과 할머니 두 형 등 여섯 식구가 모두 불자인 김남일 선수 집은 언제나 떳떳하게 '불자 가정' 임을 밝히며, 한국팀과 아들의 선전을 부처님 공덕으로 돌리고 있다.

직장인을 위한 불교강좌 (2년과정)

2002년도 동산불교대학 신입생 모집

1. 대학 개설 취지

불교의 대중화와 대승불교 사상을 널리 알릴 사명감 있는 포교인을 양성키 위해, 교계대덕스님 및 교수를 초청하여 불교의 분야별 전문교육을 통하여 직장인을 위한 2년과정의 동산불교대학 제 21기생을 모집함

2. 교과목 및 교수

1년 교과목	근본불교 · 대승불교 · 비교종교론 불교상담론 · 인도불교사 · 중국불교사 한국불교사 유식사상 · 정토사상	· 무진장스님(본대학학장) · 최봉수(동국대교수) · 주명철(동국대교수) · 오국근(동국대교수) · 정병조(동국대교수) · 김상현(동국대교수) · 김상영(승가대교수) · 표주스님(동국대교수) · 장휘옥(동국대교수) · 차차석(동국대교수)
2년 교과목	법화사상 · 반야사상 · 화엄사상 불교사회복지론 · 불교학개론 · 선사상 불교미술 및교사상 · 포교방법론	· 암도스님(전포교원장) · 박 종(동산불교대교수) · 문을식(동국대교수) · 권탄준(동국대교수) · 보각스님(승가대교수) · 권기종(동국대교수) · 최종석(동국대교수) · 윤열수(문화재전문위원) · 종석스님(승가대교수) · 한정섭(금강선원이사장) · 김호귀(동국대교수) · 인환스님(동국대교수)

3. 모집방법 및 전형

모집인원	지원자격	제출서류	원서교부 · 접수	전형방법	강의일시 및 장소	비 고
· 불교학과 (200명) (정규반(100),주간반(50) 통신반(50)) · 한문학과(50명) · 불교미술학과(30명) · 우리춤과(30명)	불교를 적극 신행하고자 하는 자	· 입학원서 1통 · 주민등록등본 1통 · 반명함판사진 3매	2002년 6월 15일 ~ 2002년 8월 3일 입학금 200,000원	서류전형 (합격자 개별통보)	· 매주 토요일 오후 6시(정규반) · 매주 목요일 오후 2시(주간반) · 매주 수요일 오후 2시(미술반) · 매주 화요일 오후 4시(우리춤반) · 매주 목요일 오후 7시(한문반)	통신반은 지방거주자나 출석수강이 어려운 자만

4. 입 학 일 시 2002년 8월 10일(토) 오후5시 (동산불교회관)

본대학 사무국 Tel. 02)732-1206~8 Fax. 732-1207 (우)110-140 서울 종로구 수송동 46-20 http:// www.dongsanbud.org

· 서울 : 보련각(조계사앞) 02)733-0333 · 부산 : 불서보급사 051)246-4321 · 대구 : 삼영불교서림 053)425-4097
· 대전 : 보문서점 042)257-0161 · 광주 : 불일서점 062)232-7542 · 제주 : 예전수보리쉼터 064)749-4455

※ 특전사항 : · 상기과정을 졸업한자는 한국불교교육단체연합회 포교사고시를 거쳐 포교사 자격을 취득함.(불교학과)
· 동국대 불교대학원 입학 추천

불교교육 전문도량 동 산 불 교 대 학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우리 6교구 신도회는
대한불교조계종 제6교구 본사 마곡사 제22대 주지로
당선되신 진각스님을 중심으로 6교구 불교 발전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을 다짐합니다.

불기 2546년 6월 10일

대한불교조계종 제6교구 신도회
회 장 윤 석 관 합 장

아프리카 포교 전초기지 … 남아공 남화사

불교불모지에 '불법 씨앗'

대만 불광산사 93년 아프리카 불학원 등 설립
비구·비구니 14명 탄생·학인 60명 공부중

흑인 스님들이 전쟁과 기아, 질병으로 고통받는 아프리카에 불법의 씨앗을 뿌리고 있다.

아프리카의 최남단에 위치한 흑진주 남아프리카공화국. 인구 약 4500만명의 이 나라는 흑인이 75%, 백인이 14%, 혼혈 및 아시아계가 11% 가량을 차지한다. 국민의 80% 가량이 기독교를 믿고 있으며 아프리카의 전통신앙이나 힌두교, 유대교나 이슬람교 등 소수 종파도 있다. 불교의 불모지나 다름없는 이 곳에 아프리카 포교의 전초기지가 마련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남아프리카공화국 브론크호스트스프리트(Bronkhorstspruit) 시의 조용한 컬츄라 공원내에 자리잡고 있는 남화사(南華寺, 주지 혜례). 이 지역에 세 곳의 포교당과 세 곳의 선원, 여성 수행센터, 어린이집 등을 갖춘 남화사가 아프리카 전법을 위해 가장 심혈을 기울여 마련한 교육기관이 바로 아프리카 불학원(The African Buddhist Seminary)이다.

지난 94년 문을 연 불학원에는 브라질, 콩고, 케냐,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뉴질랜디, 탄자니아, 짐바브웨에서 온 60여명의 학인(사미, 사미니)들이 공부하고 있다. 120명의 학인을 수용할 수 있는 불학원은 사무실과, 강의실, 요사채, 스터디 룸, 명상 및 독경실, 도서관, 체육관 등 훌륭한 시설을 갖추고 있다.

'인도주의적인 불교를 널리 알리고, 교육을 통해 스님의 자질을 기르며, 수행을 통해 마음을 닦아 지구촌에 정토를 건설한다'는 교육이념을 가진 불학원은 불교사, 불교 의식, 중국어, 독경, 컴퓨터 기술, 명상, 경전 공부, 체육학, 영어, 운력 등의 내·외전의 다양한 과목을 가르친다. 3년간의 집중적인 입문과정은 휴일을 불문하고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며, 이 과정이 끝나면 4년간의 경전공부와 집중 수행을 마친 후 구족계를 받고 스님으로서 현지 포교에 나서게 된다.

남화사가 아프리카 포교의 첫발을 내디딘 해는 1992년. 대만 불광산사(방장 성운스님)에서 파견된 혜레스님이 처음으로 남아프리카공화국을 방문했다. 93년 10월, 브론크호스트스프리트 시의회가 기부한 15헥타르의 땅에 남화사 게스트하우스 공사를 시작하면서, 곧바로 아프리카 불학원 및 포교당 건립에 들어갔다.

남화사는 10여년의 짧은 전법기간동안 신도 800여명의 사찰로 거듭났다. 97년, 처음으로 21명의 남아공 및 탄자니아 흑인들이 사미



◇아프리카 불학원 학인들이 축구경기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 위). 아프리카 포교의 전초기지인 남아프리카공화국 남화사 전경.

10계를 받았으며, 같은 해 탄자니아 학인 17명이 출가했다. 98년에는 60명의 흑인 및 백인이 삭발의식을 가졌으며, 현재 14명의 비구 및 비구니 스님이 탄생돼 아프리카 전법의 횃불을 밝히고 있다.

남화사 주지 혜례 스님은 "아프리카 불학원은 모든 종족의 재능있는 젊은이들을 교육시켜, 불교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필요한 교육을 한다. 나아가 학인들이 전쟁과 기아, 질병으로 고통받는 아프리카 대륙의 전법사들이 되도록 준비시킨다"고 밝혔다.

해외불교 담당= **김재경 기자** jgkim@buddhapia.com



일지 스님의 **감춰진 불교이야기**

28. 불교 회화의 기원

부처님께서 재세하시던 2500년전의 고대인도사회를 복원할 수 있을까? 복원할 수 있다면 초기불교의 뿌리를 확인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일 것이다. 현재 우리가 부처님 당시 고대인도의 도시상황에 관해서 비교적 명확히 살필 수 있는 책으로는 영국에 최초로 성립된 팔리불교성전협회를 이끈 리즈 데이비스(1843-1922)의 책, 〈부디스트 인디아(BUDDHIST INDIA, 1903)〉라는 고전적 명저가 있다. 저자가 인도 현지를 직접 답사하여 씌여진 이 책의 제5장 '거리들'의 서술에 의하면 고대 인도는 회화와 조각이 고도로 발전한 문화를 갖고 있었다. 왕궁과 대신, 부호의 저택, 거리의 곳곳은 다채로운 회화와 조각으로 장식되어 있었다. 불교회화의 기원과 스타일은 이와같은 기존의 고대인도의 회화문화에 뿌리를 두고 있다. 리즈 데이비스는 이 책에서 고대인도의 직업군을 분류하면서 화가들을 따로 다루면서 "화가들, 그들은 대부분 염료업을 겸했다. 집들의 목조부는 매우 잘 제조된 호분도료(胡粉塗料)를 바르고 프레스코화를 그려넣어 장식했다. 여기에는 인물상이나 풍속, 신화를 주제로 한 회화를 그려넣었으며 마가다와 코살라왕이 소유한 오락(娛樂)의 집에도 화려한 그림이 그려졌다"쓴다. 또한 당시의 화가들은 동업조합을 결성하고 있었다고 한다. 그러므로 불교회화의 기원에 대해서 말하자면 고대인도의 화가들, 염직공, 도료생산자들의 존재에도 주목해야할 것이다.

인도 등 수많은 불교유적
부처님 일생이 제1소재

불교회화의 기원과 무엇이 그려졌는가라는 주제에 관해서는 불명확한 점이 많다. 다만 초기경전과 율장의 관련기사에 의해서 이미 부처님 재세 당시, 건립된 불교사원에 다양한 내용을 가진 회화가 그려지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고고학적 성과와 유물의 평가에 의한 불교회화 기원의 정확한 편년에는 어려운 점이 많다. 우리는 다만 다만 불교회화의 기원과 제재(提題)를 하나의 전승으로서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아래의 기사들은 아무래도 불교교단에 전해지는 하나의 전승이겠지만 불교성립의 최초기부터 사원의 장식에는 다양한 소재를 내용으로 하는 회화가 장엄과 교육의 목적으로 그려지고 있었으며 그러한 그림을 그리는 전문적인 화가(畵工) 집단이 있었으며 부처님 개인은 무슨 내용의 그림을 어디에 그려야할 것인지 세밀하게 자문하고, 그 그림의 보호를 위해 승단을 감독하는등의 미술적인 소양을 갖고 계셨던 것으로 읽혀진다. 의정(義淨)삼장이 710년 역출한 〈근본설일체유부비나야잡사(根本說一切有部毗奈耶雜事)〉권15에 실린 다음의 이야기는 급고독장자(Anātha pindka)가 기원정사(Jetavana)를 승단에 기증한 직후의 일이다.

급고독장자는 동산에 기원정사를 지어 바친 뒤 이렇게 생각하였다.

"만약 단청을 하지 않으면 아름답지 않으니 부처님께서 만약 허락하신다면 내가 장식을 해야겠다." 곧 부처님께 가서 사뢰니 마음대로 그림을 그리라고 하셨다. 부처님의 허락을 듣고는 여러 가지 채색을 모으고 화공을 불러서 말하였다. "이 채색은 이 절을 단청할 것이요."

화공이 물었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그릴 것입니까?" "나도 잘 모르겠으니 마땅히 부처님께 가서 물어봐야 겠소." 부처님께 사뢰니 무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장자여, 문 양 쪽에는 집장야차(執杖夜叉)를 그리고 / 다음 곁으로 한 면에는 큰 신통변(神通變)을 그리고 / 또한 면에는 오취생사지윤(五趣生死之輪)를 그리고 / 처마 밑에는 본생사(本生事)를 / 불전의 문 옆에는 화만(華?)을 가진 야차를 / 강당에는 노덕비구가 법요를 선양하는 것/ 식당에는 음식을 받들고 있는 야차를, / 창고문 옆에는 보배를 가진 야차를 / 수각에는 물병을 가진 용이 기묘한 영락을 걸친 것을 / 욕실과 화당(火堂)에는 천사경(天使經)의 법식에 의한 것과 아울러 / 여러 가지 지옥의 변상(變相)을 그리고 / 요양실(療養室)에는 여래가 친히 병인을 간호하는 것을 / 대소변을 보는 곳에는 무서운 송장을 그리고 / 방안에는 마땅히 백골을 그리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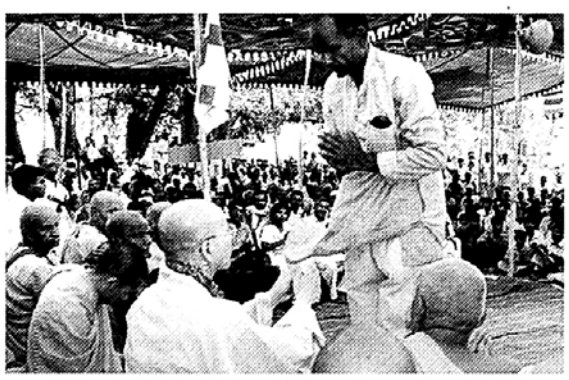
이때 장자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절하고 물러나 가르침대로 단청하여 그림을 완성했다.

▩경학회 회주

로드붓다클럽, 1만5천명 수계

힌두교도 달리뜨 출신 대거 참여

9일 인도 북부 하리야나주 꾸룩셰뜨라에서는 로드붓다클럽 주최로 수계식이 거행됐다. 약 1만오천명 정도가 참석한 가운데 거행된 이번 수계식 역시 힌두교도였던 달리뜨(Dalit, 지정카스트) 출신들이 대거 참여하였다. 수계법사인 붓다쁘리야 라훌(Buddhapriya Rahul) 스님은 법어를 통해 과거 수천년 동안 달리뜨들이 핍박을 받았던 것은 그들이 힌두교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지금이라도 달리뜨들의 원래의 종교인 불교로 되돌아가서 과거의 긍지를 되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날 수계식에는 로드붓다클럽 전국 회장인 우디뜨 라즈(Udit Raj)씨와 전인도 지정카스트·지정부족 연맹의 하리야나주 대표인 까람비르 싱(Karamveer Singh)씨 등이 참석하여 축사를 낭독했다.



◇1일 인도 메인푸리에서 열린 석가족 수계식에게 정토회 지도법사 법륜 스님이 수계제자에게 5계 수지를 당부하고 있다.

한편 이번 수계식이 열린 꾸룩셰뜨라에는 고대의 불교 유적인 세 개의 대탑(大塔)이 매몰되어 있다는 주장이 있어 불교계와 고고학계의 관심이 요구된다. 사르빤츠 마헨다르 싱(Sarpanch Mahendar Singh)씨는 이 날 발표한 하리야나주의 미발굴 불교유적에 대한 보고서에서 꾸룩셰뜨라의 땅 속에 묻혀있을 불교 유적의 발굴작업에 민간인들의 관심과 정부 차원의 지원을 촉구했다.

인도 뿌네= 이지은 통신원

석가족 3천여명 수계

조안푸르마을 법당 개원도

석가족 청년불자회(Youth Buddhist Society, 회장 수레쉬 짠드라 보스)는 보드가야 차크마사원 주지 프리야팔스님과 정토회 지도법사 법륜스님을 모시고 1일 메인푸리(Mainpuri)에서 수계식을 열고 석가족 3천여명에게 수계증을 수여했다. 메인푸리 수계식은 조안푸르 마을의 법당 개원식과 함께 열렸다. (사진= JTS제공)

미국 유태인 불교개종 늘어

카메네츠씨 "대부분 계율 도외시 껍데기 신자"



◇1990년 달라이 라마의 초청으로 유태교 대표 8인과 함께 인도 다람살라를 방문한 카메네츠씨(오른쪽)의 달라이 라마 인터뷰 장면.

미국에서 유태인 불교신도가 늘고 있다.

'주부(JUBU)'라는 약칭으로 불리는 이들은 불교를 어릴 적부터 배워야 할 계율이나 구체적 신행내용이 없는 '부담 없는' 종교로 보고 매력을 느끼고 있다. 따라서 불교가 기본적으로 가르치는 윤리에는 아랑곳하지 않는 이들은 대부분 '껍데기 신자'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유태교와 불교의 두 종교의 전통을 비교한 책 〈연꽃 속의 유태인(The Jew in the Lotus)〉(Aronson Jason 출판사의 저자인 학자 겸 시인 라저 카메네츠(Rodger Kamenetz)씨에 따르면, '주부'를 비롯한 현대 미국의 불교 개종자들은 불교에서 계율이라는 핵심을 도외시하고 형식만을 믿는 것이 대부분이다. 이른바 '미국식 불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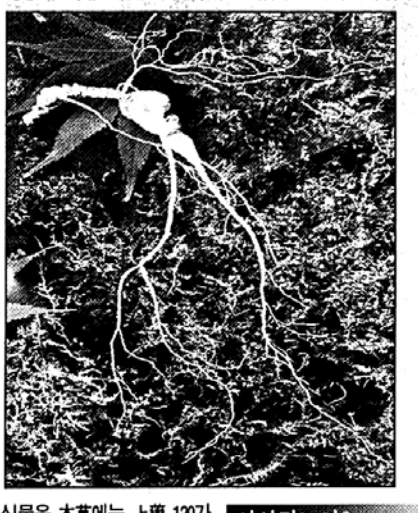
〈연꽃 속 유태인〉은 망명 중인 달라이 라마에게 이국 땅에서 수천년간 믿음과 전통을 유지해온 유태인들과 대비하며, "고국에 돌아갈 때까지 어떻게 (티베트 불교) 신앙을 간직하고 생존할 것인지" 묻고 있다. 이에 대해 달라이 라마는 "유대교 생존의 비밀이 의식과 기도에 달린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불교계가 점차 미 주류사회에 진입하면서 유태교-개신교-불교 등 종교간 대화도 늘고 있다.

元·氣·回·復 존경하는 분에게 가장 고급스럽고 길이 남을 선물이 될 것입니다.

최고의 신비스러운 영약 山蔘 長腦

존경하옵는 스님, 스승님, 부모님과 시험준비에 지친 수험생에게
평생 최고의 값진 선물 최저가격으로 불자님과 인연을 맺고자 합니다.



심마니로부터 산지에서 직접 공급받아 한정된 수량을 전국 어디라도 배달해 드리겠습니다.

산삼의 효능

- 산삼은 기사회생의 영초로서 옛부터 거의 만병통치의 효험이 있는 영초로 전해 내려왔다.
- 당뇨병, 심장병(동맥경화증, 협심증), 위장병, 혈압조절(고혈압, 저혈압), 아편중독, 나병, 암 등 불치병에 큰 효과가 있다.
- 신경쇠약, 폐병, 간염, 간경화, 악성빈혈, 신장병, 류마티스 디스크, 신경통, 노화억제, 원기부족, 성인병, 예방과 치료에 큰 효과가 있다.
- 방사선병, 조혈작용, 산후건강회복, 출혈성, 질병, 신진대사 촉진, 비위허약 뇌기능 강화에 큰 효과가 있다.
- 정력강화(조루증, 정자결핍, 성욕감퇴, 성기능장애), 냉증, 부인병에도 큰 효과가 있다.
- 눈이 밝아지며 어린이는 산삼장뇌를 조금만 먹어도 추위를 타지않고 머리가 좋아지며 저항력이 높은 강력한 체질로 개선된다.
- 산삼은 특정 병에 대한 치료도 될 수 있지만 인체의 전반적인 저항력을 높여 건강을 유지시키는 만병통치적 효험이 있다.

尊敬하옵는 스님
오늘도 衆生 求道와 佛功으로 苦行하시는 스님
저희신 몸과 氣力을 山蔘 長腦로 다스려 새롭게 精進하시옵기를 祈願드리오며 山蔘이 높은 가격 부담으로 미쳐 접할 기회를 못 가지셨던 스님께 報恩에 마음으로 제공해 드리고자 하오니 부담없이 倒途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물은 本草에는 上藥 120가지 中藥 120가지 下藥125가지로 모두 365가지의 약용식물이 구분 기록되어 있는데 山蔘은 上藥중의 첫째가는 君藥으로 이 세상의 어떤 약용실물도 모두 아래에 불과하다고 기록되어 있다.

산삼장뇌란?

산삼은 천종, 지종, 인종, 장뇌 4가지로 분류됩니다. 그 중 장뇌란 산삼의 씨를 채취한 후 깊은 산에 뿌려 자연상태로 재배한 것이며 자연산삼에 버금가는 효과를 지니고 있습니다. 격조있는 선물이 될 것입니다.

주문처 서울(02) 713-7798, 701-4716

- 별도상담(자연산삼 보유)
- 자연산삼 문의상담(심마니 채취가격으로 공급)
- 산삼이 꼭 필요하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

국립농산물품질관리검정필(분석 51160-150)
심마당 長腦山蔘

오가피를 아신다면 이글을 꼭 읽어보십시오!!



국내최대 오가피 재배자
(주)수신오가피 대표 / 성 광 수氏

업 체 명	제 품 명	아칸토사이드D 함량(㎍/g)
(주)수신오가피	수신토종오가피차 골드	98.82
(주)한국자연과학	함박재 가시오가피 백두	16.52
(주)한국자연과학	함박재 가시오가피해피니스	7.47
(주)바이오젠코리아	고려가시오가피	15.49
파진바이오(주)	경회가시오가피	21.32
고려한백인터내셔날	실크오가피Q	검출안됨
대전충남염소농협	토종가시오가피	검출안됨
고려인삼과학	토종야생가시오가피	7.00

※상기함량은 각 제품 1g에 들어있는 아칸토사이드 D의 함량입니다.

업 체 명	제 품 명	아칸토사이드D 함량(1회복용분)
(주)수신오가피	수신천사토종오가피	4957.75
파진바이오(주)	진생성장원	504.9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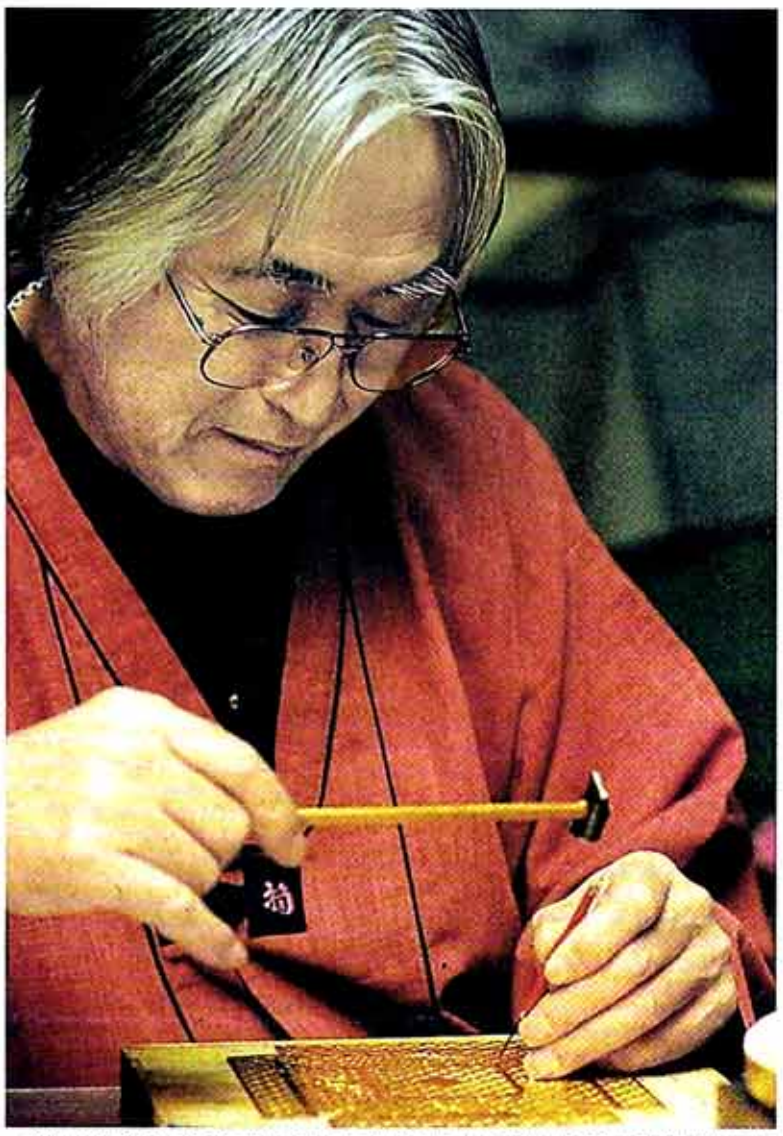
안녕하십니까?
국내최대오가피재배자 성광수입니다.
참으로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이 지금 대한민국 땅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근래들어 우후죽순으로 오가피 혹은 가시오가피를 사용했다는 제품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국내에 이렇게 많은 제품들이 생산될 수 있는 원료가 없는 것을 알고있는 저로서는 참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시중에서 이들제품들을 무작위로 구입하여 분석해봤습니다. 그결과는 너무나 경악스런일이었습니다. 혹시나 착오가 아닐까 재차, 삼차 분석해봤습니다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아칸토사이드 D(Acanthoside D = Eleutheroside E)란 성분은 오가피의 지표물질로 삼고있는 오가피의 대표적인 성분입니다.
이 성분이 들어있지 않은 오가피의 제품은 가짜입니다. 또 이 성분이 얼마나 들어있냐에 따라 정말로 제대로된 원료를 사용했는지, 또 원료를 얼마나 사용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동안 가시오가피가 좋다고 선전해오던 업체들은 이구동성으로 가시오가피가 다른 오가피들보다 월등하게 좋으며, 그 이유로 아칸토사이드 D가 더 많이 들어있다는 주장을 하곤했습니다.
만약 그들의 주장대로라면 그들이 만드는 제품에 저희제품보다 이 성분이 훨씬 많이 들어있어야 할것입니다. 그러나 결과는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또 오가피가 비쌀이유가 없다면서 저희제품보다 훨씬 싸다고 선전하는 제품들이 연일 신문지상에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만일 저희제품과 같은 양의 오가피를 섭취할수 있으려면 표에서 보실수 있듯이 몇배에서 몇십배나 되는 양을 더 먹어야 할것입니다. 이것이 싼것입니까?
이 실험결과에 승복할 수 없는 업주께서는 시중에서 무작위로 구입한 귀사의 제품과 저희 제품을 국립과학수사연구소나 식품의약품안전청등 국가기관에 공동의뢰하여 공개적으로 실험할 것을 제의합니다. 참고로 이곳에 게재된 실험결과는 저희 실험실만이 아니라 국립대학교 2곳, 제약회사 1곳, 국가공인기관 1곳에서 실험한 내용임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소비자여러분께서는 오늘 게재된 제품외에 다른 오가피제품이 있다면 저희에게 실험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분간 무료로 성분검사를 하여 그 결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전혀 오가피 또는 가시오가피를 수확하지도 않으면서 오가피제품이라며 판매하는 제품이나 겨우 몇천펏에 불과한 재배지를 몇만평, 몇십만평으로 부풀려 광고하는 제품, 북한산야생이라 훨씬 좋다는 제품들에 더이상 현혹되지 마십시오. 품질은 정직한것입니다. 앞으로 국내의 모든 오가피제품을 검사하여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국내최대오가피재배자 성광수 올림.

문의전화 (02)447-9114

사찰 순례탑, 이제 무한 21이 함께하겠습니다
불교장례 문화를 선도하는 (주)무한 21.
143-823 서울 광진구 구의 1동 223-65호 풍명빌딩 3층
전화 : 02)447-8847~8 팩스 : 02)447-7071 www.muhan21.com
인터넷 도서 주문
yosiamun.com
전화 : 02)737-0695 / 팩스 : 02)737-0696

불심에 녹아든 예술혼…사리함 제작 외길 28년



◇"스님들이 편히 쉬고 즐기는 정자를 만든다는 생각으로 사리함을 제작합니다" 30년 가까이 사리함 제작의 외길을 걸어온 최광웅 거사가 자신의 공방에서 월산 스님의 사리함을 만들고 있다. 사진=고영배 기자

산문밖의 人間 전통금속공예가 최광웅씨

"스님의 삶·가르침 모두 담도록 노력하지요"

전통 방식 '고수' …월산스님 사리함 제작중

눈길 닿는 곳 모두가 불국토인 경주에서 28년째 사리함 제작의 외길을 걷고 있는 최광웅(61, 전통금속공예 연구소 금오산방 소장) 거사.

송광사 구산 스님과 인홍 스님, 성철 스님의 사리함을 비롯해 충북 보은 법주사 청동대불 사리함, 서울 봉은사 미륵대불 사리함 등이 그의 손을 거쳐 탄생했다.

원래 토목을 공부했던 최 거사가 전통금속공예에 관심을 가진 것은 1971년, 그의 나이 서른 살 때다. 금은방 하는 친구들의 세공작업을 구경하며 조금씩 공예기술을 익혔고 73년에 천마총 출토 금속유물 복제품 일을 돕다가 아예 직업을 바꾸게 되었다.

그런 그가 다보탑 석가탑 사리함 복제품을 만들면서 사리함 제작에 끌리게 됐다. 부처님의 집을 짓는 복되고 소중한 일임에도 누구 하나 전문가라 부를 사람이 없었던 상황에서 그 길을 걷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쉽지 않은 길이었다.

사리장엄구를 만드는 일은 조각 회화 건축 그리고 불교 교리에 대한 깊은 이해와 신심을 필요로 하는, 그 시대 미술 수준의 바로미터다. 한 가지라도 소홀히 할 수 없는 작업인 것이다. 매일 불교서적을 읽고 불교미술에 대해 공부했다. 사리장엄구를 단순한 유물 복제가 아니라 부처님의 가르침과 스님의 삶, 스님이 머물던 사찰의 분위기까지 다 담아내는 최고의 작품으로 만들겠다는 원력 때문이다.

"사리함을 구상할 때는 꼭 스님이 머물던 사찰을 찾아 사진을 찍고 산세와 절집 분위기 까지 기록합니다. 사리함의 외함에는 가능하면 그 사찰의 사천왕을 그대로 재현해 조각하려 합니다"

하나를 완성하는데 보통 1~2년씩 걸리는 사리함 제작은 육체적이나 정신적으로 힘든 작업이다. 경제적으로도 돈이 되지 않았다. 차라리 토목기술사 자격증을 따볼까 생각도 들었다. 이때 자신을 잡아준 것이 부인 박영희(59, 씨의 말 한마디다. "부처님 인연이 닿아 들어선 길이니 함께 공부하며 개척해 봅시다."

그에게 사리함은 어떤 의미일까?

"보통 큰스님들께서 입적하시면 세간에서는 사리가 얼마나 나왔느냐에 관심을 갖지요. 많이 나왔느냐 적게 나왔느냐로 스님의 수행과 깨달음의 정도를 측정하려 듭니다. 그러나 그것은 의미 없는 분별심 아닐까요? 저는 다만 사리함을 부처님과 스님이 편히 쉬고 즐길 정자를 마련한다는 생각으로 만듭니다."

그에게 98년은 잊지 못할 해다. 성철 스님의 사리함을 완성했기 때문이다.

사리함을 만들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해인사를 다녀왔다. 사진을 찍고 성철 스님의 법문집도 읽으며 스님 사진도 열심히 들여다봤다. 그렇게 두 달이 흘렀지만 사리함 모양이 머리에 그려지지 않았다. 이것이 한계인가. 시름은 깊어져갔다. 공방에 앉아 곰곰이 생각에 잠긴 어느 날 홀연 어떤 목소리가 들렸다.

1~2년 걸려 하나 완성

"효도하는 마음으로 만들어라"

나중에 법문 테이프를 듣고서야 그것이 성철 스님의 목소리라는 것을 알았다. 그는 이 말을 화두삼아 설계에 들어갔다. 이때부터 작업은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사리함을 만들고 동판에 금강경을 새겼다. 하루 종일 공방에서 작업을 하고 피곤하면 잠시 엎드려 눈을 붙이기를 2년간 반복했다. 마침내 98년, 외함과 네 겹의 내함으로 이루어진 사리함과 금을 입힌 동판 사경 16장이 완성됐다. 그 순간 비로소 '부처님 일은 인연 따라 이뤄지고 원력이 간절하면 어떻게든 이뤄진다'는 것을 깨달았다.

지금 그는 불국사 조실을 지냈던 월산 스님의 사리함을 만들고 있다. 월산 스님과의 인연은 어머니를 위해 금강경을 동판에 새기는 작업이 마무리될 쯤 시작됐다. 사경 소식을 전해들은 월산 스님이 직접 공방으로 찾아와 "당신이 하는 일이 곧 수행이고 공덕 쌓는 일"이라며 격려했다. 이후 스님은 스스럼없이 그의 공방을 드나들었다. 스님이 돌아가시자 사리함 제작은 자연스럽게 그의 몫이 되었다.

그의 작업방식은 '고생을 사서하는' 전통방식 그대로다. 은판을 말아 붙일 때도 용접제를 사용하지 않고 불을 이용해 은과 은이 스스로 붙도록 한다. 온도가 지나치게 높으면 은이 녹아 모양이 어그러지고 온도가 낮으면 서로 붙지 않는다. 탬질 자국은 수년이 흐르면 부식해 부서지기 때문이다. 0.1mm 두께의 금판을 서로 이어붙이거나 지름 0.3~0.4mm의 금구슬을 붙이는 일 역시 고도의 집중력을 필요로 한다. 삼매에 빠진다는 것이 이러한 것인가. 집 옆 기찻길의 요란한 기차소리도 이때는 전혀 들리지 않는다. 한 치의 흐트러짐도 없어야지 조그마한 번뇌라도 생기면 작업은 그대로 도로(徒勞)가 된다. 지금 이 순간 망치와 쇠붙이로 하는 작업이 곧 수행이고 참선인 것이다.

힘든 작업, 후학찾기 '고심'

'부처님 일'을 하고 있다는 자긍심은 크지만, 경제적인 어려움은 3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하다. 사리함을 제작해준 후 대가를 제대로 받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돈을 받지 못하더라도 '대충' 작업을 마치는 경우는 없다. 마음에 들지 않으면 설계도면을 다시 그리거나 작품을 모두 녹여버린다. 그렇다고 원망하는 마음을 내지도 않는다.

"부처님 집 스님 집 지어드리고 하루 세끼 밥 먹고 살면 됐지, 돈을 모으는 것은 이생에서 내 몫이 아닌 것 같습니다"

사리함 만드는 일은 밖으로 드러나는 일도, 누가 크게 알아주는 일도 아니다. 자신의 능력을 세상에 보이고 싶은 사람은 그 고독을 견디기가 힘든 일이다. 힘들고 남이 알아주지 않는 일을 해나가는 이 시대 장인들의 공통적인 고민처럼, 그도 후학 양성에 애태우고 있다. 끈기와 집중력을 요하는 사리함 제작은 일이 힘들고 돈이 되지 않는 일이라 젊은이들이 배우기를 꺼려하기 때문이다. "후학 찾는 일이 너무 힘들어 몇 년 전부터는 아예 포기하고 있다"지만 최거사의 좋은 장인(匠人)을 길러내고 싶은 간절한 서원은 아직도 절절하기만 하다.

현재 작업 중인 월산 스님 사리함은 내년 봄에 완공될 예정이다. 따뜻한 바람이 봄고 만물이 소생하는 봄이 되면 그의 '작품'은 잠시 세인의 눈을 황홀케 한 후 부도탑 안에 봉안될 것이다. 그리고 적어도 수십 년 동안은 그 모습을 감추고 있을 것이다.

그것을 만든 자신이 그렇듯이.

경주=여수령 기자 snoopy@buddhapia.com

사리=수행의 결정체…진신·법신·승사리 등 3종류

사리는 사람이 죽은 후에 남겨지는 육신이나 뼈를 뜻하는 범어의 사리라(sarira)에서 온 말로 불교에서의 사리는 석가모니의 신골(身骨)을 뜻한다.

사리는 셋으로 구분되는데 부처님의 유골인 진신사리와 부처님의 가르침을 담은 불경을 뜻하는 법신사리, 고승의 유골인 승사리로 나뉜다. 한량없는 육바라밀을 닦은 공덕과 계정혜 삼학을 수행하여 생기는 사리는 매우 얻기 어렵고 따라서 제일가는 복전(福田)이 된다고 금강명계에 밝히고 있다.

사리구=사리용기·봉안공양품…공양소탑·탑지 구분

사리구는 사리를 직접 담는 사리용기와 함께 봉안되는 공양품을 통틀어 일컫는 말이다.

사리장엄의 방법은 일정한 틀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다. 가장 중심에 사리를 직접 넣는 용기는 주로 수정이나 유리병이 사용되며 그 다음 안에서부터 금 은 동으로 만든 내함과 이를 감싸는 철이나 돌로 만든 외함으로 구성된다. 이러한 사리봉안 방식은 〈대열반경〉에 있는 부처님의 장례식에 사용되었던 관의 형식을 따른 것으로 보인다.



◇성철스님 사리를 봉안한 사리함. 산청 겁외사에 봉안돼 있다.



◇최광웅 거사의 작품인 봉은사 미륵대불에 봉안된 사리함. 사리를 담은 사리병(맨 오른쪽)을 금으로 만든 사리함(가운데)에 넣고 이를 은으로 만든 내함(왼쪽)에 봉안한다.

육임래정비법
六 壬 來 情 秘 法
좌정용 1,300,000원 시간으로 판단하는 역술인 필수 秘奇書! 휴대용 1,500,000원
- 바인더 차트식으로 되어 있어 하루치씩 꺼내 보게 됩니다 -
음양오행을 몰라도, 역술공부가 부족해도, 이 「육임래정비법 혁신판」만 있으면 그 고민은 이제부터 해결 됩니다.
■육임은 시간으로 보는 고등역술로서,
찾아오거나, 전화오거나, 가서 만난사람의 비밀
한 속사정을 먼저 말해줄 수 있게끔 되어있는 비서(秘書)입니다.
■출생 년월일시를 물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찾아 온 그 날 그 시간, 전화 온 그 날 그 시간, 가서 만난 그 날 그 시간만 보면
이미 그 해당 시간 칸칸 마다에 상대방의 비밀한 속사정들이 다 적혀 있는
가서(奇書)인 것입니다. 먼저 할말은 앞면에, 묻는 대답은 뒷면에 적혀있습니다.
■같은 날 같은 시간에 여러명이 오거나 전화하거나 가서 만나더라도 각기 다르게 말해 줄 수 있게끔 쓰여 있어서 편리하고 신통합니다.
■이처럼 핵심사항들에 대해 들어서자 마자, 전화 받자 마자, 가서 만나자 마자 즉시 말해주게 되면 상대방은 당장 기선이 제압당하게 되고 맙니다.
■이 외에도 즉시 판단할 수 있도록 재물, 승진, 구재, 구직, 시험, 혼사, 임신, 가정, 이사, 소송, 질병, 대행, 도난, 가출, 대인, 방문, 채용, 투자, 승부, 가격, 경작, 묘지, 기후 시항 등을 밝혀 놓았습니다.
■육임은 참으로 신통하여 역술인에면 누구나 하고 싶어 하지만 워낙 난해하여 포기하고 마는데, 이처럼 쉽게 차트식으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2년여에 걸쳐 그 정확성이 검증 되고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책은 활인전문 천역자 분들에게만 판매하고 있습니다.
주문전화 : 02-993-8680, 02-996-3335
부산지사 : 051-851-2349 (당일배달 : 정현철)
입금구좌 : 한빛은행 813-041583-13-101 김영란 도서출판 복문
제 2차 육임강의 접수 중
매월 3개월 완성 1,500,000원(효사육임강의록교재포함)
육임비디오 강의 접수 중
총 28개 1,200,000만원(효사육임강의록 포함)
「효사육임강의록」 300,000만원 출시!



혜경스님의 경전읽기

법화경 ㉫ 안락행품 제14

안락행

앞의 '제13장 권지품'에서 바이샤쟈라쟈(藥王) 보살과 마하푸리티파나(大樂說) 보살을 우두머리로 하는 2만의 보살들에서부터 80만 억 나유타의 보살에 이르기까지, 부처님께서 멸도하신 후에 〈법화경〉을 간직하고 넓힐 것을 맹세했다. 이 '제14장 안락행품'에서는 그 맹세를 받고, 다음의 험악한 세상이 된 이 사바세계에서 어떻게 〈법화경〉을 설해 넓힐 것인가, 즉 경전을 넓힘에 있어 가져야 할 몸가짐과 마음가짐을 밝히고 있다. 그 몸과 마음가짐에 대해 설한 것이 '4안락행'이다.

천태대사(天台大師)의 해석에 따르면 이것을 몸(身)·입(口)·뜻(意)·서원(誓願)의 네 가지로 분류한다.

먼저 몸(身)의 안락행에는 보살의 행위 즉 행동(行處)과 교제범위(親近處)가 설해져 있다. 행처(行處)란 인욕의 경지에 머물러 제법실상(諸法實相)의 모습을 관(觀)하는 것이라고 한다. 또 친근처(親近處)에 대해서는 우선 최초에 보살이 가까이해서는 안 될 사람들을 열거하고 다음에 친근해야 할 것으로 (1)조용한 곳에서 좌선을 하여 마음을 닦아 다스릴 것 (2) 일체의 현상(一切法)이 공성(空)임을 관찰할 것 등을 열거하고 있다.

이 14장의 이름의 유래가 된 '안락행'이란, 원어 수카-비하라(Sukha-vihara)의 중국어 번역으로, 원래 의미는 '낙(樂)에 머무는 것, 즉 심신이 안락한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이라는 뜻이다. 그러므로 안락행이란, 안락한 수행이라는 뜻이 아니라 안락한 상태에 몸과 마음을 두기 위한 실천행법(實踐行法)을 말한다. 그래서 법본 즉 산스크리트 본에서는 이 14장을 '안락한 생활'이라 부르고 있다.

이 '안락행품'의 첫머리에서 만주슈리(文殊) 보살은 부처님께 다음과 같이 여쭙는다.

"세존이시여, 이 여러 구도자(菩薩)들은 참으로 보기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부처님을 존경하고 따르기 때문에 큰 서원 세우기를, 부처님께서 멸도하신 후의 험악한 세상에서 이 〈법화경〉을 수호하며 읽고, 외워, 배우고, 남에게 전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이 큰 뜻을 세운 초심의 구도자들이 다음의 험악한 세상에서 〈법화경〉을 설할 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앞 장(前章)의 '권지품'에서 다섯 종류의 사람들이 〈법화경〉을 마음 속에 간직(受持)하고 넓힐 것을 부처님 앞에서 맹세했다. 그것을 이어받아서 이 '안락행품'에서는 구도자 만주슈리가 대표가 되어,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다음의 악한 세상에서 이 〈법화경〉을 어떤 방법으로 설하면 좋겠습니까?"라고 부처님께 묻는다. 이에 대해 부처님께서는 "만일 보살마하살이 미래의 악한 세상에서 〈법화경〉을 설하려면 마땅히 다음의 네 가지 행법(行法)에 편히 머물러야 한다"고 하시며 다음의 네 가지의 행법에 대해 차례 차례로 설하신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설하신 이 네 가지의 가르침을 '4안락행'이라 이름한다. 그러므로 '4안락행'이란, 부처님께서 멸도하신 후의 악한 세상에서 〈법화경〉을 넓히는 사람이 지녀야할 마음가짐에 대해 설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것은 앞의 '법사품'에서의 '홍경(弘經)의 삼궤(三軌)' 즉 〈법화경〉을 넓히는 세 가지의 바른 길과 비록 그 길은 하나이지만, 그 내용은 '법사품'의 옷(衣)·자리(座)·방(室)의 세 가지의 길보다도 훨씬 구체적이며 현실에 입각하여 설해져 있다.

법화경 설할때 몸·마음가짐 밝혀

천태대사, 몸·입·뜻·서원 4분류

첫번째의 안락행은 앞서 말했듯이 천태대사에 의하면 이를 '신안락행(身安樂行)'이라 하는데 이를 둘로 나누어서 해석한다. 즉 보살의 행처와 친근처가 그것이다. 행처(行處)란, 아차라(ācāra)의 번역으로 행동(行動) 또는 거동(擧動) 등의 뜻이다. 〈법화경〉에서는 "인욕(忍辱)의 경지에 머물러 그 어떤 것에도 마음이 사로잡히지 않고 제법여실(諸法如實)의 상을 관하라"고 설하고 있다. 즉 항상 모든 것에 대해 참고 견디며 어떠한 것에도 마음이 사로잡히지 않고 사물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관찰하라는 것이다. 사람은 어떤 것에 대해서든 그 마음에 집착이 있으면 사물의 진실한 모습을 보는 눈이 흐려진다. 그러므로 이 집착심을 버리고, 있는 그대로의 진실을 보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것은 '법사품'에서 설한 "유화인욕(柔和忍辱)의 옷을 입고, 일체법(一切法)이 공성(空)이라는 여래의 자리에 앉아서"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다. 말법시대에 〈법화경〉을 넓히려는 사람은 이러한 마음가짐이 꼭 필요하다고 한다.

이것이 초심의 보살이 〈법화경〉을 넓히려고 할 때 지녀야할 마음가짐이다.

▩무설정사 조실

공덕 원만치 못하



◇있는 듯 없는 듯 직지사 벽안당에 머물며 학인들을 가르치고 홀로 선수행에 힘쓰니 이것이 의룡스님의 가풍이다.



가까이서

의룡스

홀연 중도삼매에 앉으니
그곳이 열반이고
여기가 화장세계라
달이 천강에 도장찍어
강마다 달이요
부처가 만가지로 나투
모양마다 부처로다

호흡조절·법륜 굴려

아이가 꿈을 꾸었다.

아름다운 언덕을 넘어 가니 커다란 호수도 있고 호수 한 쪽에는 절벽과 폭포도 있었다. 호수를 구경하면서 길을 가는데 호수 가운데에서 물결이 일기 시작했다. 걸음을 멈추고 바라보니 물결 속에서 용 한 마리가 꿈틀대며 몸을 드러내는데 물이 하도 맑아서 물속의 몸도 잘 보였다. 용은 호수를 휘휘 세 바퀴 돌더니 아름드리 버드나무에 난 큰 구멍을 빠져 나가 하늘로 오르기 시작했다. 용이 꿈틀거릴 때 마다 구름이 뭉게뭉게 모여 들었다. 그 놀라운 광경을 바라보며 '저것이 용인가 보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뒤에서 한 노인이 껄껄 웃으며 말했다. "용이 바로 저런 것이다. 구름을 타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용이 움직이면 구름이 따라 모이는 것(도운승천, 圖雲乘天)이다. 용이 없는 구름을 만들며 승천을 하듯이 성인과 영웅도 스스로 자기의 시대를 만드는 것이다." 노인은 웃음소리만 남기고 사라졌다. 아이는 계속 용을 바라보았다. 푸른 허공에서 꿈틀거리며 구름을 모아 하늘로 오르는 용. 한참을 바라보니 마침내 용은 한 점으로 보이고 그 한 점마저 사라졌다. 그리고 꿈에서 깨어났다. 아이는 그 꿈을 잊을 수가 없었다. 누구에게 말도 하지 않았고 하루에도 수 십 번 꿈 생각을 했다. 그러다가 '중이 되라는 꿈이다'라는데 생각이 이르자 가슴이 시원해지고 머리가 맑아졌다. 집을 떠났다. 절 이름에 용(龍) 자가 들어 있는 수원의 용주사를 향해 안성 땅을 떠나 무작정 걸었다. 그리고 입산. 아이의 나이는 여섯 살이었다.

의룡(義龍, 직지사 강주) 스님의 출가 인연이다. 스님은 워낙 어린 나이에 스스로 걸어서 입산을 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여러 어른 스님들의 사랑을 받기에 충분했다. 거기에 절 생활의 예법과 경전 공부까지 남보다 정확하고 빠르게 익어 더욱 사랑을 받았다. 12세에 만해 스님(한용운 스님이 아님)으로부터 사미계를 받고 2년 뒤에 일해 스님으로부터 비구계를 받았는데 그때까지 스님은 한학도 배우고 경전도 열심히 배웠다.

직지사 응진전과 관음전의 뒤쪽에 자리한 벽안당(碧眼堂)에 주석하며 직지사 강원 학인들을 지도하는 의룡 스님의 법호는 능허(凌虛). 법명에 용자가 들어간 것이나 법호가 허공을 업신여긴다는 의미이고 보면 스님의 출가담에 등장하는 용꿈에 대해 수긍이 간다.

의룡 스님은 명봉스님으로부터 전강을 받았다. 명봉스님은 우리나라 근대 강맥의 두 산맥인 진응 스님과 한영 스님 중 한영스님으로부터 강맥을 전수받은 대강백이었다. 청담 스님이 해인사 주지로 부임하면서 명봉스님을 해인사 강주로 모시기 위해 3번이나 찾아갔다는 것은 잘 알려진 일화다.

강주 스님이기에 경전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듣게 될 것으로 생각 했는데 스님은 의외로 선 수행에 대한 말씀에 힘을 주었다.

"사교입선(捨敎入禪)에 대한 오해가 요즘 불교를 이상하게 하는 가장 큰 원인입니다. 교학을 무시하고 선만 하라는 것이 아니거든요. 교를 배워 바탕을 삼고 선을

> **경전공부 소홀하면**
> **교학도·선수행도**
> **모두 성취할 수 없어**

실천하여 깨달음을 얻는다는 이치인데, 그러기 위해 선을 할 때는 이미 배운 교학에 대한 집착을 떠나야 한다는 것인데 사람들이 책을 멀리하고 선만 하면 성불을 한다고 생각하니 거기서 잘못이 시작되는 겁니다. 선 수행을 하는 방법이 다 교학에 있는데 그걸 무시한 채 뛰어 넘으면 무엇을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스님은 부처님도 늘 선정에 들어 설법을 했다는 점과 법회 때 법문을 듣기 전에 입정을 하는 것이 다 같은 이치임을 알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부처님도 깨달음을 얻은 직후 석 달 동안 그 깨달음의 내용을 말하지 않았다. 중생들을 위해 무상(無上)의 진리를 설해 달라는 제석천의 간청을 받고서야 설법을 하기 시작한 것이다. 깊은 선정에서 얻어진 진리를 말로 표현하는 데는 역시 선정의 자리에서 가능하므로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설법을 하기 전에 항상 선정에 들었다. 모든 경전의 시작이 그렇다. 〈금강경〉을 보면 부처님이 걸식을 마치고 수행처로 돌아와 발을 씻고 정좌하여 입정에 든 후 설법을 시작하는 대목이 먼저 나오지 않는가. 의룡 스님은 경전공부를 소홀히 하면 선 수행을 제대로 할 수없다는 점을 간과한다면 교학도 성취할 수 없고 선 수행도 이룰 수 없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부처님이 설산으로 출가하여 6년을 닦아 성불했다는 것은 현생에서의 수행을 말하는 것이지만 사실 부처님은 무량겁을 두고 공덕을 쌓았습니다. 그 무량겁의 공덕이 원만하여 무상정등정각(無上正等正覺)을 이룰 수 있었던 것입니다. 공덕을 쌓는 다는 것은 바로 선행을 하는 것입니다. 6바라밀, 10바라밀을 실천하는 등 선행을 무수히 쌓아 그 공덕이 원만할 때 성불이 가능한 것입니다. 부처님 당시의 제자들이 모두 성불하지 못하고 아라한과를 증득하는데 그친 것도 아직 공덕이 원만하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만큼 성불이 어려운 것입니다. 공덕을 닦기 위해서는 선행을 실천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경전공부하고 선을 해야 하는 겁니다."

의룡 스님은 여래선을 닦을 것을 강조한다. '이 뭐꼬' 화두도 자칫 망상일 수 있다는 것이다. 성급하게 부처가 된다는 생각을 버리지 않으면 그 욕심 때문에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바르게 공부하지 않고 선사들의 어록 몇 줄이 선의 경지를 다 드러내

특허

BBS 불교방송(길을 찾아서) 출현 특허에 의한 승복의 우수성을 설명

국내최초로 특허청에 의장등록(제 0246178호)

승복 • 법복 • 잠옷 • 바랑 판매 안내

불교계와 저희 기원섬유가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 고급모직 (특징 - 통풍 잘됨, 가볍고 구김없음, 물세탁 가능)
   (적삼, 바지, 조끼 : ₩170,000) (동방바지 : ₩160,000) (두루막 : ₩140,000)
2. 쿨맥스 (특징 - 품질 가장 우수함, 수분 발산율이 빠름, 구김없고 아주 가벼움, 물세탁가능)
   (적삼, 바지, 조끼 : ₩180,000) (동방바지 : ₩170,000) (두루막 : ₩150,000)
3. 특수직 (특징 - 제일 가볍고 시원함, 물세탁 가능)
   (적삼, 바지, 조끼 : ₩140,000) (동방바지 : ₩130,000) (두루막 : ₩110,000)
4. 아포텍스 (특징 - 몸에 붙지 않으며 까칠함, 물세탁 가능)
   (적삼, 바지, 조끼 : ₩160,000) (동방바지 : ₩150,000) (두루막 : ₩130,000)
5. 광목 (특징 - 순수한국산, 손염색, 멋을 가진 승복)
   (적삼, 바지, 조끼 : ₩170,000) (동방바지 : ₩160,000) (두루막 : ₩130,000)
6. 장삼 (조계종, 태고종) - 춘추, 하절기(가사도 주문 받습니다.)
   (고급모직 : ₩220,000) (특수직 : ₩200,000)
7. 셔츠 (차이나, 라운드) : 가볍고 시원하며 물세탁 가능 : ₩30,000)
8. 걸망, 바랑, 나들이가방, 손가방, 보조가방
9. 가볍고 예쁜 법복(회색, 밤색) : 조끼 바지 : ₩65,000



하절기 시원하게 보내실수 있게 저희 기원섬유가 책임지겠습니다.

스님께 가사불사 보시하면 십선(十善)을 지어 5가지 큰 공덕으로 삼제팔란을 소멸합니다.

◒ 잠옷(항균처리) - 남, 여(상, 하) : ₩65,000

특징 : 1. 특허청에 의장 등록된 옴자, 연꽃무늬가 은은하게 들어있음 (제0246178호)
2. 항균처리된 제품
항균처리란? 각종 박테리아와 미생물의 증식을 억제시켜 악취 발생을 방지하고 청결한 몸상태를 유지시켜주는 특수제품 임
3. 고급순면으로 촉감이 아주 뛰어남

*유사품이나 모방할 경우 법적인 제재를 받습니다.

30년 전통의 승복 전문업체 "수레바퀴"
기원섬유
본 사 : 대구 동구 신천 3동 139-1 봉영 B/D 302호
TEL : (053)764-4114 H·P : 011-9850-4400
지역 판매점 모집

"오가피를 아신다면 이글을 꼭 읽어보십시오" 라는 거짓 광고를 고발합니다!!



국내 최대 가시오가피 재배자
(주) 한국자연과학 대표
강 훈 구 氏

▣ 가시오가피와 일반오가피의 비교

구 분	가시오가피	일반오가피
학 명	Acanthopanax Senticosus	Acanthopanax
각국의 명칭	한 국: 가시오가피 러시아: 시베리안 진셍 중 국: 자오가(씨우자) 일 본: 에조우고기	한 국: 오가피 러시아: 없슴 중 국: 오가 일 본: 우고기
각국의 정부정책	한 국: 보호야생식물 러시아,중국: 국가보호수	해당사항 없슴
국내종자 가격	수입산: 리터당 30만원 국내산: 구하기 어려움	국내산:리터당 3만원
외국 석학들의 논문 및 보고서	• 러시아 브레크먼박사-가시오가피의 약리작용에 대한 연구보고 • 독일 비그너박사-한국산 가시오가피의 유효성분이 가장 뛰어남 • 중국 체혼친 박사의 연구보고 외 논문 다수	해당사항 없슴
모양새	바늘같은 잔가시가 백백함	징미가시 같은 큰 가시가 듬성듬성 나 있슴

식 물 명	가시오가피	일반오가피류			
		지리오가피	서울오가피	섬오가피	당오가피
엘레우테로사이드 E 함량(mg/g)	1.92	1.10	0.69	0.35	0.24

- 농촌진흥청 호남작물시험장 연구 보고 -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제4민사부 결정을 조롱하는 당신!

수신오가피 성광수씨에게 묻습니다. 저는 사법부의 결정이면 끝이 나는 줄 알았습니다. 법의 존엄함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부당한 당신의 항위죄 중단시키기 위해서 거금 5억원이라는 공탁금을 걸고 가처분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결정문도 휴지가 되었습니다. 여전히 오늘 현재까지 편법광고로 사법부의 관결을 비웃고 있습니다. **법의 존엄과 법의 결정은 휴지입니까?**

지난 및 년간 가시오가피 내용으로 오가피 제품을 팔아 승승장구하던 수신오가피가 최근 조작까지를 서슴치 않는 것은 가시오가피의 진실이 하나, 둘씩 밝혀지면서 소비자들로부터 외면을 받게 되어서 입니까? 특히, **막대한 광고비를 들이면서도 영업에 압박을 받게 되자 본인 의도하에 조작된 샘플을 이용하여 실험해 놓고 마치 본인의 제품이 가장 우수한 것처럼 광고를** 하고 있는 것은 위기감의 발로입니까? 함박재가시오가피 농장에서 재배하는 것은 환경부에서 보호식물로 지정한 가시오가피입니다. 당신은 오가피 나는 가시오가피이므로 가는 길이 다릅니다. 당신이 무엇이라 하던 오가피가 가시오가피가 될 수는 없습니다.

수신오가피 성광수씨의 물음에 답하고 묻습니다!

1. 당신은 자기 제품(수신 토종오가피)의 시료는 농축하고 함박재가시오가피 제품 에는 물을 먹여 시료를 조작하였습니다. 『농촌진흥청 호남작물시험장 연구 보고』(도표참조) 그런데, **당신의 손을 거치면 없는 것이 나타나고 타사의 것은 작아집니까?** 당신은 분명 도깨비 방망이를 지녔습니다.

2. 당신이 말하는 가시오가피의 지표는 아칸토사이드D가 아니라 이소프락시딘입니다. **"이소프락시딘이 없으면 가시오가피가 아닙니다."** 국제적으로 진짜 가짜를 식별하는 지표로 삼는 것은 가시오가피에만 있는 성분으 로 다른 식품에는 없거나 있다 하더라도 미량이기 때문입니다. 미국, 중국, 러시 아, 일본 등 세계 각국이 이소프락시딘을 지표로 삼고 있습니다. 이것을 알고는 있습니까?

[수신오가피 성광수씨는 오가피를 가시오가피 내용으로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 ▶ 당신이 편저자이고 수백만부 이상을 푸린 〈토종오가피의 효능〉이라는 책자 40쪽부터 47쪽까지 복용사례, 기타 인용문 중 오가피는 가시오가피입니다.
- ▶ 일본의 에조우코기는 오가피가 아니라 우리말로 가시오가피입니다.
- ▶ 구 소련의 브레크만이 인삼 대타로 연구하여 세계에 그 약리작용을 알린 것은 오가피가 아니라 엘루테로콕쿠스 즉, 우리말로 가시오가피입니다.
- ▶ 독일의 석학 바그너 박사가 한국산이 소련산의 4배, 중국산의 6배의 엘루테로사이드 E가 많다는 것은 오가피가 아니라 가시오가피입니다.
- ▶ 구 소련의 우주비행사나 올림픽 출전선수들이 음용한 것은 오가피가 아니라 가시오가피입니다.

3. 국내 최대 오가피 재배지라고 주장하는 수신오가피의 성광수씨 천안 수신면에 위 치한 농장이 당신이 주장하는 최대의 농장입니까? 그 농장의 생산량은 당신이 현 재에 판매하고 있는 원재료의 1개월분도 채 안된다. 그러면, **당신의 농장은 러시아에 있습니까? 중국에 있습니까?**

"좋은 일을 생각하면 좋은 일이 일어나고 나쁜 생각을 하면 나쁜 일이 일어납니다." - 머피의 말

문의전화 (02) 2272-4900

성불하기 어려워

큰스님

(직지사 강주)



◇강원으로 출강하기전 그날의 강의내용을 점검하는 의룡스님.



◇직지사 벽안당 편액은 남전스님의 친필이다.

혜 광명이 눈에 어리어 부처님이 샛별의 눈빛으로 정각을 이루셨듯이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스님은 고봉화상의 이 게송만 잘 이해해도 참선을 하는 방법과 그 성취의 가능성을 충분히 알 수 있는 것이기에 나름대로의 해석법을 강조하고 있다.

의룡스님은?

경기도 안성에서 1936년에 태어나 여섯 살 때 용꿈을 꾸고 스스로 용주사를 찾아가 출가 했다. 12세인 1948년에 용주사에서 만해 스님을 은사로 사미계를 받았다. 2년 님에게 강맥을 전해 받았다. 이후 서울 불광동에 삼매정수선원을 창건해 35년간 홀로 정진 했다. 찾아오는 신도들에게는 여래선수행과 경전을 가르쳤다. 6년 전 은사 서운 스님의 다비식이 김천 직지사에서 엄수 되었을 때 직지사에서 녹원스

삼매정수선원 창건, 직지사 강원서 학인 지도

뒤인 1750년에 일해 스님을 은사로 비구계를 수지했다. 용주사 월정사 해인사 등에서 관응, 탄허, 명봉스님에게 경전을 배웠고 명봉스 님의 부탁을 거절할 수 없어 직지사 강원 강주를 맡아 오늘에 이르고 있다.

무념무상 경지 도달

것으로 착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

선이란 삼매에 드는 길 아닙니 무념무상의 경지에 들기 위해 호흡을 조절하고 법륜을 굴 합니다. 법륜은 설법이 아니 자신에게 내재된 불성(진리)입 다. 그것을 순일하게 굴리는 수 이 여래선입니다. 몸 안의 물 과 불기운을 조화 시키는 것. 기운은 위로 올리고 불기운은 로 내리면서 법륜을 굴리는 수행을 해야 하는 겁니다. 스 로 선을 닦고 선행을 닦아 공덕 쌓는 것이 부처가 되는 길입니

님은 무량겁을 두고 점수(漸修)를 공덕이 원만하게 익으면 몰록 깨치 돈오(頓悟)의 경지에 이를 수 있으며 서도 늘 선정 삼매에 들어 진리를 보일 수가 있다는 점수돈오를 가 로 삼고 있는 것이다.

님이 입어나 벽안당 큰 방 서가(書架)에서 한 권의 책을 찾아 펼쳐 보였다. 〈선요(禪要)〉. 고봉대혜(高峰大慧 1238-1295, 중국선사) 화상의 금쪽 같은 가르침이 간결하게 수록된 책으로 강원의 필수 과목이기도 하다. 고봉화상의 게송 하나를 읽어 내리는데 잘 알려진 것이었다.

해저니우합월주(海底泥牛啣月走)
암전석호포아안(巖前石虎抱兒眼)
철사찬입금강안(鐵蛇鑽入金剛眼)
곤륜기상로자견(崑崙騎象鷺鷥牽)

이 게송은 일반적으로 "바다 밑 진흙소는 달을 머금고 달아나고 바위 앞 돌 호랑이는 새끼를 안고 졸고 있다. 철 뱀은 금강신장의 눈을 뚫고 들어오고 곤륜산을 탄 코끼리를 백로가 끌고 간다"는 정도로 해석 하고 있다. 격외 경지를 상징하는 선시라 알려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의룡 스님은 다르다. "바다 밑의 진흙소는 달을 머금으려고 달려가거늘 바위 굴 앞의 돌 호랑이는 새끼를 안고 졸도다. 금 뱀이 금강안을 뚫고 들어오고 곤륜이 탄 코끼리를 갈매기(새)가 끄는 도다"라 해석한다. 그리고 이 게송 이야말로 여래선의 수행법을 잘 설명하고 있는 것임을 날날의 시어들이 갖는 상징을 풀이하며 설명했다.

바다 밑은 단전을 의미하고 진흙소는 물의 기운을 말한다. 달은 높은 곳이니 단전의 물기운을 위로 끌어 올리는 호흡법을 설명하는 것이라는 것이다. 다음 행의 돌 호랑이는 우리 인간의 마음자리이고 새끼는 바로 그 마음자리 속의 불성이다. 즉 돌 호랑이가 새끼를 안고 존다는 것은 부처가 아기부처를 안고 조는 것으로 우리가 마음자리에 불성을 품고 있음과 그 불성이 나날이 자

> **성급하게 부처되겠다 생각 버리지 않으면 그 욕심 때문에 아무것도 이루지 못해**

라는 것(아기가 자라듯)을 뜻한다. 돌이란 움직이지 않는 것이다. 부동심(不動心)인 것이다. 쇠로 된 뱀은 광명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광명이 눈에 들어오는 것은 지혜의 광명을 본다는 것이다. 마지막 행의 곤륜은 도의 경지이며 이것을 태운 코끼리는 수행자이다. 도를 태운 수행자의 정진은 코끼리를 새가 끌고 가듯이 느리게 마련이니 수행은 성급하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아래의 물 기운은 위로 올리고 위의 불기운은 아래로 내리는 호흡법으로 자기 내부의 법륜을 굴리는 수행을 하면 그 속의 불성자리가 아이 자라듯 하여 마침내 지

의룡스님은 남들 앞에 나서거나 큰 절의 주지를 하려고 애써 본 적이 없다. 황악산 직지사 대가람의 가장 뒤편에 자리한 벽안당에서 있는 듯 없는 듯 조용히 정진 하는 것이 스님의 가풍이다. 그러나 한 때 경전 공부를 위해서라면 어디든 달려가는 열정을 보이기도 했다. 용주사에서 관응 스님에게 〈금강경〉을 배웠고 오대산으로 달려가 탄허 스님에게 〈원각경〉을 배웠다. 나머지 이력은 전강은사인 명봉스님에게서 마쳤는데 그 후 스님은 서울의 불광동에 작은 암자를 마련하고 35년이나 홀로 지냈다. 홀로 정진할 토굴의 자리를 불광동으로 정한 것은 순전히 동네 이름 때문. 그래서 암자를 지을 때 상량문에 '부처님 광명이 이 땅에서 나와 삼천대천세계를 비추게 하리라(佛之光明 出於此地 普照 於 三千大天世界)' 라는 구절을 손수 지어 넣기도 했다.

울타리도 치지 않은 작은 암자에서 홀로 지내던 어느 날 스님은 선정 삼매에 빠졌었다. 사흘 후에 선정에서 깨어나 오묘한 마음자리를 드러낼 시 한수를 지었다.

홀좌중도삼매지(忽坐中道三摩地)
당처열반시화장(當處涅槃是華藏)
월인천강강강월(月印千江江江月)
불현만상상상불(佛現萬相相相佛)

홀연히 중도 삼매에 앉으니
그곳이 열반이고 여기가 화장세계라.
달이 천강에 도장을 찍어 강마다 달이요
부처가 만 가지로 나투시니 모양마다 부처로다.

이 시를 보고 건당은사인 서운 스님은 "자네가 오도송을 지었네"라며 칭찬했고 전강은사인 명봉 스님은 "불성 자리를 보았다"고 격려를 했다.

임연태 기자 ytim@buddhapia.com



정운스님의 스님이야기

명성스님

(전호에서 계속)

스님은 절대 사람을 내치지 않는다. 학인시절은 스님노릇을 시작하는 출발점이다보니 문제가 가끔 발생한다. 당시 우리 반에 대중을 소란스럽게 하는 스님이 있었다. '학칙에 의거하고, 대를 위해 소를 희생하면 모두가 편안한 강원생활을 할 수 있지 않느냐'며 '이 스님을 내보내야 한다'고 여론이 들끓었다. 마침내 반 공사를 하였고, 반을 대표하는 학인들이 학장스님을 찾아뵈었다. 이 때 스님께서는 "강원교육은 스님 생활의 기본을 익히는 곳이고 공부하는 도량인데, 이곳에서 나가면 어디서 그 학인이 구제될 수 있겠느냐?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며 수행자로서 서로를 보듬고 살아야 하지 않느냐"며 간곡히 타이르셨다. 중생의 삶에 어찌 옳고 그른 것이 있으랴. 깨닫지 못한 자의 삶은 세월이 흐른 뒤에 정확히 시비를 판단할 수 있다. 학장스님의 말씀이 옳았다. 한 사람을 살리는 길이 아니던가.

내가 운문사에 살 때도, 학인들이 방에서 소란



스럽게 떠들거나 웃어도 스님께서는 "왜 이렇게 떠드느냐? 조용히 하라"고 걱정하시는 법이 없었다. 근래 운문사를 졸업한 후배 말에 의하면 스님께서 머무시던 방이 학인들과 가까이 있는데 여름에도 문을 닫고 사신다고 했다. 즉 "학인들이 쉴 때는 자유롭게 쉬어야지 당신 때문에 학인들이 불편해서는 안된다"는 배려 때문이다.

선사상에서는 '사위의(四威儀;行住坐臥)가 도량이요, 3業이 불사' 라고 한다. 수행자는 주위여건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의 도량을 키우는데 관심을 두라는 것이지만 형이학적으로 보면, 현실적인 여건도 갖추어져야 수행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다.

한국의 큰 절들이 대부분 비구도량인지라 비구니스님들의 선방은 콩나물 시루 같은 공간인 반면, 운문도량은 어느 총림 못지않은 비구니도량이다. 운문사엔 학인 250명에, 재가자 20~30명을 합치면 근 280명이 상주한다. 그 많은 대중이 살아가는데도 넉넉한 도량으로 불사가 이루어졌으며 한국불교를 짊어진 비구니스님들이 공부하는데 빈틈없는 체제를 갖춘 승가대학으로 우뚝 서 있는 것은 전적으로 학장스님의 공이다.

제자들이 어긋나는 발언을 하거나 대중공사에서 의견이 맞지 않을 경우가 더러 있다. 이때마다 스님께서는 "내가 잘못 가르쳐서 이런 일이 생긴 것"이라며 그 책임을 당신에게 돌리신다. 학인시절에는 이 어른께서 대중을 조용하게 무마시키려는 무기(?)인줄 알았는데, 이것이야말로 그 많은 대중을 이끄는 힘, 즉 리더십인 것을 알겠다.

명성스님에게는 따뜻한 인간적인 향기가 풍긴다. 제자가 수술을 하거나 좋지 않은 일을 겪으면 개인적으로 꼭 관심을 표하신다. 강원을 졸업한 대학생 제자들을 우연히 만나거나 혹 제자들이 찾아가면, 당신 상좌들이나 신도들이 주신 쌈지돈을 내놓곤 하신다. 스님께서는 표현은 잘 하지 않으시지만 정이 많으시다. 1년에 한 반씩 졸업하는 학인들을 떠나보낼 때도, 스님은 먼 발치에서 바라보며 늘 가슴아파 하셨다.

얼마 전 열린 '한국의 선서화전' 에 작품이 전시될 만큼 스님의 붓글씨는 명필이다. 옛날에는 스님께서 기거하시던 방이 도서관(회성당)옆이었다. 그 도서관은 책도 읽고, 붓글씨를 쓰는 장소로도 이용되었다. 어느 날 귀한 손님이 찾아왔다. 나는 점심시간에 도서관에서 책을 보고 있는데 스님께서 손님에게 글을 써 주시려고 하셨는지 먹을 갈라고 하셨다. 먹을 갈다가 볼일이 있어

제자들끼리 의견 엇갈리면 "내가 잘못 가르쳐 이런일이…"

나갔다가 잠시 후 돌아와 보니, 아뿔사! 벼루와 먹이 딱 붙어버린 것이 아닌가. 떨려고 해도 떼어지지 않아 끙끙거리는데, 스님께서 마침 들어오셨다. 꾸지람을 하실 줄 알았는데, "사람도 죽고 사는데, 뭐 이런 걸 가지고 그러느냐" 도리어 나의 불안한 심기를 어루만져 주셨다.

이후 스님의 이 말씀은 나의 생활터전 한 자락에 오랜동안 자리를 잡았다. 수행자로서 무엇이 중요한 것이며 어떤 것이 가치있는 판단인가 라는 나름대로의 가치관을 형성시킨 계기가 되었다.

스님께서는 유식분야의 권위자다. 그러나 스님은 실줄과 날줄의 엮임처럼 완벽한 불교학의 패러다임을 갖추고 계신다. 어떤 질문에도 막힘이 없다. 어쩌다가 모르는 질문을 받기도 하는데, 이때는 스님께서 웃으시며 "모른다"는 솔직한 답변을 하신다.

내가 화엄반에 있을 때의 일이다. 절 집으로는 먼 사숙뻘되는 어른이시라, 마침 내가 출가한 은사스님 절에 행사가 있어, 스님을 모시고 서울을 가게 되었다. 대구에서 서울까지 가는 4시간 내내 기차 안에서 스님께서는 책을 보셨다. 학자다운 이 끊임없는 노력이 있었기에 어떤 질문을 받더라도 막힘이 없으신 것이다. 그렇듯 스님께서는 지금도 변함없이 잠시도 경학을 손에 놓지 않는 열정을 갖고 계시다.

서울 니련선하원 한주

| 한국불교의 도약을 위한 원력과 실천 |

"제3기 불교최고지도자아카데미 수강생 모집!!!"

불교중흥을 위한 시대적 요구는 불교지도자의 양성에 있습니다. 이를 위해 부산불교최고지도자아카데미에서는 제 3기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이 과정은 불교최고지도자 양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최고의 교수진을 초빙하여 강의합니다. 이 과정을 수료하게 되면 명실상부한 불교계의 최고 지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동참을 바랍니다.

불기2546년 6월

부산광역시불교신도회 부설 부산불교최고지도자아카데미 학장 류 진 수

수강안내

입학자격	· 각 사암 주지스님이 추천한 자 · 각 사암 신도회 임원 및 임원을 역임한 자 · 불교신행단체 임원 및 임원을 역임한 자 · 불교대학 포교사 과정을 수료한 자
교육기간	2002년 6월 28일 ~ 2002년 12월 13일 (6개월)
교육일시	매주 금요일 오후 7시 ~ 8시 30분
교육장소	부산불교회관 5층 강당
원서접수	2002년 6월 26일까지
모집인원	80명
구비서류	입학원서 1통(소정양식), 반명함판 사진 2매
원서교부 및 접수처	부산불교신도회 사무국(051-853-2021, 464-2020)
전형방법	서류전형
합격자 통지	2002년 6월 27일(수)
입학식	2002년 6월 28일(금) 오후 7시
등록금	35만원(입학금 50,000원 수업료 300,000원)
등록금 납부	2002년 6월 28일(금)까지
하계방학	2002년 7월 26일 ~ 8월 2일(2주간), 9월 26일(추석)

주요강사진

고 산 스님	해인정사 조실	강동균	동아대 교수
지 안 스님	통도사 전 강주	최봉수	동국대 교수
도 업 스님	동국대 교수	이 만	동국대 교수
예 능 스님	해인사 율원장	박인성	동국대 교수
지 현 스님	송광사 율원장	권기종	동국대 교수
안 탑 스님	문수사 회주	김상현	동국대 교수
홍 선 스님	중앙승가대 교수	박광서	서강대 교수
성 본 스님	동국대 교수	채상식	부산대 교수
월 호 스님	황계사, 국사암 주지	정병조	동국대 교수

▶특강 : 안상영 부산광역시장, 설동근 부산광역시 교육감

교과내용

불교사상론	반야사상 천태사상 정토사상 화엄사상 법화사상 중관론 유식론	특 강	불교지도자의 시대적 사명 바람직한 중교교육방향 법과 중교와의 관계
지도자론	불교지도자의 리더십 재가불교의 역할과 방향 불교지도자의 자세와 조직관리		
포교론	불교사상의 재인식 현대불교의 방향 불교와 사회참여 비교 중교학 불교와 과학, 불교의 보편성		

부산광역시불교신도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양정 2동 157-1 전화 051)853-2021, 2020 팩스 051)853-2036



조선불화 특별전 … 최고의 회화성

8월 30일까지 한국불교미술박물관서

사찰은 기도와 수행을 위한 공간이다. 그래서 사찰의 참배객들은 대웅전을 비롯한 각 전각들에 들어가서는 불상을 향해 기도나 절, 참선을 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다보니 보통 사찰에 가면 각 전각 안에 있는 불상에는 눈이 많이 머물지만 불화는 그냥 지나치기 십상이다.

이런 점에서 조선시대 불화를 한 자리에 모아 8월 30일까지 전시하고 있는 한국불교미술박물관의 '제1회 조선불화특별전'은 불자들에게 특별한 의미로 다가올 수 있다.

국가적 차원에서 조성됐던 고려시대 불화와는 달리 억불 상황의 조선시대 불화는 소박하고 정교하면서 은은하고 잔잔한 기풍을 띤다.

이번 전시에서는 '금선묘아미타삼존도', '석가모니후불탱화' 등의 여래탱화와 '의겸등필수월관음도', '지장시왕도' 등의 보살탱화, '영장사제석도', '신신도' 등 총 23점을 선보이고 있다.

여래·보살탱화 등 23점 선뵈

소박·정교·은은한 기풍

이중 의겸이 그린 '의겸등필수관음도'는 고려시대에 많이 제작된 '수월관음도'의 도상을 충실히 따르면서도 밝고 선명한 색채와 우아하고 세련된 조선시대 특유의 불화 기법으로 표현해 수월관음도 중 가장 뛰어났다고 평가받고 있다. 특히 98년에는 미국 뉴욕의 메트로폴리탄박물관 한국실 개관기념으로 전시돼 관람객들의 발길을 붙잡기도 했다.

문명대 교수(동국대 미술학과)는 "조선시대 불화는 고려시대 불화와는 달리 세계 최고의 회화성을 가지고 있는 작품들"이라며 "조선시대에 대형 괘불화와 대형 후불 탱화가 보편화 된 것과 색채가 다종다양해진 불화기법 등은 세계 어느나라의 회화보다도 차별화된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한국불교미술박물관 홍보담당 권형돈씨는 "'뷰티풀'을 연발하며 좋아하는 외국인 관람객들은 꾸준히 늘어나고 있지만 월드컵 열기 때문에 국내 일반 관람객들은 다소 줄어들었다"며 "하지만 동국대와 동방불교대학 등 불교교육기관의 단체관람 문의는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2766-6000

◇조선시대 '수월관음도' 중 수작으로 꼽히는 '의겸등필수관음도'.

문화 담당= 김주일 기자 jkim@buddhapia.com



◇첼로 연주를 하고 있는 법현 스님.

이웃 위한 소리공양 무대

7월 5일 '더불어 사는 음악회'

첼리스트 법현스님의 '제5회 더불어 사는 음악회'가 7월 5일 오후 7시30분 세종문화회관 소강당에서 열린다. 석천 스님(대전 약불사 주지, 중요무형문화재 영산작법 제50호)의 법고로 문을 여는 이번 소리공양에서는 법현 스님이 첼로 솔로 연주와 노래 '피안으로 가는 길'을 선사한다. 이어 소프라노 백소영씨가 '문 리버'와 '남촌'을 부를 예정이다.

연하는 가수 유열씨가 법현 스님의 첼로 반주에 맞춰 뮤지컬곡인 '하늘을 나는 양탄자'를 부른다.

음악포교의 무대인 만큼 찬불가 순서도 마련된다. 불자가수 임부희씨가 '내마음 보살되어'와 '님이여'를 음성공양한다. 가야금연주가 정애순씨가 연주하는 '전설'과 '침향무'도 이번 음악회의 흥을 한껏 돋워줄 감칠맛 나는 무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법현 스님은 "음악을 통해 더불어 함께사는 실천의지를 되새기고자 마련한 자리"라며 "모든 대중들이 따라 부르며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소리공양 무대가 될 것"이라고 기획의도를 밝혔다. 또 스님은 "재소자 포교를 위해서 여주교도소 내에 합창단을 만들어 한 달에 두 번씩 연습하고 있다"며 "11월에는 재소자들을 위한 음악회도 열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2581-5404



◇동서양 음악의 영역을 넘나들며 활발한 음악 포교를 하고 있는 니르바나 실내악단의 연주 모습.

월드컵 출전국 민속음악 연주

니르바나 실내악단 정기연주회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한국 …. 모두 월드컵에 출전한 나라들이다. 니르바나 실내악단이 한·일 월드컵을 맞아 26일 오후 6시30분 국립극장 달오름극장에서 세계민속음악을 연주하는 '제5회 정기연주회'를 마련한다.

슈베르트의 다섯 개 독일춤곡을 비롯해 레스피기의 조곡 3번중 '이탈리아나와 시실니아나', 피아졸라의 탱고, 김대성의 '길노래'에 이르기까지 월드컵 출전국들의 민속음악을 들려준다. 특히 지난해 KBS교향악단 주최 국악관현악 작곡 공모에서 대상을 수상한 작곡가 김대성씨의 '길노래'는 한국의 전통 사물놀이를 현악기로 표현한 창작곡이다.

피치카토 폴카 등 춤곡들도 함께

이외에도 월드컵 출전국은 아니지만 루마니아나 그리스, 오스트리아의 민속음악도 감상할 수 있다. 바르북의 루마니안 민속춤곡, 스칼코타스의 세 개의 그리스 춤곡, 슈트라우스의 피치카토 폴카 등 다소 생소하긴 하지만 들으면 어깨춤이 절로 나는 신나는 춤곡들도 레퍼토리에 들어있다. 지휘는 매카도니아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수석지휘자 안드레이 안드리예프가 맡는다.

강형진 단장은 "올해의 정기연주회에서는 월드컵을 기념해 세계의 민속음악을 소개하는 무대를 마련했다"며 "각 나라의 전통이 담겨있는 민속음악의 진수를 펼쳐 보이겠다"고 의욕을 보였다. ☎2541-6234

문화소식

상하이 국제영화제서 영화 '동승' 각본상 수상

영화 '동승'이 16일 끝난 '제6회 상하이국제영화제에서 호주의 '뮬렛'과 함께 각본상을 공동 수상했다. 이번에 각본상을 수상한 주경중 감독은 91년 광주민주화운동을 소재로 한 영화 '부활의 노래'를 제작한 데 이어 95년 호주 국립영화제작소 객원감독으로 활약하기도 했다.

또 9월에 개봉될 영화 '동승'은 21~30일 열릴 모스크바 영화제와 8월 말 개막될 몬트리올 영화제에도 초청됐다. 우리나라 영화가 상하이 영화제에서 수상한 것은 '서편제'로 감독상(임권택)과 여우주연상(오정해)을 차지한 93년 제1회 이후 처음이다.



◇시상식에서 트로피를 들고 있는 주경중감독.



김홍근이 쓰는

문학 속의 불교

월드컵 8강전인 한국과 스페인의 시합이 열리기 전 날이었다. 친구에게서 전화가 왔다. 스페인에서 살아보았으니 양쪽을 다 알 것이므로, 누가 이길 것으로 예상하느냐는 것이다. 별 싱거운 사람도 다 있다고 하면서, 나는 "골 많이 넣는 쪽이 이긴다."고 대답하고 같이 웃었다. 친구도 이제는 이기나 지나 상관없이 만족스러우니까, 느긋하게 경기를 즐기자고 화답했다. 그러고 보니 친구의 목소리도 좀 쉰 것 같고, 내 목소리도 칼칼한 게 정상이 아니다.

예선전까지는 집에서 편안히 보다가, 대 이탈리아 16강전 때는 길거리 응원의 역사적 현장을 놓치기 아까워서 거리로 나갔다. 망설였던 붉은 티셔츠도 하나 사 입고 광화문으로 나갔지만, 이미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어서 변변한 자리를 얻기 어려웠다. 마침 인사동에 있는 어느 공연장에서 스크린을 통해 볼 수 있다는 정보를 얻어 그리로 갔다. 눈 앞 가득 커다란 화면에는 푸른 잔디를 달리는 선수들의 모습이 경쾌하고, 스피커에서는 응원가가 우렁차게 흘러나왔다. 그 자리에 함께 있던 사람들도 모두 '대~한민국'을 따라 외치고 박수를 쳤다. 우리가 먼저 골을 먹고 초조하게 지켜보는데, 드디어 후반 막판에 기적처럼 동점골이 터졌다. 그리고 연장전 후반에 터진 골든 골! 모두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펄쩍 펄쩍 뛰었다. 종로 쪽으로 나오니까, 광화문에 있던 사람들이 밀려와 그 넓은 거리가 온통 붉은 물결로 넘실댔다. 가만히 서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 수많은 사람들이 환희에 넘쳐 춤을 추는 가운데, 거리의 축제는 끊없이 계속되었다.

히딩크와 자기개발

우리속에 무한한 능력 스스로 히딩크가 돼 잠재된 소질 발견하고 개발하는 것은 각자 몫

나는 우리 선수들이 승리를 거두는 순간, 좀 엉뚱한지는 몰라도, "우리는 본래 부처이다"는 희망을 확인했다. 그동안 유럽 팀과 맞붙어 숨하게 패배했지만, 우리의 본질 자체가 모자랐던 것은 아니었다. 우리에겐 본능적인 소질(佛性)이 숨어있었고, 좋은 감독을 만나 착실히 실력을 쌓아 올리고 국민들의 염화 같은 성원을 받는 성숙한 인연을 맞아 그 씨앗이 찬란히 꽃핀 것이다. 기쁜 일은 그 역사적 순간이 바로 지금 일어났고, 우리 모두가 당당한 주인공으로 참여했다는 사실이다.

전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은 이 거대한 축제의 한복판에 외국인 감독 히딩크가 있다는 사실은 재미있다. 말하자면 그는 한국 축구의 선지식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내면 속에 잠재해있는 소질을 살려낼 수 있는가 하는 전범을 보여주었다. 그 전범은 축구뿐만 아니라 많은 다양한 분야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마치 하나의 물결이 일자 수만의 물결이 뒤따르는 것(一波萬波)처럼, 마치 동산 위에 둥근 달이 떠오르자 수천의 강물마다 달의 도장이 찍히는 것(月印千江)처럼, 히딩크식 지도방법은 우리 사회의 각 방면에 응용되어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큰 공헌을 할 것이다. 한국축구는 우리 속에 무한한 능력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었다. 그리고 열과 성을 다하여 가꾸면 반드시 꽃핀다는 것도 증명했다. 이제 스스로 히딩크가 되어 자신 속에 잠재된 소질을 발견하고, 개발하는 것은 각자의 몫이다. 불문학명론가

'조상령 및 유산아천도 49재 지장기도 법회'

한국의 대표적인 '지장기도 도량'으로 보개산 심원사를 꼽는 데는 두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심원사에 모신 지장보살 불상은 생(生) 지장보살이시며, 둘째, 석불로된 지장보살님이 계신 국내 유일한 도량이기 때문입니다.

이 보개산 심원사가 백중을 맞아 '조상령 및 유산아천도 49재 지장기도 법회'를 대대적으로 엽니다.

영가의 세계는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이 영가천도에 대해 무심하게 지내 버립니다. 그러나 우리들 주변에는 천도 받기를 원하는 무수한 영가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나아갈 길을 몰라 굶주림과 극심한 고통을 받으며 떠돌고 있는 것입니다.

더구나 영가의 장애는 뜻밖에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영가 때문에 고통을 받거나, 애는 애대로 쓰면서도 잘 풀리지 않는 경우를 많이 접하게 됩니다.

영가는 추방당해야 할 존재가 아니라 구제를 해주어야 할 또 하나의 중생입니다. 오히려 장애를 심하게 일으키는 영가일수록 안착해야 할 세계로 가지 못하는 불쌍한 중생인 것입니다. 그래서 천도재는 말 뜻 그대로 영가들이 피안의 세계로 나아가도록 잘 인도하는 여법한 의식인 것입니다.

특히 유산아 천도의 기본자세는 참회입니다. 정성껏 참회하는 시간이 쌓이면 모든 원결은 저절로 녹아 풀려지고 제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조상 대대의 축원 속에 태어난 우리는 우리를 위해 무한한 축원과 정성을 다 바쳤던 선대의 영가들과 세상의 빛도 못본 유산아 천도 지장기도에 동참하셔서 기도 성취하시고, 무량복덕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 입재 : 2002년 6월 30일(음력 5월20일 · 일요일) 오전 9시 30분
○ 초재 : 2002년 7월 7일(음 5/27 · 일요일) 오전 9시 30분
○ 2재 : 2002년 7월 14일(음 6/ 5 · 일요일) 오전 9시 30분
○ 3재 : 2002년 7월 21일(음 6/12 · 일요일) 오전 9시 30분
○ 4재 : 2002년 7월 28일(음 6/19 · 일요일) 오전 9시 30분
○ 5재 : 2002년 8월 4일(음 6/26 · 일요일) 오전 9시 30분
○ 6재 : 2002년 8월 11일(음 7/ 3 · 일요일) 오전 9시 30분

● 회향 : 2002년 8월 18일(음력 7월10일 · 일요일) 오전 9시 30분
○ 백중법회 : 8월23일(음력 7월15일 · 금요일) 오전 9시 30분
※ 철야정진기도 : 매주 토요일 오후 7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 버 스 운 행 : 매주 토요일 오후 5시와 일요일 오전 7시에 조계사 앞에서 심원사행 버스가 출발합니다. (예약 문의 018-357-4400)
※ 대중교통 안내 : 수유리 시외버스터미널에서 심원사행 버스가 수시로 있습니다.

〈심원사 종무소〉 강원도 철원군 동송읍 상노 1리 72-1 033)455-3468

심원사 영험 實話 1

"생불 지장보살"

심원사 지장보살님께서 살아계시는 생불임은 〈심원사 사기〉가 역사적 사실로 생생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282년전인 720년 어느날, 이순석 이순애 형제 사냥꾼은 지금의 심원사가 위치한 보개산에서 사냥을 하다가 멧돼지를 발견하고 화살로 쏘아 맞췄습니다. 멧돼지는 죽지 않고 피를 흘리며 달아나다가 환희봉 아래에서 순간 사라져 버렸습니다. 핏자국을 따라 멧돼지를 추적하던 형제는 멧돼지는 없고 대신 우물 속에서 자신들이 쏜 화살이 팔에 꽂힌 석상을 발견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형제는 석상에서 화살을 뽑으려 애를 썼으나 화살은 뽑히지 않았고 석상은 계속 피만 흘릴 뿐이었습니다. 그 순간 형제는 크게 깨닫고 "대성이시여 저희, 잘못을 깨우치러 몸소 나투신 것을 몰랐습니다. 다시는 살생을 아니 하겠습니다."하고 그대로 출가하여 스님이 되었습니다.



국내 유일한 생(生)불이신 심원사 지장보살님

이처럼 멧돼지로 화현하셨던 그 우물속의 석불이 바로 현재 심원사에 봉안되어 계신 생(生) 지장보살이십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심원사 주지 도후 합장

선사시대 암각화~조선민화 180점

우리그림 백가지

박영대 지음





◇이상좌 作 '나한상'. 종이에 수묵. 호암미술관 소장.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화가는 누구일까.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80%가 고흐를 꼽았다고 한다. 서양그림에 대해서는 각종 미술 유파와 역사뿐 아니라 누구의 작품인지를 척척 맞히면서도 정작 우리 그림을 대하면 할 말이 적어진다. 이중섭이나 박수근 같은 유명한 근대 화가의 작품이 아니라 고려, 조선시대의 그림이라면 더욱 그러하다.

현암사의 '우리가 정말 알아야 할' 시리즈 18번째 책 〈우리 그림 백가지〉는 한국화가 박영대 씨가 선사시대 암각화에서 조선 말기 민화에 이르는 180점의 그림을 뽑아 94개의 이야기를 덧붙인 것이다.

우리는 옛것을 통해 우리 것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동시에 새로운 것을 창출해 내는 힘을 얻는다. 옛 그림을 보는 이유 또한 여기에 있을 것이다.

작가·작품·시대적인 배경 등 설명

고승 진영·변상도·불화 조명

1장 '맑고 고요한 빛'은 선사시대부터 고려시대까지의 그림을 모았다. 반구대암각화와 고분벽화, 백제의 산수문전을 비롯해 통일신라시대의 화엄경변상도와 고려시대 불화를 담고 있다. 2장 '삶 혹은 꿈의 기록'은 안견의 '몽유도원도', 신사임당의 '초충도' 등 조선 초기 작품을, 3장 '밝고 너그러운 마음'은 김명국의 '달마도'와 김홍도의 '기우서인도' 등 조선 중기의 그림을 소개했다.

4장에서는 '조선의 멋과 맛'에서는 윤두서의 '노승도'와 신윤복의 '미인도' 등 조선 후기 작품을 감상할 수 있고, 5장 '그림의 깊이와 넓이'에서는 장승업의 '고사세동도', 김정희의 '세한도' 등 조선 말기의 작품을 만날 수 있다.

지은이는 작가와 그림이 그려진 시대적 배경, 그림에 대한 꼼꼼한 설명으로 우리 그림에 녹아 있는 강한 생명력과 아름다움을 보여준다. 특히 장엄과 예배의 대상으로 여겼던 신라시대의 변상도와 극락세계를 그림으로 표현한 '관경변상도', 고려불화의 백미로 꼽히는 수월관음도 등을 '그림'으로 바라보고, 어떤 내용을 형상화했으며 어떻게 감상해야 하는지를 설명하고 있다.

조선시대의 그림도 눈길을 끈다. 남의 집 종이었으나 그림 실력을 인정받아 중앙에서 활동한 이상좌의 '나한상'은 조선 중기의 문신 허목이 '백 세대가 지난 후라도 이 그림을 알아보는 이가 있어 능히 사랑하게 될 것'이라 평했을 만큼 현대적인 느낌을 준다. 윤두서가 실제 노승을 집안에 불러 놓고 그렸다는 '노승도'와 국립중앙박물관에 있는 작자미상의 '서산대사 초상'은 한 장의 그림으로 고승대덕의 청정한 내면세계를 보여준다. 값 2만5천원.

출판 담당= **여수령 기자** snoopy@buddhapia.com

시 선 원성 글/사진



동승의 작가 원성 스님이 어머니 금강 스님과 함께 인도로 떠났다. 이번에는 그림이 아닌 사진에 인도의 풍광을 담아왔다. 〈시선〉(이레)은 원성 스님이 인도에서 찍은 사진과 불교 성지를 순례한 느낌을 적은 글을 함께 실은 책이다.

성지순례중 느낌

인도풍광 함께 실어

석가모니 부처님이 탄생한 룸비니 동산과 가장 오래 기거했던 기원정사, 최초의 불교사원 죽림정사 등 불교 성지와 그곳에서 만난 릭샤꾼과 차 파는 아저씨, 옥수수 파는 소년 등의 모습을 정감 어린 시선으로 담아냈다. 동승을 그려온 화가답게 그의 시선은 인도의 아이들에게 오래 머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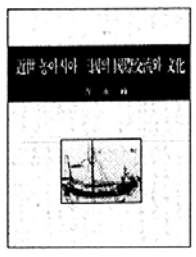
마주치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 미소 짓는 '아들 스님'과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기 위해 전기밥솥과 쌀을 챙기는 '어머니 스님'이 도반이 되어 떠난 순례길에서 인도의 또 다른 모습을 볼 수 있다. 값 9천원.

화산 용주사

효행 도량으로 유명한 화산 용주사는 정조가 비명에 숨진 아버지 사도세자의 명복을 빌고자 묘를 화산으로 옮긴 후 1790년 세운 능사(陵寺)로, 국보 10호인 범종과 단원 김홍도가 그렸다고 전하는 후불탱화 등을 간직한 고찰이다.

문예마당이 30권을 기획하고 펴내는 '가족과 함께 떠나는 사찰여행' 일곱 번째 권인 〈화산 용주사〉는 용주사의 창건 유래와 설화, 가람배치, 용주사의 말사인 봉녕사와 용주사 주변의 볼거리를 소개하고 있다. 값 4천원.

근세 동아시아 삼국의 … 조영록 지음



교류사라는 관점에서 조선시대 불교와 명대 불교를 비교한 지은이는 '유불 합일'에서 공통점을 찾는다. 하지만 차이는 있다. 명나라가 성리학을 대도(大道)라 하여 관학으로 삼으면서도 불교와 도교를 소도(小道)로 부르며 적극 수용한 반면, 조선시대 사대부는 성리학 이외의 것을 인정하지 않았다. 지은이는 조선시대 대표적 승려인 사명당 휴정을 '유불 합일론자'로 규정하면서도 이는 유가의 질서와 편견으로부터 불교를 보호하기 위한 성격이 짙다고 파악한다.

교류사 관점서 조선·明 불교 비교

조선과 명나라는 여러 면에서 닮은꼴이다. 성리학을 치국 이념으로 삼았고, 그 결과 '불교의 쇠퇴기'란 표현이 어색하지 않은 것도 한 부분이다. 하지만 유교를 신봉하면서도 두 나라 사대부의 사상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조영록 전 동국대 사학과 교수가 최근 펴낸 〈근세 동아시아 삼국의 국제교류와 문화〉(지식산업사)는 명대 정치사상사 전공인 글쓴이가 한·중·일 문화 교류와 관련해 그동안 발표한 논문을 모은 책이다. '동아시아 삼국의 국제질서와 교류' '조선 사대부 사회의 이념과 동아시아' '근세 동아시아 유불의 갈등과 조화' 등 3부로 구성돼 있으며 중국 내 한국관련 불적 답사기를 부록으로 실었다. 값 1만8천원.

권형진 기자 jinny@buddhapia.com

동과 서의 차 이야기 이광주 지음



산지를 알아맞혀 상을 주는 상미(嘗味) 경기와 차의 맛과 향, 색과 형태를 비교해 우열을 가리는 투차(鬪茶) 놀이가 유행했다.

유럽에 차와 커피가 등장하기 전의 대표적인 기호품은 와인과 맥주였다. 당시 파리는 연간 100일의 페스티벌로 시민들이 술독에 빠진 채 몽롱한 상태로 지냈다. 그런데 차와 커피가 유럽을 바꿔놓았다. 살롱과 선술집을 카페가 대신했다. 중세적인 칼과 술의 전사(戰士)문화에 종지부를 찍고 유럽인들이 순식간에 교양인으로 변모하는 순간이었다. 그것은 우아함을 지닌 고급 사교문화의 탄생을 의미한다.

중국茶詩 등 차에 얽힌 이야기

중국 후저우의 태수가 부임길에 차의 달인 육우와 마주쳤다. 육우가 난링(南嶺)의 물을 높이 산다는 것을 안 태수는 육우와 차 한 잔을 마시기 위해 하인들을 난링에 보내 물을 떠오게 했다. 얼마 뒤 가져온 물을 한참 살펴보던 육우는 "이것은 양쯔 강의 물이기는 하되 다른 물이 섞여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자 심부름꾼이 크게 놀라며 "배가 흔들려 물이 절반가량 쏟아져 버려 다른 강가의 물을 보탰다"고 고백한다.

다인들 사이에 좋은 물을 병에 담아 선물하는 풍습은 육우로부터 생겨났다고 한다. 또한 중국에서는 차를 마신 뒤 차 이름과 달인 물의 〈동과 서의 차이야기〉를 지은 이광주 교수(인제대)는 양 문명의 차 문화 특징으로 동양은 놀이, 서양은 사교를 든다. 한가로움과 향차를 노래한 중국의 다시(茶詩), 일본 다도의 미학, 세계적 보험회사인 로이스사의 이름이 1680년 '로이스 커피하우스'에서 유래했다는 등의 이야기거리들이 가득해 책 읽는 즐거움을 더해준다. 값 2만원.

스테디셀러 다시읽기

어린이 천수경

'수리수리 마하수리 수수리 사바하'는 무슨 뜻일까? '신묘장구대다라니'와 '참회진언'은 왜 외워야 하는 걸까? 아니, 그까닭은 몰라도 아이들은 '수리수리 마하수리'만으로도 즐거워한다. 그 즐거움을 불교에 대한 길잡이로 삼을 수는 없을까?

어린이들에게 불교의 가르침을 쉽고 재미있게 전할 수 있다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어린이 불서 출판은 그리 활발하지 않다. 출판 비용이 일반 단행본에 비해 월등히 많은데도 판매는 저조하기 때문이다.

불광출판사가 펴내는 어린이 불서 '꿈나무' 시리즈 중 〈어린이 천수경〉은 동국대학교 김호성 교수가 글을 쓰고 이정문 씨가 그림을 그린 책이다. 머리말에서 지적한 대로 '어린이들이 책을 잘 안 읽고, 동시는 더욱 안 읽는 현실' 속에서 '어떻게 어린이들에게 천수경을 읽게 할까'를 고민한 지은이가 천수경의 내용을 동시로 풀이했다.

'천수경 이야기' 100만인 읽기운동을 펼치며 천수경 신행운동을 펼쳐온 지은이는 천수경을 한글로 옮기고 1992년에는 〈천수경이야기〉(민족사)를, 94년에는 〈어린이 천수경〉을 펴냈다. 또한 천수경에 입각한 참회의식인 '천수예참'을 고안하기도 했다.



내용 동시로 풀이

진언 외우는 까닭

일화 들어 설명

천수경은 관세음보살이 부처님의 허락을 받고 모든 중생을 안락케 하고, 장수와 풍요를 얻게 하며 일체 청정한 법과 모든 공덕을 증장시키기 위해 설법한 내용은 담은 것이다. 이 다라니를 독송하고 지키면 일체 업장이 소멸되고 일체의 귀신이 침입하지 못하게 된다고 하여 오늘날 일반 신자들이 가장 많이 독송하는 경전이기도 하다.

지은이는 책에서 천수경의 내용과 진언을 외우는 까닭을 여러 일화를 들어 설명한다. 재미있는 우화에 이정문 씨의 삽화가 함께 엮어져 어린이들이 지루하지 않게 읽으며 천수경을 익힐 수 있다.

또 '한자공부'란에서는 경전에 나타나는 한자의 뜻을 적고, '도움말'을 두어 천수경 본문이나 동시의 내용을 알기 쉽게 풀이하고 있다. 아이와 어린이 함께, 또는 어른이 읽어도 재미있을 책이다. 값 5천5백원.

◇금주의 베스트불서 10

책방 여시아문 집계

순위	도 서 명	저·편자	출 판 사
1	마음은 없다	데이비드 가드먼	탐 구 사
2	화(Anger)	틱 낫 한	명진출판사
3	영가천도	효 림	좋은인연
4	신묘장구대다라니강해	임 근 동	솔 바 람
5	달라이라마의 행복론	류 시 화	김 영 사
6	산중에서 길을 물었더니	서 화 동	은행나무
7	성철스님 시봉이야기1	원 택	김 영 사
8	극락은 있다	관 정	붓다의 마을
9	마음에는 평화 얼굴에는 미소	틱 낫 한	김 영 사
10	찻잔 속에 달이 뜨네	지 운	도서출판 담앙장

도서 안내:(02)737-0695

법안명상기공지상강좌
변형국판, 72쪽, 값 : 8,300원
기공과 명상을 통해 깨달음에 이르는 수련안내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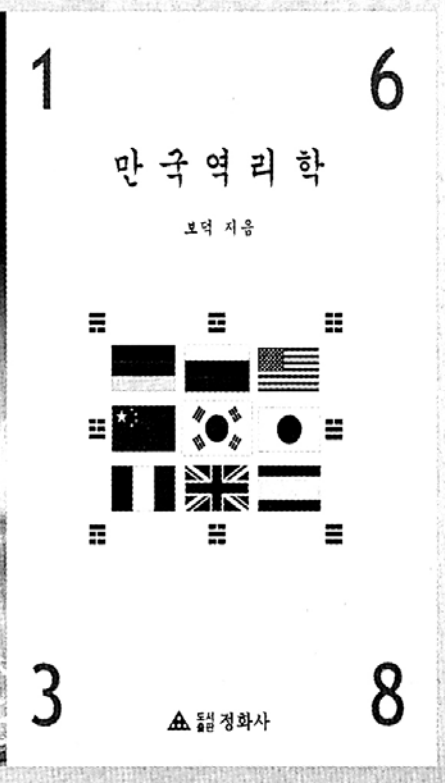
만국역리학
신국판, 112쪽, 값 : 6,300원
역의 원리를 통달해 9종 역리를 창안하고 만국인의 운세를 그 나라의 말과 글로 푸는 9종 운세 풀이서.

이름운세풀이
신국판, 160쪽, 값 : 7,200원
이 책을 보고 자신의 이름과 상호의 운세를 풀어보세요.
※ 대한민국 월드컵 본선 1차전 승리 예상 적중 69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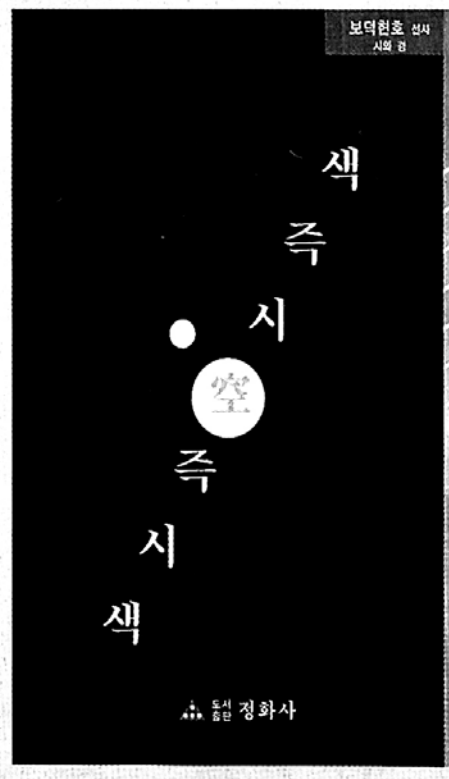
색즉시공즉시색
신국판, 112쪽, 값 : 5,400원
시와 경과 사진의 조화, 자연과 인간 그리고 깨달음의 조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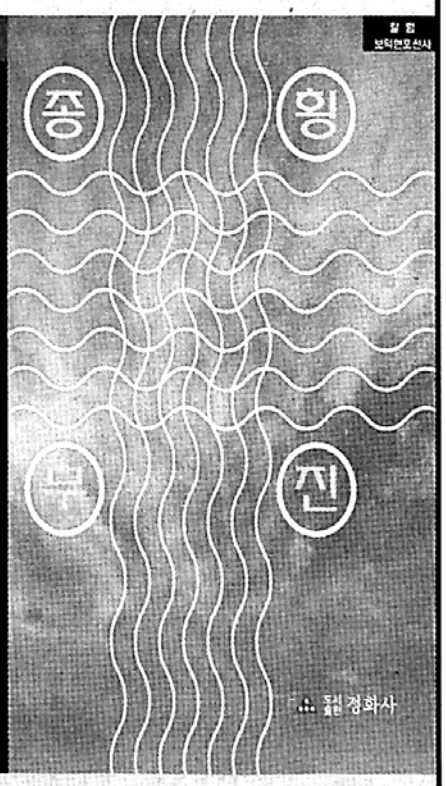
종횡무진
신국판, 192쪽, 값 : 6,800원
창조적 지혜로 현실을 바로보고 진실을 일깨워주는 21세기 지성인의 교양서











도서출판 정화사 (우) 339-834 충남 연기군 금남면 석교리 510 Tel : 041)867-4000 Fax : 041)867-4001 ● 전국 서점에 있습니다 ●

美 한국불교학 박사 모두 92명

스님은 7명…서경보 스님 첫 학위 취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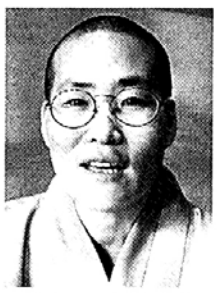
유옥철 씨 등 개신교 목사도 3명 포함

미국에서 한국불교학 관련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미주 현대불교>(6월호)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모두 92명이다.

한국불교학 관련 최초의 박사논문은 이상군씨의 '요한복음에서의 예수와 대승불교에 나타난 붓다의 비교'(달라스대, 1959)이며, 석사학위 논문은 중앙대 설립자인 임영신씨의 '한국이 불교국가에서 기독교 국가로 변한 주요 원인들'(남가주대, 1933)이다. 스님이 쓴 최초의 박사논문은 서경보 스님의 '조당집을 통해 본 한국선 연구'(템플대, 1969)다.



◇스님으로는 가장 먼저 박사학위를 받은 서경보 스님.



◇가장 최근에 학위를 받은 소운 스님.

박사학위를 받은 스님들은 서경보 스님을 비롯해 법안 지명 법타 진월 화공 소운 스님 등 7명에 달한다.

스님들의 박사논문은 △법안스님의 '원효, 원융의 이론'(뉴욕대, 1988) △지명스님의 '천태의 불이철학'(템플대, 1988) △법타스님의 '20세기 북한 불교에 대한 연구-한국 조계선의 전통과 사상'(서던 캘리포니아대, 1996) △진월스님의 '조선후기의 선사와 불모들'(캘리포니아 버클리대, 1998) △화공스님의 '중국에서의 한국 유식파 스님 원측-원측과 심경 주석서'(위스콘신 매디슨대, 2000) △소운스님의 '능가경 인도주석서에 대한 연구-중관과 유식사상'(하버드대, 2002) 등이다.

특이한 것은 유철옥(1976) 김득해(1978) 정희수(1994) 등 목사 3명의 논문도 포함돼 있다는 점이다. 목사들이 쓴 한국불교학 관련 논문은 △유철옥 목사의 '니시타 기타로스의 절대무'(보스톤대, 1976) △김득해 목사의 '임진왜란과 승병'(콜롬비아대, 1978) △정희수 목사의 '극락장엄경과 신라정토 불교의 형성'(위스콘신대, 1994) 등이다.

외국인들도 한국불교학에 대한 6편의 연구논문을 냈다. △UCLA대 버스웰 로버트 에반스 교수의 '한국불교 초기의 위경에 대한 연구'(버클리대, 1985) △고울드 존 이삭의 '14, 15세기 한국의 억불 논쟁'(하버드대, 1985) △웨슬레이언대 조나단 라이트 교수의 '백제불교의 역사와 조각미술에 대한 문화적 접근'(하버드대, 1976) △하와이대 오딘 스티브 교수의 '화이트헤드의 과정철학과 화엄불교의 해석'(스토니브룩 뉴욕대, 1980) △일본 도요 가쿠엔대 찰스 뮐러 교수의 '합허 기화스님에 대한 연구'(스토니브룩 뉴욕대, 1993) △맥 브라이드의 '동북아시아에서의 신라불교의식'(캘리포니아대, 2001) 등이다.

이를 시기별로 살펴보면 1984년을 분기점으로 박사 학위를 받은 사람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 최초의 박사 학위 논문이 나온 1959년부터 1983년까지 24년 동안 26명이 박사 학위를 받은 반면 1984이후 18년 동안 세 배에 가까운 66명이 학위를 받았다. 특히 90년대 들어서는 해마다 5~6명이 박사 학위를 받고 있다.

현재 미국에서 한국불교 또는 불교학 연구가 활발한 대학으로는 하버드대, 프린스턴대, 미시간주립대, 위스콘신주립대, 버지니아대, UCLA, 보스톤대, 뉴욕주립대 스토니부룩 캠퍼스, 켄사스주립대, 시라이대 등이 손꼽힌다.

학술담당= **권형진 기자** jinny@buddhapia.com

사이버 속의 나는 누구인가?

박재현 씨, 정체성 문제 불교가르침 통한 해답 제시

화쟁사상, 화해 아닌 소통으로 봐야

사이버 세상에서의 '나'는 과연 누구일까. 사이버 게임에서는 누구나 '최선'이거나 '최악'일 수 있다. 현실에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말과 행동을 가상 공간 속에서는 버젓이 하기도 한다. 요컨대 현실 속의 나와는 다른, 가상 공간 속의 또 다른 '나'가 존재하는 셈이다. 그렇다면 이 같은 사이버 시대의 세계관은 현실 세계에서와는 전혀 다른 것일까? 그리고 불교는 이런 의문에 대해 어떻게 답할 것인가?

20일 '정보화 사회에 대한 불교의 대응'을 주제로 열린 현대불교사회문화원 4차 포럼에서 '터부를 넘어서-사이버 시대의 화쟁사상-'을 발표한 박재현(서울대 강사) 씨는, 정체성이 문제가 되는 사이버 시대에는 소통의 목소리가 요구된다는 전제 아래 "불교가 낼 수 있는 목소리는 바로 소통의 목소리"라며 "원효의 화쟁 사상을 화해의 뜻이 아닌 소통의 의미로 파악할 때 그것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자기 정체성이 확장된 형태라 할 수 있는 민족성을 중심으로 논지를 전개한 박 씨는, 정체성을 자기에게만 있는 고유한 특성으로 파악할 때 민족성이라는 것 자체가 이미 배제와 차별의 기제로 설정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한다고 파악한다. 민족성을 명분으로 진행된 근대 제국주의에 이르면 정체성은 일체의 접근을 거부하는 '터부'로 바뀌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소통'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박 씨는 "사이버 시대의 문제는 사이버 세계의 가상됨이 문제가 아니라, 그러한 가상이 자신의 가상됨을 숨기거나 망각하게 하고 (존재하지도 않는) 실재의 모습을 모방하려는 데 있다"며 "전통적 실체적 세계관에서나 사이버 시대나 마찬가지로 관건은 화쟁, 즉 소통으로 귀결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박 씨는 이날 원효의 화쟁 사상을 통설과는 달리 '다툼과 대립의 화해'가 아닌 '소통'이라는 전제를 깔고 논의를 전개해 나가, 화쟁 사상의 개념을 둘러싼 새로운 논쟁거리를 제공했다. 박 씨는 계간 〈불교평론〉 2001년 겨울호에서도 〈십문화쟁론〉과 〈열반종요〉, 〈대승기신론〉 〈금강삼매경론〉 등에 나타난 '화쟁'의 용례를 통해 이렇게 주장한 바 있다.

"종교간 대화없인 세계평화 없다"

오강남 교수, 환태평양 한국학 학술회의서



전세계 한국학의 특징과 쟁점을 논의하고 21세기 한국학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제6회 환태평양 한국학 학술회의가 18~20일 열렸다.

16개국 80여 명의 학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근대 한국의 개발론' '근대 한국의 개발론' '근대, 근대성 고찰' 등 21개 세부 주제로 나눠 열린 이번 대회에서 특히 관심을 끈 분야는 '21세기 한국의 종교와 가치관'을 다룬 제3분과다.

〈예수는 없다〉 등의 저자로 널리 알려진 오강남(캐나다 레지나대, 비교종교학 · 사진) 교수는 '타종교에 대한 한국 기독교인의 태도-21세기 기독교인을 위한 분석과 전망-'에서 타종교에 대한 한국 기독교의 배타주의적 태도를 문제삼았다.

오 교수는 "전통적으로 한국의 일반 대중은 여러 종교에 비교적 관대한 편이었다는 것이 여러 사람의 공통된 견해였는데도 이렇게 유연하던 일반 대중의 종교적 심성을 현 기독교인들 사이에서는 찾아보기 힘들다"며 "한국 기독교의 과제는 다원주의적 시각, 개방적인 태도로 일대 방향 전환을 해야 하고 종교간 대화를 통해 내면적 성숙을 이뤄나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 교수는 "한국은 전통적 사상인 '한' 사상이나 원효의 화쟁론, 화엄 사상 같이 다원주의적 시각을 함양하고 고양하는 정신적 배경을 가지고 살아왔다"며 "종교간의 평화 없이는 세계 평화가 불가능하고, 종교간의 대화 없이는 종교간의 평화가 불가능하다"는 한스 큉의 말로 결론을 대신했다.



◇해인사 성보박물관이 7월 5일 개관한다. 사진은 조각실에 전시될 보물 999호 목조 희랑조사상.

해인사 성보박물관 내달 개관

연건평 1082평, 대장경 소개 · 연구 · 교육 특성화

사찰소장 불교 문화재 보호를 위한 성보박물관 건립이 활발한 가운데 해인사 성보 박물관이 5년여 공사 끝에 7월 5일 개관한다.

구 해인초등학교 자리에 들어선 해인사 성보박물관(관장 향적)은 지하 1층, 지상 2층 연건평 1082평 규모로 1층에 역사실, 조각실, 불화실, 공예실, 서화실 등 5개의 전시실과 지하 기획 전시실, 괘불 전시실, 2층 대장경 인행 체험실 등을 갖추고 있다.

해인사 성보박물관은 고려 팔만대장경이 있는 사찰답게 고려대장경에 대한 소개와 교육, 연구 분야를 특성화시켜 나갈 계획이다. 2층 전시실은 벽면부터 고려대장경과 관련된 벽화로 장식하고 세계적 비디오 예술가인 백남준의 고려대장경 비디오 아트 상영, 대장경 제작과정을 담은 디노라마, 대장경 인행 체험실 등이 들어선다.

해인사 소장 유물 중 그 동안 일반에 공개되지 않았던 국보급 유물들도 성보박물관 개관과 함께 대거 공개된다. 국보 32호 고려대장경판, 국보 206호 고려각판을 비롯해 사명당 휴정이 조선 선조에게서 하사받은 유물들과 보물 999호인 목조 희랑조사상, 추사 김정희가 직접 쓴 해인사 중건 상량문, 보물 1273호 영산회상도 등 모두 37점이 전시된다.

관장 향적 스님은 "성보박물관 개관으로 창고 속에 갇혀 있던 해인사의 성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보존할 수 있게 됐다"며 "팔만대장경 중심 박물관으로 키워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055)934-0988

학회소식

양양 선림원 사상과 불교미술

한국미술사연구소 학술대회

(사)한국미술사연구소(소장 문명대)는 7월 4일 오후 1시 30분 강원도 양양 낙산 비치호텔에서 '양양 선림원의 사상과 불교 미술'을 주제로 제6회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권기종(동국대) 교수가 '비문을 통해 본 선림원의 역사와 사상'을 발표하고, 문명대(동국대) 교수가 '선림원의 본존불상 문제와 석비로자나불상'을, 소재구 국립중앙박물관 학예연구관이 '선림원 삼층석탑의 조형적 특징과 의의'를, 최응천 국립춘천박물관장이 '신라 범종 양식 변천에서 차지하는 선림원종의 의의'를 각각 발표할 예정이다. 토론에는 정병조, 박도화, 최성은, 임영애, 이강근, 김정희, 김창균, 강순형 궁중유물전시관장이 참석한다.

'중국불교와 선의 언어' 주제

보조사상연구원 학술발표회

보조사상연구원은 29일 오후 1시 30분 동국대 덕암 세미나실에서 '중국 불교와 선(禪)의 언어'를 주제로 제46차 학술 발표회를 갖는다.

차차석(동국대 강사) 씨의 사회로 구고흥(중국 길림성대) 교수가 '청대 팽제청의 화엄정토사상 탐토'를, 서대원(연세대 강사) 씨가 '언의지변(言意之辯)과 교외별전'을 발표한다.

김진무(동국대 강사) 씨와 이덕진(고려대 강사) 씨가 각각 토론자로 나설 예정이다. (02)733-5315

2002년 춘계학술대회

한국동서비교문학학회

한국동서비교문학학회(회장 박경일)는 7월 6일 오후 1시 30분 경희대 본관 4층 세미나실에서 2002년 춘계 학술발표회를 연다.

박경일(경희대) 교수의 '동양담론은 공허한가?'에 이어 '〈연경별찬〉에 나타난 설잠 김시습의 문학과 사상'(이기운, 동국대) '미국의 불교 붐'(류황태, 동의대) '토니 모리슨의 원시적 시간 개념과 노장 사상의 무위자연적 시간'(이영철, 한양대) '동양적 상상력과 뒤랑의 신화적 상상력 비교'(한태호, 관동대) 등 5개의 논문이 발표된다. 학술발표회 후 간담회와 리셉션이 있을 예정이다. (02)2260-3123

특히, 수행하시면서 쉬 피로를 느끼실 때
복용하시면 반드시 효험을 보실 수 있습니다

민물장어엑기스

어린이나 노약자는 물론 허약하신분들
특히, 관절염 골다공증 환자분들에게 좋습니다.

민물장어는 인체에 필요한 필수지방산
불포화지방산 덩어리이면서 항암효과 피부미용
노화방지 시력보호에 효과가 뛰어난
비타민 A, D, E의 보고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또, 동충하초는 천식 악성 간염 위염
폐결핵 만성결핵 각종암에 항암 효과가
탁월하며 고혈압 당뇨 관절염 만성피로
노화방지 빈혈 허약체질에 약리효과가 있습니다.

「정진하는 맘으로 6시간이상 정성껏 다렸습니다」
- 지운거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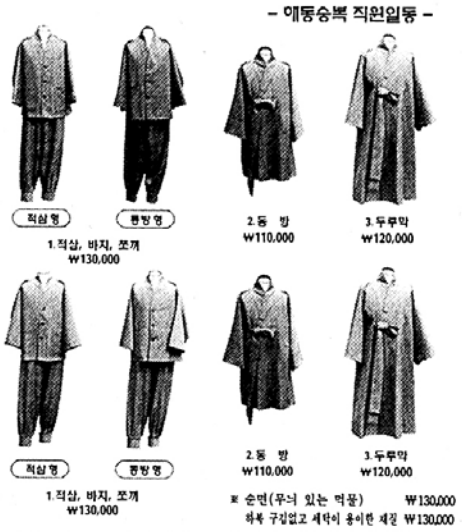
●민물장어 6kg + 동충하초 1개월분 120,000원 (택배비 포함)
●민물장어 6kg + 십전대보탕 1개월분 150,000원 (택배비 포함)

동천민물장어
연락처 051)643-8592 / 019)515-7239

승복, 법복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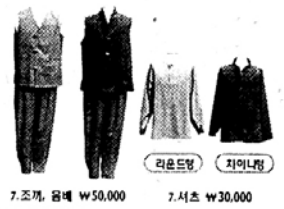
인연을 소중하게 생각하며 항상 처음 이라는 자세로 변함없이 제품 생산 · 연구에 임하는 저희 업체에서는 부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정성껏 제품을 만들었습니다. 고급 재질에 세련된 디자인으로서 저렴한 가격으로 스님 및 불자님들을 모시고자 합니다. 부족한 점이 있으시면 많은 지도편달 바라며, 최선을 다하는 업체가 되겠습니다.

- 애동승복 직원일동 -



※ 순면(무늬 있는 먹물) ₩130,000
하복 구김없고 세탁이 용이한 재질 ₩130,000
※ 장삼, 가사, 바랑 및 기타의류는 맞춤주문 받습니다.

조끼 · 윰베 셔츠



해동승복
대구 고속터미널 ↔ 동부정류장
대구광역시 동구 신천 4동 399-1
TEL : 053)741-8131
FAX : 053)741-8132
H.P : 011)549-8130
※ 지역 대리점 모집

속편안한세상

부건 속편 차(茶)

위 속편 茶는 약 6-7년전 산에서 수행하던 선도인(仙道人)의 비법으로 개발된 신비한 효험이 있는 차 입니다. 산에서 수행하는 사람들은 병이 나면 스스로 약초를 찾아서 질병을 다스리며 때로는 산에서 만난 속가의 사람들에게 약초나 약을 보시하여 질병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나 편안 하게 해주기도 합니다. 이 차는 수행하는 도인이 깊은 명상에서 찾은 비법인 만큼 그 효능은 굳이 설명이 필요치 않을 정도입니다.

- 산에서 산인(山人)이 개발한 차입니다.
- 일주일만 드셔도 속이 편안해집니다.
- 우리 산에서 자생하는 약초로 만들어서 효능도 좋습니다.
- 속편 차는 속이 불편하신 분만 드시라고 만들었습니다.
- 약 2년 동안 수많은 분들이 속편 차를 드신 후 살맛 난다고 하십니다.
- 한번 드시면 만족하실 것입니다.
- 만드는 비법이 특허출원 중입니다. [특허출원 번호 : 10-2002-0018148]
- 연락 주시면 소상히 알려 드립니다.

합자회사 부건식품
전화 : 041-674-6955,6966 / 017-724-3355

관절염 ↓ 자생환(自生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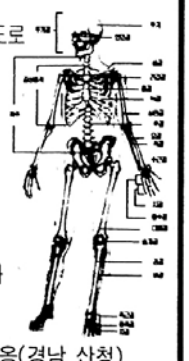
관절염 류마티스 초기 퇴행성관절염 혈액순환장애 디스크 → 약간의 활동이나 계단을 오르내릴 때 무릎이 쑤시고 저리는 경우 자생환(自生丸)을 복용후 1개월부터는 확실한 효과가 나타남

선천성 냉체 산후바람 낭습진 → 자생환(自生丸)을 2~3주만 복용해도 효과가 나타남

참고 - 심각할 정도로 나쁜 상태는 별도로 상담바랍니다.

"자생환(自生丸)의 뛰어난 효과 때문에 입에서 입으로 소개되어 많은 고객으로부터 주문 및 문의가 쇄도"

▸ 주의사항 심장질환자, 폐질환자 임산부, 음주전후에 복용금지



※ 발명자 : 민속의학자 권재우 옹(경남 산청)

주문 및 상담전화 (055)972-4054

한방을 선도하는 기업
骨仁製藥(株)

마음에서 비롯된 것 마음으로 해결해야

자살하려는 의식의 정체

문 사회가 물질만능의식의 팽배로 인해 보이는 물질만을 추구하다보니 정신세계의 진실을 알지 못한 채, 인생을 개척하고 극복하기보다는 포기하고 회피하려는 생각에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결론으로 치닫는 경우가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스님, 자살하려고 하는 의식은 어떻게 해서 생겨난 것입니까? 그리고 자살은 전생의 입력된 경험 때문에 이 생에서 또 하게 되는지요. 가르침 바랍니다.

답 사람들은 육신이 자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즉 말하자면 이 몸은 생명의 근본, 즉 불성의 집과 같은 거지요. 그래서 불성과 영혼은 다른 것입니다. 심봉을 끼고 수레가 돌듯이 생사윤회 일체가 심봉을 끼고 돌아가는데 심봉은 움죽거리질 않습니다. 움죽거리질 않으면서 능력을 배출해주는 거죠. 말하자면 심봉이 불성입니다.

그런데 마음을 잘못 쓰면 그 바퀴에 나쁜 게 감기고, 또 좋게 마음을 쓴다면 선의 입력이 되는 거죠. 그렇게 자기의 마음씀씀이에 의해서 입력이 되는 것을 바로 영이라고 그럽니다. 영혼! 혼백(魂魄)이라고도 그러죠. 그러니깐 근본 불성하고는 아주 다른 거죠.

우리 몸 속에는 의식이 잔뜩 들어 있습니다. 모습과 의식, 생명들이 세포 하나 하나에 잔뜩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우리가 과거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사람으로 태어나기 이전부터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정수에 입력이 되는 겁니다.

벌써 마음으로 관하면 대뇌를 통해서 사대로 통신이 되면서 바로 정수에 입력이 되는 겁니다. 사람의 구조도 너무나 질서정연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렇게 입력이 되는 것은 어떻게 마음을 먹고, 어떻게 마음을 쓰고, 어떻게 실천을 하느냐에 따라서 자기한테 입력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살면서 어떠한 일을 저질렀든지 좋은 일을 했든지 거기에 따라서 또 차원이 높아지기도 하고 차원이 낮아지기도 하는 겁니다. 자살을 하는 문제도 그렇습니다.

그렇게 입력이 된 대로 차례 차례로 그 시기가 되면 자꾸 발산이 되는 거죠. '난 죽어야 한다' '나는 죽고 싶다' 이렇게요. 그리고 또 인과성 세균성 유전성 업보성 영계성 이 다섯 가지가 우리 몸 속에 그대로 다 들어있는데 그 다섯 가지 중에 그런 경우가 있다면 바로 거기에서 의식이 자꾸 충동질합니다.

이 세상에 핑계 없는 무덤은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충동질을 하니 상대성의 핑계가 돼 가지고는 그냥 순간에 죽어야 한다는 생각이 폭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는 겁니다. 그러니깐 첫째는 마음이에요. 마음이 육체를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살하는 경우가 많다 하는 것은 그만큼 시대가 변천하는 대로 돌아가면서, 즉 말하자면 환경에 따라서 지배를 받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이 생기죠. 큰 일이 앞에 닥쳤을 때 자기가 딛고 일어나고자 하는 마음이 허탈하게 떨어져서 허망할 때 일이 그렇게 생기는 겁니다.

모든 일이 마음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생겼을 때 어떻게 대치하느냐 하는 해결책도 마음으로 해결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모두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불성과 주인공의 의미

문 둘 아닌 가르침에 항상 감사 드리며 질문 올립니다. '영원한 나를 찾아서'란 책을 보면 "본래 불성(佛性)은 부동하여 움직임이 없지만, 내 마음의 중심 주인공은 고정됨이 없이 찰나찰나 나툰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여기에서 '내 마음의 중심 주인공'은 무엇인지요. 저는 지금까지 내 마음의 중심 주인공이 불성인 줄 알았습니다. 가르침 바랍니다.

답 불성이라는 것은 근본을 말하는 거구요, 주인공이라는 것은 내 몸과 마음내는 거와 불성을 통합한 겁니다. 우리들 몸에 오장육부가 있는데 모든 세포에 전부 생명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누가 운전하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그 돌아가는 것을 내 주처에서 다 운행하는 거죠. 운행을 한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저절로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운행하는 것을 조절을 하고 이렇게 살 수 있게 하는 것이 그대로 주인이 되는 거죠.

업식 나오는 자리에 되놓으면
번뇌망상·생사윤회 모두 녹아

항상 그렇게 여러 가지로 할 수 있고,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말할 수 있는 근본처, 주처가 바로 누구냐? 이게 도대체 무엇이냐 이러죠? 나쁜 거든 좋은 거든 모든 걸 책정해서 아는 그 놈이 컴퓨터처럼 전체 모든 걸 하고 있거든요. 오관을 통해서 컴퓨터처럼 들이고 내고 하는 것도, 탐지기 역할도, 또 텔레파시도, 통신도, 무전도 다 하고 있는 겁니다. 내게 싫은 것 좋은 것, 내가 일하고 말하고 하는 것, 하루 24시간 걸어온 것을 저녁때 가만히 생각해 보면 다 알 수 있죠? 다 알 수 있는 그 자리 말입니다.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 고놈이 그렇게 하면서도 벌써 여러 가지 한 걸 다 알고 있더라이겁니다. 알고 있는 고놈이 바로 주인공이자, 공이자 색이고 색이자 공입니다. 내 몸에 부착이 돼 있는 거죠

그런데 거기다 몰락 놔 버리라고 했습니다. 네 주처에서 24시간동안 여러 가지를 다 하고 왔지 않느냐? 주처에서 여러 가지 말을 하고 왔지 않느냐? 행을 하고 왔지 않느냐 이겁니다. 억겁 전년서부터 나를 끌고 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나가 바로 내 조상이자 바로 자부처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걸 이름해서 주인공이라고 했습니다. 주처라고 해도 좋고 주인공이라고 해도 좋고 또 마음의 주인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뜻만 알면 되죠. 이 모든 것을 억겁 전년서부터 해 내려온 게 바로 주처에서 했다는 것 말입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생명수와 같은 자기에너지가 하나의 에너지만 있는 게 아니라 이쪽에도 있고 저쪽에도 있고, 전체 다 있으니 만큼 에너지는 차이점이 나질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같이 돌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포착해서 내가 쓸 수 있는 것을 '용(用)'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대로 우리가 모든 것이 없어서 없는 게 아니라 돌아가기 때문에, 어떠한 것을 내세울 게 없이 돌아가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아픈 것도 탁 치고 넘어가면 그냥 성해지고, 성한 것도 만약에 걸리면 아픈 거고, 이렇게 자기가 쓰는(用) 대로 생각하는 대로 돌아가는 거죠.

모두가 이렇게 돌아가면서 우리 생명을 호흡시켜서 공생(共生)으로 살고 있는 거죠. 그런데 공생을 하고 있으면 또 공심(共心)으로 돌아갑니다. 혼자 사는 게 하나도 없어요. 천차만별로 돼 있는 공심은 바로 공생의 능력으로서 다양하게 천차만별로 돌아가게끔 돼 있기 때문에 진리이자 길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인공' 하면 전체 공생으로서 한데 합쳐진 거를 말합니다. 그래 공생으로 한데 합쳐지니까 그 능력이 아니라면 우리가 공기가 없어서 못 살죠.

이 도리를 말로는 다 할 수 없는 거지마는 이렇게 말로 허서 여러분이 듣는다면 주인공에다가 놓을 수 있는 자신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 주인공에서 나오는 일들은 바깥에서 하는 일이나 안에서 하는 일이나, 안에서 생각나는 거나 바깥에서 내 몸이 움죽거리는 거나 모든 게 나로 인해서 생긴 거니까 내 주인공에서 나오는 것을 다시 그 자리에 되놓으라고 한 겁니다. 그러면 강한 것도 녹고, 부러뜨리는 것이 아니라 용광로에 넣으면 마치 다 녹듯이 그렇게 모든 걸 녹여나가다 보면 홀연히 과거 자기와 현재 자기가 둘이 아니게 상봉을 하게 도는 겁니다. 그때서부터 진짜 공부를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 내 근본을 믿고 열심히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무짓이나 해도 괜찮은지

문 업이 공하다면, 아무 짓이나 저질러도 괜찮다는 말씀이신지요? 그러면 악업을 실컷 저질러 놓고도 그냥 놓으면 업이 다 없어지나요? 혹시 어떤 신통력으로 사람을 이상하게 만들어 놓고 난 후에 그냥 놓으면 업이 되지 않나요?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요즘 불자들이 업에 대해서 잘 모르고 공하다고 마구 행동하는 것 같아서 한 말씀 듣고 싶습니다. 그러면 지어놓은 업도 다 없앨 수 있으면 어떠한 짓을 해도 괜찮겠네요. 진짜 지어놓은 업은 다 없앨 수 있습니까? 그냥 놓으면 무심이 돼서 공으로 되는 건지요?

답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질서가 있고, 또는 여러 가지 말로써 규정을 만들어 놓기도 했습니다. 만약에 그런 질서나 규정이 없다면 질서가 문란하겠죠. 인간으로 이 세상에 태어났기 때문에 질서와 교양, 교육, 충성, 효도, 의례의식이나 천(天)·지(地)·인(人)이 질서있게 돌아가는 자연의 법칙, 이러한 문제들을 여러분이 더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인간으로 태어났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내가 생각해서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이건 취하면 안 된다, 된다' 하는 걸 이미 알고 있다 이겁니다. 여러분이 고등동물인 인간으로 태어났다면 의례의식이나 모든 절차 계율 같은 것은 이미 아시리라고 믿고 넘어가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있는 거는 얼마든지 배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걸 배울 수 있는 여건도 내가 있기 때문에 배울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탓으로 돌리면서, 내 탓으로 돌리게 되면 화목을 도모할 수도 있고, 의리와 도의를 절대로 허탈하게 생각을 안하게 됩니다. 저절로 말입니다. 그러고 부드러운 행동과 부드러운 말을 하면서 항상 자기 탓으로 돌리면서 감사함을 항상 느끼고 돌아가는 것이 이름해서 계향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내면에 자기 자성신을 세우고 꼭 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기 주인공에서 안팎으로 살펴볼 때 나쁘게 생각이 되고 나쁘게 닥치고 이러는 것은 '나쁘게 나오게 하는 것도 너니까 좋게 돌려서 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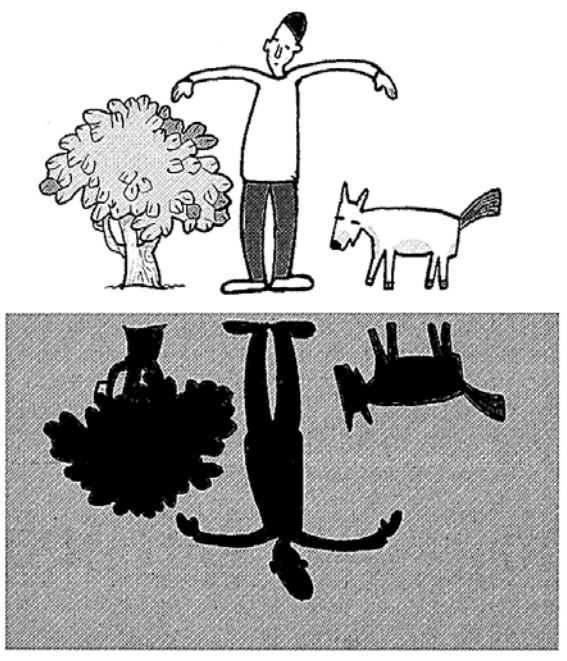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부드러운 행동 · 말 하면서
항상 자기 탓으로 돌리고
감사함 느끼며 돌아가면 계향

깊은 내면세계 떠나지 않고
물러서지 않는 마음이 정향

그런 거는 으레 지킬 줄 알아야 하는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항상 부처님의 법을 누가 되게 해서도 아니 되고, 가르치는 스님네들한테 누가 되게 해서도 아니 되고, 셋째는 자기에게 누가 되게 해서도 아니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이 세상에 나왔으니까 모든 게 자기 탓인 줄을 알아야 합니다. 좋았든지, 나빴든지, 좋은 일이든지 나쁜 일이든지 생기는 상대성 원리가 어디에서부터 나왔습니까? 나로부터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걸 내 탓으로 돌려야죠. 모든 거는 내 탓으로 돌려야 한다 이겁니다. 내가 이 세상에 났으니깐 부딪침도 있고 상대도 생겼고, 세상도 벌어졌고 우주도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내 탓으로 돌리면서 감사함을 항상 느끼고 돌아가는 것이 이름해서 계향이라고 봅니다.

오게 하는 것도 너 아니야?' 하고 거기다가 되놔야 합니다. 반면에 안에서도 좋은 마음이 생기고 바깥에서도 좋은 행을 하고 좋은 일을 하고 착한 일을 하고 이럴 땐 감사하게 놓습니다. 깊은 내면세계를 떠나지 않고 물러서지 않는 그 마음이 바로 이름해서 정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계향 정향만 잘 해도 우리가 향을 피워 놓고 초 켜놓고 아무리 빌어봤던들 바깥으로만 찾아 공덕이 하나도 없는 그런 일보다 훨씬 나을 겁니다.

진짜로 나를 이끌어가고 진짜로 나를 이익하게 하고 업보를 타파하고 과거의 모든 번뇌망상 생사윤회 모든 것을 타파할 수 있는 그 에너지는 바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옛날에 어느 수좌 스님이 동짓날 팥죽을 쑤다가 팥죽방울이 끓어서 올라오니까 요것도 문수, 요것도 문수하고 쳤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몸뚱이가 팥죽 솥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팥죽 솥에서 팥죽방울이 나오는 거지 딴 데서 올라오고 딴 데서 뺏어가고 이러는 게 아닙니다. 망상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도 바로 그 속에서 나오는 거니까요. 그러니 거기에 속지 말라 이런 겁니다. 속지말고 그냥 놓으라는 거죠. 미리 '이것도 팥죽 솥에서 나오는 구나' 하고 탁 놓아야 합니다. 사실이 그렇습니다.

몸 속에 의식들이 과거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나오는 거니까, 업식이 그림자처럼 따라 다니며 나오는 거니까 나오는 대로 거기다 되놓는다면 바로 번뇌와 망상, 생사, 윤회 모든 것을 타파하는 겁니다. 녹이는 겁니다. 용광로에다가 헌 쇠든지, 새 쇠든지 넣으면 다 녹아서 새로 재생이 되듯이 말입니다. 그 작업만 한다면 쇠는 녹아서 저절로 생산이 돼서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니 나중에 어떻게 될까 말까 이런 거추장한 생각을 마시고 진실히 믿고, 용광로에 쇠를 넣듯이 구정물이 나올 땐 맑은 물로 바꿔서 써라 이런 겁니다. 그렇게 자기한테 주어져 있는 것을 잘 다스려서 유위의 질서도 지켜나가고 보이지 않는 업의 굴레에서도 벗어나는 것이 참 사람으로 사는 본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주인공을 찾는 쉬운 방법

문 저는 근심스럽고 괴로운 모든 생각을 교회의 목사님 말씀에 의하고 성경에 의해 하느님에게 다 맡기라고 그래서 한없이 맡겨 봤는데 끝내는 그 고민이나 괴로움이 저에게 고스란히 남았습니다. 그런데 주위의 아는 분으로부터 스님의 책을 받아서 읽어보니까 그건 전부 나한테 달려 있다고 하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감동을 받아서 스님 한번 뵙고 말씀도 들어 보고 주인공을 어떻게 찾는 건지 가장 빨리 찾는 쉬운 방법을 좀 알고 싶어서 이렇게 질문드립니다.

답 불교에서는 자성불이 진짜 자기라고 합니다. 만약에 내가 자동차라면 차 속에 차를 끌고 다니는 운전수가 바로 자성불인 것이죠. 그러니까 차는 자기의 소관이지 딴 데 누가 나의 차를 고쳐주거나 씻어주거나 닦아주거나 이런 법이 없다 이거예요. 가든 오든 내 소관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몸은 자기 소관이라는 말이죠.

그런데 다들 네 종교 내 종교 이러고 모두 이름이 틀리고 수행 방법이 틀리다고 해서 다르다고 그래요. 그전에 나도 가톨릭에 좀 다녀 봤죠. 근데 내가 아무리 잘 못해도 자기가 그거를 풀려고 생각을 안 하고요, 자기가 해결하려고 생각을 안 하고 신부님한테 고해성사를 해요. 신부님한테 다 고하고는 자기는 입 싹 닦고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불교에서는 '네가 그렇게 해 놓은 거는 네가 해결해라. 네가 해결하되 너라는 몸뚱이를 가진 그 모습이 해결을 하려고 해서는 절대 해결이 되지 않으니까 너를 끌고 다니는 참 네가 해결하도록 말겨라. 못났든 잘났든 자기를 형성시킨 장본인이니까 거기다 믿고 맡겨라.'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깨달은 분들을 보면 "동자야, 울지 마라. 내가 있잖니. 아픔도 나와 둘이 아니요, 모습도 나와 둘이 아니요, 또는 생명도 둘이 아니요, 생김 생김

☞ 18면으로 계속

가파른 언덕을 넘듯 고달픈 현실에 힘겨워하는 사람들
순간순간이 고통으로 느껴지는 현대인들에게 대행 스님이 띄우는 희망의 메시지
삶은 고(苦)가 아니다



A5신 288쪽
값 6,000원
여시아문

대행 스님과 신행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현대불교신문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팩스:031-470-3116)앞이나 한마음 선원 홈페이지(http://www.hanmaum.org)로 연락 바랍니다.

☞ 17면에서 계속

을 막론해 놓고 미생물에 이르기까지 내 모습 아님이 없느니라. 그러고 미생물의 부모라도 내 부모 아님이 없느니라. 나도 그런 부모를 거쳐왔기 때문이라." 이렇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라고 따로 찾지 마시고 내 안에서 지금까지 나를 이끌어 주고, 알고 싶게 하고, 알게 해 주고, 진화시키고 발전시켜 주었으며 앞으로도 영원토록 나를 이끌고 갈 참 주인의 소식을 어서 드러내려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라도 열심히 관하는 도리를 배워나가기 바랍니다.

무명영가의 의미는?

문 하나 속에 전체가 있고 전체 속에 하나가 있는 것을 진리의 말씀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초에 촛불재가 있는데 그 하나 속에 동참을 하면 전체가 다 돌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나라는 것은 수 억겁 동안 형성되어 온 것이기 때문에, 즉 나라는 것이 너무 많아서 어느 것이 나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주인이면서 공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그 하나 속에 촛불을 밝히면 되지 따로 이름을 만들어 무명영가라고 해서 동참하게 하는 것이 어떤 뜻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답 사람은 어디까지나 자기 껍데기가 사는 게 아니죠. 자기 내면의 주장자라고 할까, 주인공이라고 했죠. 주인공이 이끌어 주어야만이 되는 거죠. 사람이 간다고 하거나 온다고 하거나, 눈으로 보고 간다 온다 하는 것도 자기 마음에서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떨어지면 죽은 사람이지 산 사람이 못되죠. 그러니깐 마음이 뭐 별나냐고 하지만 마음이 정말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죠.

그래서 때로는 그래요. 자식이 학교도 안 가고 영 집에도 안 들어오고 자기도 모르게 잘못된 일만 저지른다고 그러고, 또 캉에서 공부를 하는 것도 아니면서 방에서 나오지도 않는다고 그러고, 별의 별일이 다 많은데 그래도 내면의 도리를 알면 그걸 수습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내면의 살림살이를 잘 모르니까 영 모르고 밖으로 헤매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할 수도 없고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오게 되면 무명영가 천도를 지내라고 합니다. 그러면 또 일어나고 그러는데 여러분이 사는 데에도 연구도 그렇고 마음 가지고 논의하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지 몰라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집집마다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이사를 가면 영계성으로 인해서 화장실이나 방에 쭈그리고 앉아 있는 사람을 꿈에 본다거나, 변동이 일어난다거나 또는 꿈에 조상들로 화해서 자꾸 나타나서 "나 배고프고 춥다" 이런다면 그 마음을 옮겨야만 될 텐데 그 마음을 옮겨드리지 못하고 자꾸 마음이 쫓기면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러고 발버둥이만 치니 그게 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의 생각에 의해서 지혜롭게 대치해서 나갈 수 있는 안(案)을 세운다면 저절로 조상님들이나 무명 영가라 해도 다들 좋게 되고, 무명 영가도 인연에 따라서 만남이 있는 거죠. 어느 집에 이사를 가서 만났더라도 인연에 따라서 만난 거니까 말입니다. 그러니 산 사람이나 죽은 사람이나 모두 불쌍하죠. 상대방의 이유를 알면은 모두가 다 불쌍한 겁니다. 모두가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니까 말입니다. 살아 있을 때 아쉬움을 가졌던 분들은 자기가 죽은 줄을 모르거든요. 죽은 줄을 모르니까 살아 있을 때 아쉬웠던 거를 그대로 아쉽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하기에 달렸다 이거죠.

그래서 과감하게 없애려면 관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죽은 사람 산 사람 모두 불성이 있어서 작용을 하는 거니까 모두가 연결을 해서 그 길을 걷게끔 해 드리고 한 도량에 이르게 해 드린다면 대대손손 유전성이 없고 영계성도 없고 모든 업보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살아나가는 데만 필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살다가 죽으면 죽은 대로, 죽으면 또 사는 대로 어떻게 나와야 잘 살 수 있는가를 스스로 알게끔 되는 문제입니다.



그림 · 최주현

모든 절차 계율 으레 지킬 줄 알아야

안에도 속지 말고 바깥에도 속지 마라

그래서 공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무엇 때문에 공생이라고 그러느냐? 모두 한꺼번에 수많은 세포들이 내 몸을 집을 삼아 살고 있고, 지구를 집을 삼아 살고, 어디서든 생명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공생이지 뭡니까. 그러고 공체요 공심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러고 공식이죠. 공식으로 하여금 만법을 들이고 내게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모르고는 연구하는 게 상당히 어려워요. 나는 참 그거를 일러드리질 못해서 모두 그런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올라오면서 함이 없이 하는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모두 해도 자기가 함이 없이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자기 주인공이 이끌어 가는 거지. 그래서 자기 주인공으로 하여금 모두 하게끔 자기 마음이 전부 주인공에다 다 일임해 놓되 알게 모르게 죽은 사람들도 그와 같이 벗어나도록 관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왜 공에 빠지는가?

문 하루하루 살아감이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습니다. 스님의 말씀에 감사 드립니다. 제가 드릴 질문은 왜 공에 빠지는가 하는 겁니다. 또 공에 빠지면 어찌해야 하며 공에 빠지지 않으려면 어찌해야 하는가 여쭈고 싶습니다.

답 우리가 공이라 하면 용무(用無)를 말하죠. 용무! 우리가 그냥 자연스럽게 움죽거리고 하는 그대로, 공이라는 그 자체가 그대로입니다. 항상 얘기해 드렸죠? 찰나찰나 나투면서 화해서 돌아가니 그냥 비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을 예로 들어 말을 했죠? 아버지가 됐을 때 나라고 하겠느냐, 남편이 됐을 때 나라고 하겠느냐, 그거는 어떤 거라고 말할 수 없으면서 그대로 용무가 되죠. 그냥 그대로죠. 그래서 여래라고 아마 이름을 붙여놓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그대로 여래 속에서 여래의 행동을 하면서, 그대로 그냥 법이 용이면서 무다 이겁니다. 모두가 다 그냥 비었습니다. 그대로' 비었습니다' 이러면 빈 줄로만 알지 마시고 '꽉 찼다' 이러더라도 꽉 찬 줄로만 알지 마셔야 합니다.

제가 예전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지구에서 에너지가 부족하여 없어진다면 무엇으로서 살 것인가? 그런데 허공에 생명들이 꽉 찼다고 했습니다. 생명이 꽉 찬 데는 에너지도 꽉 찼단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용무를 그대로 알아서 진실하게 함이 없이 할 줄 안다면 에너지를 얼마든지 끌어쓸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왜 못한다고만 생각하십니까? 왜 우리는 중생이기 때문에 죄가 많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는 왜 못한다고만 생각하십니까? 그 생각이 문제입니다. 해골을 놓고도 그 해골과 자기와 둘이 아닐 때 비로소 자기를 아는 겁니다.

옛날에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묘지가 두 개가 있는데 '너 저 묘지가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애비 거고 하나는 자식 거니라. 그런데 양쪽에 구멍이 뚫렸느니라. 그런데 애비가 자식한테로 가면 자식으로 하나가 되고, 자식이 애비한테로 가면 애비로 하나가 되니 그건 무슨 연고인가?' 하고 질문이 나왔습니다. 그 때가 스물 몇 살인데 말입니다. 알게 뭡니까? 가만히 생각을 하니까 아, 발이 떼어져야죠. 그래서 3일을 그냥 그것 때문에 앉아 있었죠. 그러다가 아하! 이럭하구선 일어났죠. 생각을 해보세요. 영에다 영을 넣어도 둘이 아니요, 이쪽 영을 저쪽에다 넣어도 둘이 아니요, 만 불을 하나에다 넣어도 둘이 아니라고 이랬으니 어찌 공했다고 부처님께서 안 그러셨겠습니까? 이 묘한 법을 말입니다.

> 나를 이끌어 주고
> 알게 해주고
> 진화 · 발전시키고
> 영원히 나를 이끌고 갈
> 참주인 찾으세요

무심은 그냥 일을 하면서도 무심이지 마는 공에 빠진 상태는 바로 내면세계에 노예가 되는 거나 마찬가집니다. 그렇게 공에 빠지면 목석이지 사람입니까, 어디? 그래서 길잡이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에도 속지 말고 바깥에도 속지 마라 하는 뜻은, 나를 그렇게 해서 발견했다 하면 둘이 아닌 도리를 공부시키기 위해서 많은 화두가 일어납니다. 타의에서도 나를 괜히 으르렁거리고 못 잡아먹어서 난리구요. 또 자의에서도 괜히 화가 나고 괜히 하나를 보기만 해도 신경질이 나고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아하, 나를 공부시키느라고 이러는구나' 하고 다시 뭉쳐놔야 될 텐데, 바깥으로 '에이그, 저것이 그냥 나를 가지고 이렇게 해서 내가 어떠니 저떠니.' 하고 생각을 하게 되면 그냥 길길이 뛰게 되죠. 분하고 잊을래야 잊을 수가 없게 되죠. 그러니까 가만히 그냥 맹목적으로 앉아서 생각하고 앉아 있는 사람은 무기공에 빠진다 이 소리죠. 그러니까 그 사람네들은 움죽거리고 살면서도 공부할 수 있다는 걸 모르고 아주 생활까지도 버리고 앉아 있거든요. 그러니 그건 바로 무기공에 빠진 사람들이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 생활 하나하나 하는 게, 생각하면서 뛰고 뛰면서 생각하는 게 그대로 좌선이며, 모든 걸 맡기고 사니까 마음이 편안한 것을 좌선이라 하고, 바로 뛰고 앉고 서고 자고 하는 게 전부 참선입니다. 그러니 둘로 보지 마십시오.

그래서 무기공에 빠졌다고 느껴질 때 빠졌다는 생각조차 없어야 되겠죠. 무조건 무기공에 빠졌다는 생각조차 없어야 무기공에 빠지지 않는 법입니다. 무기공에 빠진 줄은 어떻게 아는가? 그 아는 놈이 누구냐? 그것만 알면 무기공에 빠지지 않을 겁니다.

현대불교 1천원 법보시운동에 동참합시다

군부대 · 교도소 · 복지시설에 자비의 법등을 밝힙시다

'현대불교'는 우리의 소중한 이웃인 군부대, 경찰서, 교도소, 병원, 복지시설 등에 '현대불교 보내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법보시는 부처님 법을 다른 사람들에게 심는 것으로 선근을 자라게 하여 개인에게도 무량한 공덕이 됨은 물론 우리 사회를 한층 밝고 따뜻하게 하는 씨앗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도 〈육취윤회경〉에서 "보시의 공덕은 이루 헤아릴 수 없다. 경전의 가르침을 보시하면 큰 지혜를 얻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 동참방법
매월 1,000원 이상 자동이체 또는 수시 온라인 입금(문의시 상세히 안내)
또한 보시하는 불자님이 직접 법보시 대상자나 단체를 정하셔도 됩니다.

■ 참여방법
예금주 성명, 은행명(우체국/수협은 제외), 계좌번호, 예금주 주민번호, 이체희망일자, 연락처를 전화로 알려주시면 자동이체로 후원금이 자동으로 처리됩니다.

■ 신청 및 문의
고객부 (02)737-0090(直) (02)737-8881(代)

현대불교신문사

법공양페이지는 동참을 원하는 종단 · 사찰 스스로 제작의 주체가 되어 각기 재량하에 소재를 선택하고 본 편집진과 함께 지면의 틀을 짜는 방식으로 제작됩니다.
법공양페이지는 약간의 실비부담만으로 종단 또는 전국 어느 사찰이라도 이용 가능하며 개인 불자의 경우는 특정 종단 또는 사찰을 지정하여 제작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백중기도 및 영가천도 법보시용으로 매우 좋은 책

"기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일타 큰스님의
생활 속의 기도법

여러 가지 상황의 따른 기도 방법은 물론 기도할 때 지녀야 할 마음가짐까지 큰스님 특유의 자상한 문체로 예화(例話)를 섞어 쉽고 재미있게 엮었습니다.

가정의 평화를 위한 기도, 입시 합격을 위한 기도, 수행인의 기도, 영가천도를 위한 기도, 제사 때의 기도 등 일상생활에서 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도 방법이 담겨 있습니다. 4×6판 / 값 3,500원

일타 큰스님의 기도성취 영험담 모음집

『기도』 신드롬을 일으켰던 바로 그 책! 일타 스님 자신과 도반 · 선배 · 신도들이 직접 체험한 기도 성취 영험담 52편을 모아 엮었습니다.

祈禱

일타 큰스님 지음 / 신국판 / 값 5,000원

우룡 큰스님의 금강경 강설집!

생활 속의 금강경



영가의 바른 천도를 원하십니까?
깨달음의 마음,
지혜로운 마음으로
행복하게 살고자 하십니까?

영가천도를 위한 독경용으로 으뜸가는 금강경!

이제 금강경을 공부해 보십시오.

시대와 종파를 초월하여 불자들로부터 가장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금강경 속에 영가천도의 비결과 행복을 누리며 사는 방법이 담겨 있습니다.

『생활 속의 금강경』은 그토록 어렵다는 금강경의 가르침을 우리의 생활에 접목시켜 쉽고도 재미있게 풀이한 책입니다.

뜻을 알고 독경을 하면 그 공덕은 더욱 커지는 법!

이제 『생활 속의 금강경』을 통해 집안의 영가를 천도하고 우주에 가득찬 지혜와 영광과 행복을 가득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신국판 / 304면 / 값 6,000원

"영가는 어떻게 천도하나요?"

우룡 큰스님의
영가천도

4×6판 / 값 3,500원

영가의 장애를 느끼십니까?
돌아가신 영가를 제대로
천도해 드리지 못하셨습니까?

영가천도의 필요성과 기본자세, 염불천도, 독경 · 사경천도법, 사십구재, 낙태아 천도 등 영가천도에 관한 모든 궁금증과 방법을 우룡 큰스님의 자세한 법문으로 풀어드립니다.

'나무아미타불'
이 염불이 극락세계의 문을 엽니다.

미타신앙 · 미타기도법

미타기도법은 영가님들께
영원 생명과 무량한 빛을 안겨줍니다.

이 책에서는 아미타불의 참모습에서부터 극락의 여러 가지 측면, 칭명염불 · 오회염불 · 관상염불 · 천도염불 등의 각종 염불수행법, 천도를 하는 가족의 자세 등을 자세히 밝히고 있습니다.

김현준 지음 / 4×6판 / 값 3,500원

참회 · 참회기도법

맺힌 것을 풀고 푼 것을 더욱
원만하게 이끌어 가는 묘법이 참회!

이 책에는 업장과 참회, 가까운 이를 향한 참회, 절을 통한 참회, 참회염불, 참회행자의 마음가짐, 이참법과 대승육정참회 등 참회의 참된 의미와 여러 가지 참회 기도법, 참회영험담을 상세하게 담았습니다.

김현준 지음 / 4×6판 / 값 3,500원

지장신앙 · 지장기도법

영가천도의 보살인 지장보살!
그분은 영가천도뿐 아니라
업장참회와 무한행복
대해탈까지도 능히 안겨줍니다.

대원(大願)의 본존(本尊)인 지장보살의 여러 측면과 함께 영가천도를 비롯하여, 생활 속에서 할 수 있는 여러가지 지장기도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한 이 책은, 지장신앙 및 백중기도의 훌륭한 지침서가 될 것입니다.

김현준 지음 / 4×6판 / 값 3,500원

지장보살본원경
부록 / 지장보살예찬문

지장기도를 하는 분들을 위해 지장경 독경 및 지장보살 예참, 염불을 함께 할 수 있도록 엮은 책. 각 장 앞에 제시된 기도법에 따라 기도를 하게 되면, 영가천도 · 업장소멸 · 소원성취 · 향상된 삶을 이루게 됩니다.

김현준 편역 / 신국판 / 값 5,000원

법보시를 원하시는 분은 출판사로 연락주십시오. 할인혜택을 드립니다. 도서출판 효림 · 전화 : (02) 587-6612~3 · 팩스 : (02) 586-9078

여성주간… 평등세상 축제 마당

7월 1~7일 16개시 · 26개 여성단체서 다양한 행사



◇'여성주간'이 전국적인 축제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사진은 지난해 열린 '6회 여성주간' 기념식 장면.

제7회 여성주간이 '여성의 힘, 국가 경쟁력의 시작입니다'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7월 1일부터 7일까지 다양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여성주간은 1996년 여성발전기본법에 힘입어 남녀평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인다는 뜻에서 제정됐다. 그동안 소규모의 정부행사로 치러지다 지난해 여성부 출범을 계기로 그 범위가 확대되어 이제는 전국 16개 시 · 도와 26개 여성단체의 관련사업을 포괄하는 전국적인 여성계 축제로 자리 잡고 있다.

7월 3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63빌딩 국제회의장에서는 '여성주간 기념식'이 열릴 예정이다. 이번 여성주간에는 한국여성불교연합의 김묘주 회장이 대통령 표창을 받는 등 남녀 평등의식 촉진에 기여한 각 분야 유공자 40명과 교사 12명이 포상을 받게 된다.

지역에서도 여성주간을 맞아 다양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부부문패달기 · 여성바둑 · 컴퓨터대회

여수시, 평등부부상 첫 제정 3쌍 시상

불교여성聯 김묘주 회장 대통령 표창

포항시는 여성주간을 앞두고 '부부 문패달기' 캠페인을 벌인다. 사생활 침해 등의 이유로 문패달기를 꺼리는 풍토와 부부 이름을 함께 내건다는 점에 익숙치 않을 것에 대비해 단독주택에 사는 24개 여성단체 대표와 임원들이 먼저 부부명의의 문패를 달고, 50명의 신청자를 받아 지원금을 지급한다.

전남 여수시는 '제1회 평등 부부상'을 제정하고, 사랑과 신뢰를 바탕으로 민주적 가족관계를 이끌고 있는 부부를 발굴, 선정한다. 여수시에 3년 이상 거주한 결혼 생활 3년 이상의 부부 3쌍을 선발해 여성주간 기념행사장에서 시상한다.

또한 안양시에서는 29일과 7월 2일에 각각 '여성컴퓨터 경진대회'와 '여성바둑대회'가 열린다. 컴퓨터 경진대회는 28일까지 선착순 60명을 모집, PC운용 · 인터넷 정보검색 시험을 치르고 바둑대회는 29일까지 참가자 100명을 모집해 대회 당일 대국을 펼친다. 시상식은 7월 4일 시청 강당에서 열릴 예정이다.

한편 6월 4일 문을 연 서울여성플라자는 여성주간을 맞아 동아시아 여성과 역사를 주제로 한 '제2회 여성미술제'를 30일까지 연다. (02) 810-5000

여성 담당= **여수령 기자** snoopy@buddhapia.com

"부처님법 전법노력 인정받게 돼 기뻐요"

대통령표창 여불련 김묘주 회장

"부처님 법을 따르고 펼치기 위한 노력을 인정받아 기쁩니다. 부처님 법에 근거해 여성을 위한 더 많은 활동을 펼치겠습니다."

(사)한국불교여성연합(이하 여불련) 김묘주 회장이 '제7회 여성주간'을 맞아 평소 여성발전과 남녀평등 촉진에 기여한 유공자에게 주어지는 대통령 표창을 받게 된다.

김 회장은 1988년 한국불교여성연합을 창립해 불자여성의 지위 향상과 가정보호, 생활개혁 실천 등 여성과 사회발전을 위해 노력해온 공로를 인정받아 이번 상을 받게 됐다.

김 회장은 "앞으로 불교계가 여성문제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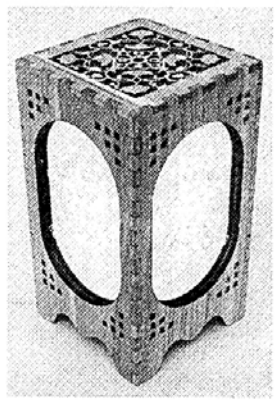


오동나무로 만든 가정용 사천왕등

불법을 지키는 수호신인 사천왕과 사방(四方)을 나타내며 우주 질서를 수호하는 사신(四神)을 조각한 등(燈)이 나왔다.

오동나무로 만든 가정용 등인 사천왕등은 경주 나원리 5층 석탑(국보 제 39호) 해체 복원 과정에서 발견된 사리함에 새겨진 사천왕의 모습을, 사신도등은 창덕궁 인정전의 옥좌 뒤편에 그려진 사신도를 재현해 사방에 조각했다. 사천왕등 5만5천원, 사신도등 5만원이다.(02)732-1520

클릭! 불교문화상품
www.mahamall.co.kr



신행담

제7회 신행수기 당선작

총화종 총무원장상

속죄의 그날까지 (上)



학원 운영중 강사와 다툼 생명 앗아

무기형… 어머님 인도로 불교 귀의

저는 7남매의 셋째로 태어나 3남매의 아버지로써 사무기기 판매대리점을 운영하면서 좀 더 돈을 많이 벌려고 컴퓨터 학원을 새로 운영을 했습니다. 그러다 학원 강사와 다툼이 생겨서 결국 귀중한 생명을 빼앗게 되어 이렇게 공민권이 박탈당한 죄인이 되었습니다. 처음 교도소에 수감이 되었을 때는 남은 내 인생에 영원한 암흑만이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8년이란 세월을 지나는 동안 차츰차츰 어둠의 껍질을 한 올 씩 벗고 빛 가운데로 빠져나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무기형을 확정 받고 그저 모든 것을 체념해버리고 자학하며 자포자기한 삶을 살았더라면 지금의 제가 존재할 수 있을까요? 또 못난 자식을 애타게 기다리시는 부모님을 무슨 낯으로 뵈올 수가 있을까요?

그동안 저의 수형생활은 비록 환히 웃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약간의 미소를 지을 수가 있는 것은 그동안 저의 노력이 작은 열매를 맺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대구에서 목포로 이감을 온 며칠 후 소식을 듣고 가족들이 낯설고 물설은 천리길을 물어물어 찾아 왔을 때 진정 가족들의 소중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 한 몸의 잘못 때문에 온 가족들이 고생을 하는구나 하는 생각에 저절로 한숨이 나왔습니다. 못난 아들을 이 먼 곳에 홀로 남겨두고 돌아서서 가야 하시는 어머님의 가슴속에는 눈물의 강은 흐르고 뱅 뚫어진 가슴에는 회한의 찬 바람이 휘몰아 칠 것을 생각하니 새삼 이 죄인의 불효가 가슴 메이도록 후회스러울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워 내 신세를 생각해보니 처량하기 짝이 없었고 이렇게 구차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 하는 생각에 이 한목숨 끊어지면 모든 거추장스러운 것들이 저절로 없어질 것이라는 어리석은 생각도 여러 번 해보았습니다. 그때마다 "애야 견딜 수 없이 힘들고 괴롭고 외로울 때에는 부처님을 마음이 후련해질 때 까지 부르라"는 어머님의 자상하신 말씀이 귓가에 들려왔습니다.

실의와 비애에 빠져있던 저는 어머님의 인도로 불법에 귀의하게 되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참 삶을 사는 법을 배운 저는 8년의 수형생활동안 법무부 교정 작품 입선, 광주지방 교정청장님우수상 및 입선을 하였고 창호제작 2급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또한 98년 말부터는 목포교도소 재소자 불교회장직을 맡아 불교방 생활 7년 동안 하루도 거르지 않고 매일 아침마다 부처님 전에 108배를 올리고 있습니다. 저녁에는 동료법우님들에게 천수경과 기초교리도 가르치며 개인 공부로는 새벽참선 30분정도 저녁에 관세음보살 사경 108번 나무아미타불 염불 3000번을 일상생활화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2000년 추석 때는 3일간의 철야 정진기도를 해 보면서 진정한 내 자신을 되찾을 수 있는 소중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계속)

최종해(전남 무안군)

여성 단신

네팔캠프 참가자 모집

가족아카데미아(www.familyacademia.com)가 여섯 번째 네팔캠프 참가자를 모집한다.

9월 18일부터 28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캠프에서는 방콕과 카트만두를 비롯해 부처님 탄생지인 룸비니, 힌두교 사원인 창구나라얀 사원 등 네팔의 문화유적을 답사한다.

또한 네팔인사 초청 강연, 네팔-이화우정의 집에서의 명상체험, 핏시테일의 민속공연 감상 등의 문화행사를 체험할 수 있다.

사전모임은 9월 3일과 10일, 17일 세 차례에 걸쳐 네팔 노래 배우기, 네팔캠프 비디오 시청 등으로 진행된다. 신청은 인터넷이나 전화로 가능하다. 참가비 192만원. (02)732-8146

다 이 어 트
단지 몸매만을 바꾸는 게 아닙니다.
당신의 활기찬 삶과 인생까지 변하게 합니다.
오랜 세월 명산을 오가며 한방에 관심이 많으신 법우스님.
만병의 원인인 비만으로 인하여 다이어트 수요자는 늘어나고 있으나 많은 사람들이 일방적인 선전광고에 의존하는 현실을 아쉬워하며 순수 한방 약이면서 무독성으로 탁월한 효능이 입증된 한방 다이어트 약을 자신있게 소개합니다.
그동안 2000여명의 복용자 중 95%의 효능이 입증된 전주 W대 한방병원 임상실험 결과 한방다이어트 약은 신진대사 촉진으로 기 순환을 활발히 하여 체내의 노폐물을 제거하고 몸 속의 유해수분과 지방질 흡수작용을 강하게 하여 한달복용으로 4~5kg 감량의 효과를 내는 것입니다.
특히 이 약을 복용하는 동안 인류의 적인 성인병을 예방하고 비만의 합병증인 관절통을 치료하며 외형적 변화가 놀라워 변화된 모습에 주위사람들의 부러움을 사게 되며 본인도 상쾌하고 가벼워진 자신의 몸매에 감탄할 지경입니다.
체중 감량 후 나타나는 요요현상을 다스리는 방지책이 준비되어 있어 다이어트를 원하는 모든 이에게 안성맞춤이라 하겠으나 좋은 만남도 불가의 인연이 아니면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전국의 신심있는 불자님의 정성스런 동참으로 순이익금을 불사자금으로 사용 중입니다. 법우합장
비만에 특효
(한달 복용 4~5kg 감량)
■ 한달 분 가격 : 30만원
■ 전화 주문 시 택배 무료배송
■ 주문 상담문의 : 011-615-7630
농협 100115-52-232981 김종석

3천배 철야정진 차량운행 안내
◆ 일시 : 매월 마지막주 토요일 저녁7시~일요일 아침7시
◆ 호흡에 맞춰 절하는법 교육 (저녁7시~9시)
숨차지 않고 헐덕거리지 않으며 맥박이 빨라지지 않고 몸살나고 힘들고 졸립고 다리,무릎,허리가 아프지 않게 하려면 절하는 동작에 흡흡호 호흡법을 대입하는 교육을 2시간 받으시면 누구나 왼벽하게 절할 수 있습니다.
◆ 3천배정진 : 500만배 성만한 스님과 함께 처음부터 끝까지 죽비소리에 맞춰 300배씩 10회로 매 시간 시작전에 마음다스리는 소참 법문을 듣고 끝내며 부처님전 감사 수행으로 마음 밝히고 축원 기도를 올리며 간절한 큰 마음으로 소원을 성취 하며 인생에 걸림돌이 되는 큰 업장이 녹아 내림을 체험한다.
◆ 차량운행 : 매월 마지막주 토요일 오후 4시 30분
조계사앞 출발 → 지하철 2호선 삼성역 7번출구 한국전력 앞(5시 10분) 경유하여 법왕정사 도착
◆ 차량 예약 문의 : 양 현 숙 011)222-3329
백만불자 108배 만일결사 수행 중심 도량
법왕정사
경기도 양평군 단월면 석산리 소리산 참선캠프
전화 031)771-7745 · 7038 · 6736 (Fax 겸용)
◦ 오시는길 : 양평 → 용문터널 → 단월 → 대명비발리파크 스키장 입구 청평방향 7Km
◦ 버스 (서울 상봉터미널) → 모곡행 → 모곡종점하차 전화요

佛經漢文敎育科
▶ 男 · 女 통신반 募集 ◀
1. 募集期間
● 7월 5일 ~ 8월 15일 (기간엄수)
2. 募集課程
● 大學院 과정
3. 敎育科目
● 무량의경 (漢文本)
● 묘법연화경 (漢文本)
● 관. 보현보살 행법경 (漢文本)
● 특강을 통해 모든 경전 비교연구
4. 敎育期間 ● 3년 (6학기)
5. 敎育方法
● 매주교재와 강의테이프 우송
● 월 1회 출석특강
6. 卒業惠澤
● 수학증서 수여
● 불경한문강사 자격증 수여(심사 합격자)
● 전문 연구과정 입학자격부여(무료)
※ 자세한 입학안내서는 청구하시면 보내 드립니다.
法華三部經講院
책임교수 崔 光 永
대구시 동대구 우체국 사서함 41호(우: 701-600)
053)952-8711 · 017)501-8711

당뇨·고혈압
당뇨병 혈당강하 조절제
국내약초 100%
야생약초 90%
生人정
▶ 혈액이 개선되며, 신체의 이상이 정상이 되며, 비만도 해소됩니다.
▶ 100% 우리나라에서 재배되는 약초이며, 90%는 야생약초로 사용하였습니다.
▶ 생인정은 일부는 달이고 일부는 튀어서 배합하여 생산하였으며 일체의 첨가물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 생인정은 식품으로 먹는 약재만을 사용함으로써 부작용이 없습니다.
복용시 나타나는 현상
· 소변량이 증가하고 소변횟수가 줄어듭니다.
· 신장기능 약화에 의한 불쾌감이 해소됩니다.
· 불면증이 없어집니다.
· 관절의 통증과 불편이 없어집니다.
· 일반적 무기력감과 피로가 없어지고 원기 회복이 됩니다.
· 기진피부가 고와집니다.
· 고혈압 증상이 개선되고, 어지러움과 부종이 없어집니다.
· 대변이 황금색으로 변하고 대소변을 보고난 후에 시원한 느낌이 나타나고 방귀냄새가 없어지고 속이 편안해집니다.
· 복용초기에 눈꼽이 나오는 느낌이 오거나, 위장이 나쁜 사람은 속이 더부룩한 느낌이 나타나지만 걱차 없어집니다.
· 간혹 체질에 따라 아픈 곳에 통증이 더욱 심해지다가 점차 없어집니다.
· 위의 설명은 체질이 개선되는 현상임으로 안심하고 꾸준히 복용하시면 정력과 활력이 솟아납니다.
· 신약을 복용중인 사람은 생인정을 함께 복용하면서 점차 신약을 줄여 15일 정도 경과후 신약을 완전히 중단합니다.
· 생인정 복용시 대부분 2주 이내에 개선현상이 나타나고, 간혹 체질에 따라 늦게 나타나는 수도 있습니다.
· 복용중 개선현상이 의심되면 구입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단, 복용분과 박스포장비 5천원을 공제하고 즉시 환불해 드립니다)


1개월분 ₩150,000
1일 3회, 1회 3~4정씩 섭취(나이와 소화능력에 따라 조절)
생인당
주문 및 상담 (054)281-0544



이선옥의

선무 건강법 ㊳

• 금강리보살 수인 익히기 •



금강리보살수인은 왼손을 엄지와 검지를 구부려 맞댄 상태로 하고, 나머지 손가락은 곧게 편다. 오른손은 검지와 중지를 곧게 펴고, 나머지 손가락은 맞대어 오무린 자세다.

1. 금강리보살 수인을 취하고, '이' 소리를 내면서 단전을 수축하며 왼다리를 앞쪽으로 사선이 되게 뻗는다. 이때 손도 왼편으로



단전 수축하며
왼발 앞쪽으로

약간 움직이며 얼굴은 다리를 따라 아래쪽을 바라본다. 회음부와 자궁질부를 수축하는 동작이다.

2. '뭐' 하고 소리를 내면서 손을 앞으로 내민다.
3. 다시 '꼬' 소리를 내면서 왼다리를 앞으로 쭉 뻗는다.
4. 뻗었던 왼다리를 잡아당겨 꼬면서 뒤로 가져갔다가 다시 앞으로 가져온다.
5. 왼다리를 오른다리와 나란히 놓고, 발꿈치를 들어 몸을 곧게 폈다가 몸을 이완한다.



한국 월드컵 대표팀이 90분 경기를 뛰는데도 전혀 지친 기색없이 파워 넘치는 체력을 과시하는 데는 체력훈련 프로그램과 함께 오가피, 홍삼 등 '토종보양식'이 한 몫 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표팀 주치의 김현철 박사는 19일 "대표팀 선수들은 3월부터 지금까지 매일 세차례 식사때 오가피를 먹고 있으며, 붕어·가물치·잉어 등을 푹 고아 환약으로 만든 '사편환', 홍삼 등을 먹으며 스태미나를 쌓아왔다"고 밝혔다.

특히 오가피는 인삼이나 산삼과 비슷하게 생겼지만 풀이 아닌 나무에서 나는 약재로 원래는 허리와 다리 통증에 처방하는 약재이나 기력증진에도 효과가 큰 것으로 전해졌다. 김 박사는 "토종

월드컵 8강 진출 토종보양식 '한몫'

운동 부족 일반인에겐 도움 안될 수도

오가피의 아칸토 사이드 D라는 물질은 선수들의 피로를 30% 정도 빨리 회복시켜주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승수 원장(송암한의원)도 "안정환, 설기현 등 축구선수들은 대부분 소음인 체질이 많다"며 "소음인은 소화기능이 약해 홍삼을 복용하면 소화기능 회복과 함께 홍삼 특유의 기력을 솟구치게 하고 탈수 증세를 막아주는 효능때문에 경기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됐을 것"이라고 보양식 처방에 대해 긍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또 김 원장은 "대표선수들은 하루에 10㎞ 이상을 달리는 등 체력소모가 많기 때문에 보양식의 효과가 큰 것이지만 운동량이 거의 없는 일반인들에게는 오히려 큰 도움이 안될 수도 있다"고 조언했다.

함성·박수로 스트레스 말끔히

월드컵 축구경기 응원의 건강학



◇14일 포루투갈과의 경기를 지켜보며 시청앞 광장에서 열띤 응원을 하고 있는 '붉은 악마'.

즐기는 응원이 몸·마음 건강에 좋아
지나친 흥분 돌연사·질병 부를 수도

"대~한민국 짝~짝짝짝"

국가대표 축구팀의 선전에 따라 월드컵을 향한 국민들의 응원이 뜨거워지고 있다. 특히 시청앞이나 광화문 등에서는 수십만의 응원단이 구성돼 열띤 응원전을 벌이고 있다. 이처럼 여럿이 모여 함께 박수치고 소리지르며 응원을 하면 동료애도 생기고 스트레스도 훌쩍 날려보낼 수 있어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다.

하지만 승패가 엇갈리는 현장에선 극도의 좌절과 기쁨이 교차하게 마련. 따라서 자신도 모르게 감정에 휩쓸리다보면 절제되지 않은 흥분으로 예기치 못한 건강 복병을 만날 수 있다.

특히 지난 4일 폴란드전 경기를 TV로 보던 40대 남자가 흥분해 '돌연사'한 것을 비롯해 한국팀이 이탈리아를 물리친 18일 밤에는 부산에서 TV를 시청하던 정호영씨(28)가 동점이 되는 순간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으로 옮겼으나 사망하는 사고가 일어났다.

자신의 건강을 생각지도 않은 채 흥분하다 보면 '골인이다'는 기쁜 합성뒤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음을 망각할 수 있다. 월드컵 응원의 건강학을 소개한다.

▶온몸 응원 긴장 해소= 심장은 움직이지 않고 용을 쓰는 자세에서는 마비가 생기기 쉽다. 가슴 졸이며 응원할 때 심장의 산소 요구량이 급증하기 때문이다.

월드컵을 TV로 시청할 때가 꼭 이와 같다. 따라서 다음 졸이며 곰짝 않고 보는 것 보다 몸을 활발하게 움직이고, 소리를 지르며 관전하는 것이 건강에 좋다.

▶적당한 뒤풀이는 정신건강의 약= 스트레스가 무조건 건강에 나쁜 것은 아니다. 짧은 시간 형성됐던 극도의 긴장감이 시합 종료와 함께 이완되면 오히려 정신건강에 도움을 준다. 문제는 시합에 패배했을 때 나타나는 분노와 허탈감. 경기 결과에 집착하고, 쉽게 감정에 동요하는 사람일수록 이러한 부정적 감정이 오래 지속된다.

신영철 성균관대 강북삼성병원 정신과 교수는 "사람의 감정은 전염되는 것이므로 가족이나 이웃과 함께 관전하며 정서를 공유하고, 경기가 끝난 뒤에도 뒤풀이를 통해 마음을 정리하면 부정적 감정도 긍정적으로 전환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바른 관전 자세= 목과 허리도 조심하자. 소파에 비스듬히 드러눕다시피한 자세로 장시간 TV를 시청할 경우 관절과 인대에 손상을 초래할 수 있다.

손으로 목을 괸 채 시청하는 자세도 한 쪽으로 목이 꺾여 경추염좌를 일으킨다.

요통이 있는 사람이라면 쿠션이 좋은 푹신한 의자보다 딱딱한 의자에 허리를 곧게 편 채 앉아 시청하는 것이 좋다.

▶피부보호= 햇빛 알레르기의 주범은 당연히 햇빛. 그러나 열성적인 응원을 위해 꼭 경기장에 가야 한다면 햇빛을 최대한 적게 쬐도록 하며 모자나 의복 등으로 햇빛을 가리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일광차단제를 바르는 것이 좋다.

어루러기도 주의해야 한다. 어루러기는 둥글둥글한 반점이 겨드랑이, 등과 배, 가슴 등 땀을 많이 흘리는 피부부위에 생기며 점차 팔, 다리에도 퍼져나간다. 처음에는 콩알만한 반점 크기지만 점차 동전 모양으로 커지며 간혹 이들 동전 모양의 병변이 합쳐져서 등에 광범위하게 생기기도 한다.

어루러기는 피부 곰팡이에 의한 것으로 습하고 땀을 흘린 피부에 얇게 곰팡이가 번식하면서 퍼져나가 생긴다. 곰팡이 억제약을 바르거나 곰팡이를 제거하는 항생제를 복용하면 치료가 된다. 그러나 습도가 높고 온도가 높은 환경에 노출되면 다시 생길 수 있는 만큼 예방이 치료만큼이나 중요하다는 것이 피부과전문의들의 설명이다.

예방법으로는 목욕을 자주 하되 몸에 물기가 남아 있지 않도록 잘 닦아내며 땀에 젖은 옷은 빨리 바꾸어 입어야 한다. 피부가 젖어 있으면 곰팡이가 번식하기 좋은 조건이 되므로 피부를 청결하고 건조한 상태로 두는 것이 치료 후 어루러기에 다시 걸리는 것을 막는 길이다.

▶심장병 돌연사= 과도한 긴장은 혈압과 맥박을 올려 심장에 부담을 준다. 신영철 교수는 "흥분과 긴장은 교감신경을 자극하고, 아드레날린과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분비시켜 혈압을 높이고 호흡을 가쁘게 하며, 심장박동을 빠르게 한다"고 말한다. 따라서 평소 혈압이 높거나 협심증, 부정맥 등 심장병을 앓고 있는 사람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또 평소 얼굴이 회끈거리면서 뒷목이 뻐근하고, 다혈질인 사람들은 흥분하면 혈압이 올라가 중풍이나 협심증으로 이어질 수 있다. 직계가족 중에 고혈압, 심장병, 중풍 환자가 있다면 특히 더 많은 주의가 필요하다.

긴장을 풀기 위해 흡연과 음주를 동반한 경기 관람은 되레 혈관질환을 가진 사람들에게 돌연사의 위험을 초래할 수도 있다.

최선의 예방은 TV시청이나 거리응원을 하지 않은 것. 하지만 도저히 그럴 수 없다면 승패를 떠나 마음을 편히 갖고 복용하던 약이 있으면 미리 먹어 두는 것이 좋다.

▶성대 보호= 응원을 하기 위해 갑자기 목을 많이 사용하면 모세혈관이 터지면서 후두가 붓고 염증이 생긴다. 성대에 결절(結節)도 생긴다. 말하기 어렵고 목소리가 갈라지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성대는 얇은 판막 두 개가 초당 1백~2백회 정도 진동하는 발성기관. 그래서 쉽게 건조해지고 염증이 생기면 금세 가라앉지 않는다. 스트레스도 성대 결절에 영향을 미친다.

경희대병원 이비인후과 안희영 교수는 "성대를 보호하려면 준비운동 하듯 목소리를 조금씩 높여가면서 목을 가다듬고,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어린이는 단 한번의 큰소리에도 성대 결절이 생길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숨이 턱에 닿도록 지속적으로 소리 지르는 것은 성대에 과도한 긴장을 유발하는 만큼 충분한 호흡기간을 두고 편안한 상태에서 소리 지르도록 하는 것이 좋다.

응원 중간중간 최대한 물을 많이 마시는 것도 중요하다. 성대가 건조하면 자극에 민감해지기 쉽다. 충분한 수분은 목점막을 촉촉하게 해 성대에 무리가 가는 것을 예방해준다.

▶탈수증세= 월드컵 경기장을 찾았을 경우엔 집에서 볼 때보다 더욱 여러 가지로 신경을 써야 한다. 경기장에서 장시간 응원하다 보면 땀의 배출과 수분의 흡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생기는 이상 체온 현상으로 무기력감과 함께 운동능력 저하 현상이 나타난다.

이런 증상은 탈수를 불러오는데 이같은 탈수는 커피나 탄산음료, 알콜 등 이뇨작용을 돕는 음료를 마실 때 더 잘 일어난다. 따라서 경기장에서는 당분이나 탄산성분이 함유된 음료보다는 생수를 마시는 것이 좋다.

▶열 피로감= 열 피로가 나타날 때는 응원이고 뭐고 일단 쉬는 것이 좋다. 열 피로는 두통을 비롯해 다리가 풀리거나 근육경련 등을 동반하는데 이런 증상을 무시하고 지나치면 열사병으로 진행돼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열 피로가 올 때는 즉각 태양광선을 피하고 편안하게 누운 상태에서 옷, 신발 등을 풀어 인체를 느슨하게 유지하면서 수분을 섭취해야 한다.

신경전문의 정동철씨는 "승리만큼 중요한 것은 바로 나와 가족과 주위 사람들의 건강이라는 점을 잊지 말고 축구를 즐기는 것이 가장 건강한 응원"이라고 말했다.

'월드컵 즐겁게 보기' 10대 수칙

보건복지부는 월드컵에서 선전하는 한국 축구대표팀의 경기를 건강을 해치지 않고 즐겁게 보기 위한 '10대 수칙'을 발표했다.

△경기 종료 후 패배를 대비한 감정 조절 △지나치게 경기에 몰입하지 말고 즐긴다는 마음으로 관전 △야외 관전시 장시간 햇볕 노출 방지 △관전시 군것질은 야채나 과일로 할 것 등이다. 만약 안전사고나 건강 문제가 생길 경우 국번없이 119나 1339로 연락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건강 담당= 김주일 기자 jlkim@buddhapia.com

"부처님 인연에 오직 정성을 다합니다"

아 라 냐

스님을 위한 승복과 신도님이 입으실 법복,
오로지 정성을 다해 짓습니다.



승복 맞춤 판매전문
- 가사, 장삼, 두루막, 누비, 모시,
삼베, 승복, 신도복, 몽배,
티셔츠, 남방, 방석 등

부산시 서면 지하철역 부전지하상가 F6호
051)818-8063

성모암 능제 연꽃축제 및 수륙방생 천도재

삼보전에 귀의하옵고
조선 명종때 불거촌에서 탄생하신 진묵대사님은 동양의 소 석가라하여 진나라 능인적묵(能印寂默)의 자리에 오르사 진묵이라 청송하여 후대에 업적이 길이남아 우러러 전한다 그중 만경의 능제에 남기신 행적은 하도 기이하여 구전됨에 후학들이 아래와 같은 행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수행중에 밝은 혜안으로 보니 지금의 능제 저수지에 고기잡이하는 처사님과 아이들을보고 황급히 달려가 야단을 치니 처사님들은 아랑곳 하지 아니하고 되려 매운탕을 권하며 대사를 능하여 이에 대사는 받아먹고 용변으로 죽은 물고기를 살아숨쉬는 고기로 다시 방생하는 기이한 행적을 보이사 모두 놀라 엎드려 절하며 참회 하였다 전합니다.
바로 그곳 능제 저수지에 지금은 연꽃이 만발함에 축제를 열고 수륙 천도제와 방생법회를 봉행하오니 모두 참석하시길 모든 대중에게 아룁니다.

성모암 대중일동

■ 일시 : 2002년 7월 17일 수요일 11시
■ 장소 : 능제 연꽃 축제 대행사장

※ 모든 방생물은 주최인 성모암에서 준비하며 자라, 청거북, 가물치, 등등 방생금지 하오니 착오없으시길 바랍니다.
※ 점심은 성모암에서 일괄 무료로 준비하오니 사찰에서 동참하시는 스님께서는 미리 전화주시길 부탁 합니다.

연락처 : 성모암 종무소
Tel. 063)544-0416, Fax. 063)542-6991

현 시대의 병은 어디에서 왔느냐?

성인병의 신효한 三淨丹(삼정단)



천지기운이 돌아가는 법칙을 알아야 세상의 시대 변화를 알겠으니...
오랜세월 산사에서 토굴을 짓고 살면서 동양철학, 운기학(運氣學), 민간약초만 연구하여온 삼정스님
시대가 변하면 병도 변하고 그시대에 따라 먹는 음식도 약도 변해야 된다고 한다. 현대의 병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왔느냐?
공기, 수질, 농약, 중금속오염 등 각가지 공해와 오염의 독속에서 살아가고 있으며 온 일류가 자연의 법칙을 거역한 죄로 예전에 없던 각가지 중병을 앓으며 죽어가고 있다. 이 가공할 죽음의 질병들 앞에 우리인간은 완전 무력하다. 옛날 의서에도 세상이 변하는데로 약을 쓰라고 했다. 지금은 화(火)의 기운이 성한 시기다. 〈음양오행의 화(火)〉
모든게 불 세상이다. 신경성 질환, 당뇨, 혈압, 암등 각종 장기의 염증등 전체가 화에서 일어난 병이니 불을 끄려면 자연의 이치상 물을 부어 불을 끄는 이치와 같으니 오염의 독을 해독하고 나면 인체의 자연치유력을 증강시켜 스스로 병을 치유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삼정스님은 우리 인체의 신진대사를 촉진, 기혈(氣血)이 원만이 행기(行氣), 활혈(活血)하고 정심(正心), 삼합일이 되어야 건강한 정신, 건강한육체를 가지게 된다하여 삼정단이라 이름을 붙여 각가지 병들로 인하여 체질이 허약하고 신체의 리듬이 깨져 온갖 성인병으로 몸이 쇠약하여 고생하시는 분을위해 삼정스님은 우리 나라 깊은 산속에서 자생하는 석남엽, 구지뽕나무 등 각가지 열매나 뿌리를 어렵게 법제과정을 거친 그 결실을 불자님께 드리게 되었습니다.

특히
- 가슴 위가 답답하고 머리가 자주 어지러운 분, 빈혈, 저혈압, 뇌기능강화
- 얼굴에 핏기가 없고 이유없이 항상 피곤한 분
- 신허로오는 요통, 신장기능 저하증, 소변이 잦으면서 시원하지 않는 분
- 각종 부인병, 손발이 저리고, 냉한 분, 불임증, 산후병, 갱년기장애
- 벼가 약하며 각종 신경통, 요통, 골다공증, 관절염, 디스크
- 각종 신경성질환, 간기능저하증, 간염, 간경화

※ 편두통, 기관지천식, 중풍, 당뇨, 암 등 각종 성인병으로 고생하시는 분은 개별 상담해 드립니다.

상담문의 : 053-652-3300

불자정보

강좌안내, 각종 소식, 구인·구직, 불교관련상품홍보 등 생활 속의 모든 정보가 살아 있습니다.
· 사찰안내 · 구인 · 구직 규격 50.000원 / 일반업체 규격 70.000원
· 전화 : 02)732-1522 (直) 02)737-8881 (代)
· FAX : 02)737-0697

스님을 찾습니다
15년전 서초동 대성사에 계셨던 도문스님 시봉 법미스님을 찾습니다. 희정엄마
019)362-3160

공양주 보살님 구합니다
▷천안 보현사
60세 미만
041)554-8486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02)914-6187

제의식, 불공 등 임시로
스님 필요한곳은 연락바랍니다
051)462-7374
018)523-7374

고려대장경
간본대장경
속장경
돈황 보장
불사자금관계로
급히 양도 합니다
054)853-3855

공양주 보살님 구합니다
▷정릉 보림사
02)914-6187

부산 근교 경관이 수려함 부전스님 모십니다
018)581-1155

◇ 구운 마늘환 ◇
- 100% 토종 육쪽 마늘 -
기적을 일으키는 놀라운 마늘의 효능
▷ 심한피로 / 정력강화
▷ 간기능 획기적 개선
▷ 혈압/혈당치를 낮추고 장 변비 개선
▷ 손발냉증, 피부 고와짐
▷ 감기에 강한 체질로
동양물산 080-375-7575

동성불교사
개금 · 천불 · 범종 · 동불전문
代表 李相萬 법명:보환
TEL : 031)575-2532
FAX : 031)575-2647
자 택 : 031)563-8733
031)563-8771
H·P : 011)255-3286

각종 행사 문안 작성
설법 · 법문 · 발원문
권선문 · 축사 · 인사말
출판제작(법요집)
글 밭 농 원
전화 02)312-6636
팩스 02)393-6606

대표 김정현
◇주택,아파트 리모델링
◇상업공간, 광장
◇상가, 병원, 학원
◇신축, 계축, 보수
◇조립식, 칸막이, 건물
◇도장공사
TEL : 02)683-4631
FAX : 02)683-4632
H·P : 011)412-0051
동방인테리어건축

사주학의 최고봉
기문둔갑 강좌
수강생 모집. 명리 무료강의 : 미래를 예측하고 운기(運氣)를 조정하는 역학의 최고봉 "정통 기문 대가 直講
현재 불교 방송국 개강
초중연구 3개월 금요일
문의처 : 02-703-0108
휴대폰 : 011-775-8709

비구니 부전스님 모십니다
02)877-7514

♣ 보 리 수 ♣
취급 품목 : 각종 수입향 염 주 불교악세사리 광 악 | 일 체
남대문 자유 수입상가 구 80호
전화 : 778-5345
팩 스 : 777-1917
핸드폰 : 017-231-5345

연꽃 그림에 부처님 말씀을 담아드립니다.
한지에 수묵담채화(미표구)
크기 : 소 · 중 · 대 · 특대 병풍 부채
각종 보시용 · 선물용 · 붕안식용
전화주문후 계좌송금 확인 즉시 작업착수 등기 송달
● 입금계좌 : 우체국 703496-02-083632
● 견본참조 : www.jeongpung.co.kr
연꽃 053)381-5698
화가 018)588-5698

49재 천도재 시다림 봉불 점안 안택 각종 의식에 청하시면 전국 어디든 가겠습니다.
영산재 이 수 스님 입니다
경남 거창군 덕유산 입구 소재 사찰 터 싸게 내려 합니다
016)857-4500

해 원 사
연쇄적 사업실패, 잦은병고, 가정불화, 가슴이 답답하고 잠을 자다가 벌떡 일어나며 불면으로 고생 하는 분 상담해 드립니다.
031)532-6661

사찰 안내
● 위치 : 대전 근교 시내에서 15분거리
● 대지 100평 건평 68평 2층 법당 방 5칸 거실 큼 석가모니불 목조 4자 후불목조 양각 탱화 신중탱화
043)733-8108

포교당 안내
● 위치 : 경북 영천 금호읍 (영천 롤게이트 부근)
● 대지 : 100평
● 가액 : 5천만원
● 특징 :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모심, 국도 인접하여 교통이 편리함
054)337-9916

사찰 안내
● 위치 : 부산 시내 황령산 최고요지 절입구 도량내 소나물 울창 산수경관이 수려한 기도도량
● 면적 500평, 법당, 관음당, 산신각 용왕당, 요사채, 방 4개
● 전세 5500만원. 버스도 다님
055)385-0065~6
011)570-3357

의식스님이 필요하신 분
전통의식이 신심이 돈독해지며 영산작법과 우리말이라야 환희심과 경건, 엄숙의 극대화가 있지 않겠는가!
49재 및 천도재 등 각종 의식에 바라춤과 나비춤을 곁들여 적은 부담으로 보시하오니 연락바랍니다.
041)571-1112~3
016)9414-1525

장수건강
돌침대 볼大할인
잠자리 바꿔 보세요 - 건강이보입니다
좋은 잠자리가 보약입니다.(사계절용)
돌침대는 세멘바닥의 사기(邪氣)와수맥을 막아줍니다.

▲싱글보료
02)424-9427
장수건강온돌(리빙스톤)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 ● 위치 : 논산 ● 위치 : 서울
● 법 당 : 23평 ● 법 당 : 20평 ● 법 당 : 27평
● 요 사 : 50평 ● 요 사 : 100평 ● 요 사 : 110평
● 부 지 : 166평 ● 부 지 : 900평 ● 부 지 : 175평
● 가 액 : 3억 7천 ● 가 액 : 3억 8천 ● 가 액 : 9억
※ 전국사찰, 포교당대량보유, 양도,손양하실 분 연락바랍니다. 부전스님 및 공양주 보살님 연결하여 드립니다.
청송기획 02) 998-1994 / 011) 713-5634

암자(급)안내
● 위치 : 경북 의성 안계
● 건평 : 47평(법당 삼존불 칠성 지장 관음 탱화)
● 대지 140평(문중땅 영구 임대)
● 양도가 : 2500만원
● 비구니 스님 수행정진 적합
연 화 암
054)862-5027
011)9590-5027

암자전원주택지안내
● 대지 : 603평 조경완비 1억 9천만원
● 위치 : 경기도 여주군 점동면 당진리
● 대지 : 314평 조경완비 1억 4천만원
● 위치 : 여주군 가남면 송림리 208번지
주인직거래, 각각 별도 매매
018)315-9080

사찰(특혜)안내
● 대구 (보 6백, 월40 + 시설 2천 5백)
● 본사찰에서 수월 또는 수년간 수행하다 인수원할시에 계약 체결하실 참신한 분 모십니다.
011)458-2955

포교당(급)안내
● 위치 : 김해시 동상동
● 건물 : 4층 건물 중 3층 50평
● 법당, 주방, 방 3개
● 주차장 완비, 즉시 법회 가능
● 보증금 3천만원 월 46만원
● 시설비 2천만원 절충가능
017)843-9144

수행 수련 수험생 전용 藥食
眞如일체 완전 食
● 두뇌가 맑아지며 잠이 적어집니다.
● 송과 선등을 각성시키고 의식의 개화를 촉진시킵니다.
● 기능 및 전신의 세맥을 열고 차크라의 흐름을 순일하게 합니다.
● 허리,다리,장 등 온몸을 줄게 하고 기운이 나게합니다.
● 영양학적인 측면과 한방의 학적인 오랜경토를 거쳤습니다.
● 최고급의 원료를 사용하였으며 기타 효능까지 고려하였습니다. 완벽과 최고를 향한 집념
無漏行, 眞如의학연구소
011)9715-6071 / 02)988-8469

권대창불교건축 권대창목재
● 사찰대웅전 건축
● 고건축 시공
● 문화재 복원개보수 업체
● 한옥(전통한식)
● 황토방 시공
● 불사하실 스님 상담환영
공장 054)781-4989
H P 016)768-4324
011)246-2210
● 태백산(울진, 봉화)지역의 적송 춘양목
▲연목 : 12자~24자까지 5치~8치
▲원목 : 9자 : 1자 - 2자 2치,
12자 : 1자 - 2치
▲기둥 : 18자 : 1자 - 1자 8치
▲도리 : 20자 : 1자 - 1자 8치,
24자 : 1자 - 7치
▲보갑 : 24자, 30자, 36자,
42자 : 1자 ~ 2자까지
(주)대창종합개발 이종봉 합장

사찰 급안내
● 위치 : 화성시 팔탄(도로근접)
● 법당 : 23평
● 산신당 5평, 요사체 70평
● 부지 : 240평
● 가액 : 3억 절충가능
- 관심있는 분만 전화요망 -
011)785-5670

포교당(급)안내
● 위치 : 경북 왜관시내 중심가
● 건물 : 2층 건물 중 2층 (70평, 방 2, 주방 1)
● 시설완벽, 포교당최적지, 즉시법회가능
● 가액 : 보증금 1,000만원 월 50만원
● 시설비 답사 후 결정
011)822-9622

사찰 터 안내
● 평수 : 540평
● 소백산 연화봉 (계곡있음) 단양에서 10분거리
● 가액 : 1600만원
011)748-7604

사찰(급)안내
● 위치 : 경기도 포천 스키장 근처
● 부지 1300평
● 건물 : 25평 55평 20평 3동
● 산세수려하고 전망이 좋음 납골당도 가능
● 가액 4억
031)533-2420

대방광불화엄경
大方廣佛華嚴經
◆ 목판본 백질 한정본 판매 ◆
● 화엄경 (80권) - 1,500,000원
● 사 교 (7권) - 250,000원
● 법화경 (7권) - 180,000원
목판본 한지한장본으로 제본. 법당 부처님 복장장엄용. 강본으로 사용
해인사 055) 932-7252 김창본
신부락 011) 545-7252 처 사

사 찰 안 내
● 위치 : 수원시내 소재
● 대지 : 95평
● 법당 : 30평
● 요사 : 60평
● 양도가 : 3억 3천 (대출가능)
● 산새 좋은도심 사찰 임
● 위치 : 진주시 근교
● 대지 : 600평
● 법당 : 30평
● 요사 : 60평
● 양도가 : 3억 5천
● 역사깊은 좋은 사찰임
한국최고의 사찰컨설팅 **한국불사** 02)561-7791/011)530-1975
전국소재 사찰, 암자 양도, 양수할 스님께서는 전화 상담 환영합니다.

사찰 안내
● 위치 : 경남 함양 (지리산)
● 부지 : 605평, 황토한옥 32평
● 요사 9평, 탑돌레 25m
● 연못, 남향위치, 밭 244평
● 가액 : 1억 3천 (절충가능)
055)963-4965

암자안내
● 위치 : 경남 함안 방어 산내 <마산 진주 20~30분>
● 대지 : 80평<실평수 약 100여평>
● 건물 : 임법당 30평 부속건물 10평 절마당까지 차량진입. 방 4칸 현대식 주방 포장도로 완료
● 비구니 수행 도량 최적지
● 가액 : 4200만원
017)853-2224
<꼭 하실분 만 연락주세요>

포교당안내
● 위치 : 서울 쌍문동 근교 일광사 포교원
● 건물 30평, 법당 20평, 방1, 부엌1 삼존불(부처님 동불로 모셔져 있음) 후불 신중 산신 탱화
● 쌍문 전철역에서 도봉 보건소 앞(마을버스)
● 가액 : 보증금 1500만원 월 38만원 시설비 1200만원
02)998-0940
017)372-0940

포교당안내
● 위치 : 거여 전철역 1번 출구
● 평수 : 10평
● 가액 : 보증금 1000만원
● 월세 : 40만원
011)9993-2165

여름철 피서객 예약접수
여행경비도 절약하고 산과 바다를 동시에 즐길 수 있는 일석이조 피서지 예약으로 들뜬진 추억을 만들어 보세요 시내와 바다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전망 좋은 거제도 숲속의 사찰. 걸어서도 5분이면 바닷가를 갈수 있습니다. 숙식제공하고 피시객 1인 하루 3만원이며 야영객은 텐트 장소 1만원 불자들은 기도접수 하면 가능 밤에는 모닥불 켜놓고 손뼉치며 노래할 수 있는 여유와 낭만이 있는 곳입니다. 해수욕도 하고 산사의 정취도 맛보고 동산도 할수있으며 특별히 모든행동 자유롭게 개방합니다. 광고는 단한번 분이며 예약접수 하신분은 저의 서예작품 한점씩 드립니다.
055)687-5358/055)687-5959

사 찰 안 내
● 위치 : 지리산 육모정 근처 ● 대지 : 1200평 중 종교부지 : 300평
● 전 : 700평 [하천부지 : 300평, 주택지 : 283평 사용가능]
● 대웅전 : 20평 ● 산신각 : 4평 ● 독성각 : 2평
● 요사채 2동 방 4개 조립식 건물 ● 회의실 : 13평 1동
● 현시세 신축건물 매매가격 3억만원(절충가능)
● 불사 할 수 있는 도량. 스님 및 법사님 환영
063)625-9992 011)9642-8833 011)9642-1202

토굴 암자 안내
● 위치 : 경북 의성에서 10분거리 상단 중단 칠성 산신용왕 탱화 및 불상 사리 3과
● 시설 및 살림도구 일체
● 대지 : 110평
● 가액 : 3800만원
054)833-8779

토굴안내
● 위치 : 경북 봉화군 소천면 현동에서 택시로 20분거리
● 두지 : 건물 2동 논 밭 6천평
● 특징 : 산새수려하고 송림 울창한 적정처 주위의 송이버섯 많이 남. 꽃나무 유실수 다수. 조견수려 전기, 전화있음 ● 가액 : 6천만원
051)257-0052
018)762-4387

사찰 터 안내
● 위치 : 충남 금산 진산면 (대전에 20분거리)
● 대지 : 전, 밭, 임야 합 8746평 도로 전기 공사 완료
● 육각정(목조) 한동 주거용 컨테이너 1동 약수터(옹달샘) 및 연못
가액 : 평당 3만오천원
011)826-6888

포교당안내
● 위치 : 부산시 동래구 온천 1동 169-53
● 건물 30평, 단층 기와집, 대지 65평 온천장 동물원 금강공원 금정사 동래별장 허심청 모두 도보로 3분거리
● 3억에 구입했으나 일본 유학 관계로 2억 5천에 양도 하겠음.
● 개인 주차장 있으며 주위 약 10대 정도 주차 가능함
● 팔공암 정릉 4동 4500만원(전세) 대지 100평 인법당 30평
02)914-3958/02)747-6863

사 찰 양 도 안 내
● 부지(종교용지) : 2013坪 ● 法堂 : 13평
● 요사채 : 20坪 매가 : 8억 5천만원 ● 위치 : 서해안
● 특징 : 1. 1400년된 전통사찰(사지)
2. 마이여래불(지방문화재로 지정 조성연대 고려말로 추정)
3. 암반약수(수량풍부) 4. 자동차 진입 가능
5.천혜의 자연 경관과 우람한 바위가 어우러져 장관을 이루고 있으며 좌청용 우백호가 뚜렷한 대찰터임
6. 지방 문화재 보전 사업비 지원 사찰임
사찰정보센터 : 금강기획 02)736-3578~9
011)789-2255

사찰 안내
● 위치 : 밀양
● 면적 : 170평
● 법당 : 23평
● 요사 : 20평 (마을과 인접한 아담한 사찰)
● 양도가 : 1억 5천

토굴안내
● 위치 : 부산
● 면접 : 400평
● 법당 27평 요사 40평 (산속에 위치한 도심사찰)
● 양도가 : 6억

토굴안내
● 위치 : 밀양시 상동면
● 면접 : 379평
● 요사채 : 20평 (풍수만점의 마을 인근 토굴)
● 양도가 : 1억 5천

부산 영남지방 풍수컨문 사찰 컨설팅(양도, 인수하실 스님 상담환영, 절대 보안유지)
佛國불사 018-563-9575 (홈페이지 www.pungsu-serve.com)

사찰 안내
● 절입구 도량내에 소나무가 울창하고 산수경관이 수려한 기도도량 임
● 위치 : 부산 약 30분 울산 약 15분 양산시 웅산읍 서창리 대운산 탑자골
● 면적 약 600평
● 극락전 지장전 용왕전 삼성각 요사채 2동
● 가액 : 3억 5천
055)386-7463
016)355-4264

사찰안내
● 위치 : 대구시 동구 신암동
● 법당 : 2 · 3층(약 50평)
● 특징 : 삼존부처님, 문수보살님 그외 여러 부처님 모심(완벽한 법당 내부시설)
● 가액 : 보증금 5백만원, 월 40만원
시설비 별도 : 6천만원 (현장방문 후 가액조정)
성 불 사
011)398-9807
053)957-9551

사찰 안내
● 절입구 도량내에 소나무가 울창하고 산수경관이 수려한 기도도량 임
● 위치 : 부산 약 30분 울산 약 15분 양산시 웅산읍 서창리 대운산 탑자골
● 면적 약 600평
● 극락전 지장전 용왕전 삼성각 요사채 2동
● 가액 : 3억 5천
055)386-7463
016)355-4264

사찰 안내
● 대지 192평
● 요사채 70평, 법당 20평
● 방 6개, 욕실 2개
● 주방 3개, 거실 3개
● 법당단청 했음, 미륵부처님 모셨음 산새 수려함 큰스님 병환으로 급매
● 임진강 앞이 보이고 자유로 앞에 있음
● 가액 3억 2천 답사후 결정
031)952-7905

사 찰 안 내
● 위 치 : 수원근교 ● 대 지 : 100평
● 법 당 : 15평 ● 요 사 : 20평
● 가액 : 1억 2천 만원
※ 사찰 암자 양도 양수 하실 분 전화상담 환영합니다. 부전스님 공양주 보살님 연결하여 드립니다.
광진불사 02)723-4082

포교당(급)안내
● 위치 : 서울 성동구 하왕십리 1동
● 대지 : 67평(255m²)
● 건평 : 1층 법당 40평 지층 요사 40평 방 5개 2층 지장전 20평
● 가액 : 3억 5천
● 현재포교원 운영 중. 스님 신병으로 급 양도 함
꼭 하실 분 연락 바랍니다
02)2292-7295/016)824-0946

사찰 안내
● 위치 : 경북 의성
● 부지 : 1,100여평
● 법당 : 10평
● 요사 : 22평
● 주차장 완비
● 가액 : 9천만원가액절충
016)635-4569
055)962-7401

사찰(터) 안내
● 위치 : 경남 고성 퉁영간
● 부지 : 약 800평(준농림지) 안정 공단 부근, 인구 30만 신도시 개발지
● 특징 : 지산이 높고 좌측에 계곡이 깊어 사철물이 철철 흐름 앞에 삼면이 바다로 확티어 아주 좋음
● 가액 : 3000만원(절터로 명당)
017)844-9448
016)207-5600

사찰 급안내
● 위치 : 화성시 팔탄(도로근접)
● 법당 : 23평
● 산신당 5평, 요사체 70평
● 부지 : 240평
● 가액 : 3억 절충가능
- 관심있는 분만 전화요망 -
011)785-5670

사찰(급)안내
● 위치 : 전남 광양시 광양읍 마을 끝집
● 대지 : 73평 2층 건물 37평, 1층 요사채 2층 임법당
● 가액 5,500만원(융자있음)
※ 지하수, 뒷편공원, 교통편리 거의 새집
061)762-2630

암자용도전원주택 안내
● 위치 : 경북 영천근교, 대구서 50분 ~ 1시간
● 부지 : 밭 600평, 중심에 대지 150평 + 계곡부지
● 건물 : 신축한옥 30평(큰방 2, 작은방 2, 큰마루, 부엌, 화장실) 외 창고 12평
● 특징 : 산세수려하고 마당앞엔 사철 흐르는 청정계곡이 있고 마당까지 큰차진입
● 가액 : 7800만원(실제공사비)
054)337-5156
011)9857-5156

부산불교거사림회 창립 30주년

불교대중·생활화 큰기여

거사불교 '원조' …25일 기념법회 봉행

법석 700회…경봉스님·이기영 박사등 법단에

부산불교거사림회(회장 김정도)가 창립 30주년을 맞아 거사불교의 새 역사를 열고 있다.

25일 통도사 부산포교원 3층 법당에서 보성스님을 초청법사로 창립 30주년 기념대법회를 여는 부산불교거사림회는 1972년 거사 중심의 생활불교를 제창하며 첫걸음을 내디뎠다. 거사들의 불교활동이 거의 없던 시절 창립된 부산불교거사림회는 한국 거사불교의 원조로 거사불교 활성화를 이끌어낸 주역이다. 또한 창립때부터 매월 둘째, 넷째 화요일마다 꾸준히 열어온 화요법회는 불교의 대중화와 생활화에 크게 기여하며 갖가지 진기록을 낳았다.

25일 열리는 보성스님 초청법회는 부산불교거사림회의 제681회 정기법회로 거사림회의 오랜 연륜과 부단한 포교 운동의 역사를 대변한다. 한 신행단체에서 7백회에 달하는 법석을 이어왔다는 점 외에도, 그동안 초청된 법사들의 면면 또한 예사롭지 않다. 석암, 경봉, 향곡, 탄허 스님 등 당대의 선지식들과 백봉 김기추 거사, 이기영 박사 등 재가의 법사들이 모두 법회의 법단에 올랐다.

그동안 거사림법회에서 설법한 스님과 재가 지도법사는 모두 150여명. 75년부터 상임지도법사로 300회 가까이 법문해 온 종범스님(중앙승가대 총장)과 95년부터 상임법사로 활동해온 지안스님(전 통도사 강주)을 제외한 모든 스님들은 매 법회마다 일일이 모셔졌다. 평균 참석인원 3백여명에 달하는 대중 법회를 열기 위해, 스스로 대중의 심부름꾼이 되어 덕높은 스님들을 찾아 모시는데 들인 거사림회의 노고를 짐작케 한다.

정기법회를 통해 부산불교는 물론 전국에서 활동하는 거사들을 길러내는 터전이 되어왔던 부산불교거사림회는 이제 전국에 튼튼한 뿌리를 내리고 보다 많은 이들에게 불법의 그늘과 혜택을 드리우는 거목으로 성장했다. 김정도(65, 자영업) 회장은 "30년 동안 역대 선배들이 보여준 포교 운동은 한국 거사불교운동의 중추가 되었다"며 "차세대 불교를 이끌어갈 젊은 거사들을 길러내는 포교 운동을 멈추지 않겠다"고 말했다.



◇지난 92년 부산 새마당에식장에서 열린 부산불교거사림회 창립 20주년 기념 원명스님 초청법회.



"山寺탈피 마을포교 초창기법회 인기 대단"

부산불교거사림 이인희 자문위원

"16명 정도의 뜻맞는 거사들이 모여 불교의 대중화와 생활화를 선도해 보고자 발심했던 것이 어느덧 30년을 이어왔어요. 그때만 해도 법회가 드물어서 특정 사찰이나 단체에 소속되지 않고도 법문을 들을 수 있는 거사림회 법회의 인기가 대단했어요."

이인희(79, 부산불교거사림회 자문위원) 거사는 부산불교거사림회의 산증인이다. 김석배(86) 초대회장 재임시 부회장을 맡아 활동하다, 75년부터 세차례나 회장을 역임한 이 거사는 회원을 통틀어 법회 참석 횟수나 참석율 모두에서 단연 최고다. 이 거사는 "회비만으론 법사비가 턱없이 모자라 회장이나 간부들이 주머니돈을 털어도 결코 대중들에게 돈 내라고 하거나 스님들에게 의탁하지 않았다"며 "욕심내지 않고 인연 있는 단 한사람을 위해서라도 법회를 열겠다는 각오가 있었기에 30년을 이어올 수 있었다"고 회고했다. 지금도 현역처럼 활동하는 이거사는 "산중불교에서 탈피한 마을 포교의 효시였던 거사림회의 활동은 언제까지나 이어질 것"이라는 확신을 피력했다.

부산=천미희 기자

진각종 교리 교학적체계 갖춰야

회당대종사 탄생100돌 세미나

위덕대 밀교문화연구원이 18일 위덕대 대회의실에서 회당 대종사 탄생 100주년 기념세미나를 개최했다.

'진각종의 창교의의와 밀교수행법'을 주제로 한 이날 세미나는 위덕대 김무생 교수와 장 익 교수의 '종조의 종파관과 창교의의' '대일경의 수행관'에 대한 각각의 주제발표와 함께 자유토론으로 진행됐다.

김무생 교수는 주제발표에서 " 진각종의 정신적 바탕과 교리는 시대를 뛰어 넘어 적용될 수 있는 보편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보편성은 시대상황을 정확히 읽고 적용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고 전제하고 "진각종의 종교적 정신과 교리를 보다 명확히 교학적 체계로 다듬고, 이에 따른 수행 및 실천 양식을 만들어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한명우 기자

'한일 모두 16강' 보람

월드컵 평화도보 대장정 회향

한일 개최 도시를 걸어서 돌아보는 2002 평화 도보 대장정단(단장 원공스님) 일행 12명이 일본 순회를 마치고 16일 부산항으로 귀국했다.

월드컵 개최 10개 도시를 걸어서 돌며 환경 캠페인도 벌인 장정단은 25일 울산 문수경기장을 거쳐 30일 대구 종합경기장까지 걷는 것을 끝으로 4천㎞에 이르는 대장정을 회향한다.

김재경 기자



◇16일 부산 국제여객터미널에 도착한 원공스님(오른쪽)등 평화대장정 단원들.

"금강경독송·참선 위출혈치료"

장쩌민주석 정혜스님만나…종교정책변화 가능성



장쩌민(江澤民 · 사진) 중국 국가주석이 불경을 읽고 있으며 참선으로 위출혈을 고친 바 있다고 밝혀 향후 중국의 종교 정책 변화 가능성을 놓고 주목을 끌고 있다.

홍콩 일간 명보(明報)는 20일 장 주석이 지난해 11월 하북(河北)성 조(趙)현에 있는 백림선사(柏林禪寺, 방장 정혜스님)를 찾아 고승들과 대화하던 중 "당 총서기로 무신론자에 속하지만 불교나 기독교, 이슬람교 등 종교에 관심이 있으며 1957년 3개월간의 좌선으로 위출혈을 치유한 적도 있다"면서 불교와의 인연을 강조했다고 보도했다.

이 사찰의 명해(明海) 법사가 발표한 '장쩌민 총서기 백림선사 시찰 현장 기록'에 따르면 장 주석은 해마다 한 차례씩 꼭 종교기관을 방문하며 불경, 성경, 코란 등도 탐독하고 있다고 밝히고 일과를 마치고 밤에 때론 〈금강경〉을 읽고 있다는 것이다.

장 주석은 당시 당중앙 조직부장과 해방군 총참모장 등을 대동하고 백림선사를 참배했으며 사찰 도착 후 차에서 내린 뒤 마중 나온 방장 정혜(중국불교협회 부회장) 스님에게 합장한 채 '아미타불'이라는 인사로 예를 갖춘 것으로 알려졌다.

'명보'는 또한 장 주석이 저명한 고승이자 시인, 서예가인 홍일(弘一)대사와 시문에 능했던 중화민국 초기의 고승 만수(曼殊) 스님 등에 대해서도 상세히 알고 있으며 이들의 시문도 연구한 바 있다고 부연, 주목을 끌었다.

"진신불지사리 대만전시도 장주석 지시로 성사"후문

한편 대만 불광산사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2월 중국의 국보인 법문사(法門寺)의 부처님 손가락 진신 사리(眞身佛指 舍利)가 대만 주요 도시들에서 전시하게 된 것도 장 주석의 지시에 의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장 주석은 대만 불교계의 대표인 불광산 성운대사와 만나, 중국-대만간 최초의 불교문화교류를 가능하게 했다는 후문이다.

김재경 기자

대표적 지장도량 심원사지 복원

2004년까지 23억투입, 천불전·봉향각 등 건립

한국의 대표적 지장도량이었던 연천군 심원사지가 복원된다.

경기도 연천군 신서면 내산리 일대 250만평에서 진행되는 심원사지 복원불사는 철원 심원사(주지 도후)와 경기도청, 연천군청이 23억여원을 투입하여 천불전, 삼성각, 봉향각, 사천왕문 등을 건립한다. 올해 1차 사업으로 10억여원의 예산을 투입, 친입로 정비와 사지정비 후 주법당인 천불전 착공까지 끝마친다는 계획이다.

철원 심원사는 연천 심원사지를 복원하기 위해 지난해 경기도와 연천군의 허가를 받은 후, 지난 4월에는 군부대로부터 사지복원 허가를 받았다.

647년 영원조사가 창건한 연천 보개산 심원사는 12개의 산내암자와 32위의 탱화, 1,609위의 불상, 탑 2기, 250간의 당우를 갖춘 대 사찰이었으나 6 · 25전쟁당시 소실돼 현재 천불전 건물 1동, 지장보살석상 1위, 공적비 2위, 지장보살불상 영험비 1위, 부도 11기만 남아있다. 이중 천불전 건물과 지장보살상은 6 · 25 이후 이전한 철원군 동송읍 상노1리 현재의 심원사로 옮겨졌다.

주지 도후 스님은 "6.25전쟁으로 소실된 심원사지를 올해부터 시작하여 2004년까지 복원 하겠다"며 "이를 위해 몇 년 전 대법원까지 가는 재판 끝에 정부가 편입시킨 사지소유 토지 250만평을 되찾아왔다"고 밝혔다.

김원우기자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여기 있는가?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그에 대한 답이 여기 있습니다.
밝은길 아바타 센터
전화주시는 분께는 안내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경전의 이 말씀을, 당신께서 투자하는 단, 9일간의 내면 여행으로 터득하실 수 있습니다. 당신의 소원을 이루십시오.
서울 종로구 평창동 45번지
☎ 02)396-2736 · HP 016)228-2358
http://www.avatarcenter.co.kr
E-mail:bokbat@kornet.net
마스터/위저드 김희균

목탁소리

'한국문학회' 지원

천 미 희 (부산주재 기자)

생사의 무상함과 두려움, 인생의 절망과 고독 그리고 구원을 위한 깊은 종교의 세계까지 담고 있는 향가 '제망매가'는 불교문학의 정수로 꼽힌다. 시공을 넘어 깨우침을 주는 '제망매가'의 큰 감동을 접할 때면, 향가를 대신할 이 시대 불교문학이 그리워지기도 했었다. 그러나 우리 민족 사상의 기저를 이룬 불교문학에 대한 연구나 고승들의 문집, 선시에 대한 연구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현실에서 현대 불교문학의 창작을 기대할 수 없는 형편이었다.

그런데 지난 5일 부산 삼광사(주지 도원) 법화삼매당에서는 불교문학의 학술적 연구와 창작에 전환점을 가져올 뜻깊은 행사가 열렸다. 삼광사가 한국문학을 연구하는 학술단체 한국문학회(회장 정상진)에 매년 1천만원의 지원을 약속한 것이다. 이것은 사찰의 재정 일부를 불교문학의 발전에 꾸준히 투자하겠다는 이례적인 일이었다.

한국문학회는 "한국문학의 연구와 불교순수문학 발전을 앞당길 값진 지원"이라며 지원을 크게 환영했다. 1977년 창립이후 380여 회원이 참여하고 있는 한국문학회는 삼광사의 지원으로 연 2회 발간하던 논총집을 연 3회 발간할 수 있게 되었으며, 불교문학 관련 세미나 개최와 시, 소설 등 불교 창작문학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약속도 잊지 않았다.

이번 삼광사의 한국문학회 지원은 그동안 삼광사가 삼광한글학술상을 제정, 한글보급과 한글의 학술적 연구 발전에 기여해 온 공적에 비추어 볼 때 불교문학 연구 발전에 적지 않는 성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한국문학회의 바람처럼 이번 지원이 삼광문학학술상 제정으로 이어지길 기대해본다.

불교성지순례전문
(주)대승항공여행사
☎02)730-0202
우110-170 서울 종로구 견지동 110-43 등용문 빌딩 4층
국외여행업 제21-448호 / 국내여행업 제21-138호

중국 불교 성지 기획행사
※지장도량 구화산/황산/항주/상해 5일
▶주요순례지 : 인천 — 남경 — 구화산(육신보전, 백세궁, 천대 화성사, 저원사 등) — 황산 — 황산비경 — 항주 — 인천
※보현도량 아미산/낙산/대족/중경/성도 5일
▶주요순례지 : 인천 — 중경 — 아미산(금정, 보국사, 복호사, 만년사 등) — 낙산(낙산대불, 대불사 등) — 대족(보정산석굴, 북산석굴 등) — 성도 — 인천
※관음도량 보타낙가산/항주/영파/소주 5일
▶주요순례지 : 인천 — 항주(영은사, 서호유람 등) — 영파(아육왕사, 천동사 등) — 보타산(보제사, 법우사, 조음동, 혜제사 등) — 낙가산(백팔나한탑 등) — 상해(임시정부청사, 옥불사 등) — 인천
※문수도량 오대산/대동/태원/북경 5일
▶주요순례지 : 인천 — 북경 — 대동(운강석굴 등) — 혼원(현공사) — 오대산(북대, 중대, 대라정사, 현통사, 탑원사 등) — 태원 — 북경 — 인천

불교 성지 순례
인도 8대성지 10일
▶주요순례지 : 델리—녹야원—부다가야—왕사성—열반당—룸비니—카투만두—인천
인도 8대성지/네팔 13일
▶주요순례지 : 몸바이—엘로라—아잔타—산치—아그라—불교성지—포카라—카투만두
미얀마 6일
▶주요순례지 : 양곤(쉐다곤, 까바예 등)—파간—만달레이—민군—양곤—인천
미얀마 7일
▶주요순례지 : 양곤(쉐다곤, 까바예 등)—파간—만달레이—민군—헤호—양곤—인천
스리랑카 6일
▶주요순례지 : 인천—콜롬보—플론나루와—아누라다푸라—미힌탈레—캔디—인천
인도네시아 5일
▶주요순례지 : 인천—자카르타—족자카르타—(보루부드로 사원 등)—발리—인천
캄보디아 5일
▶주요순례지 : 인천—호치민—앙코르지역(앙코르왓, 앙코르톰, 본레삽 등)—호치민—인천
민족의 영산 백두산 5일
▶주요순례지 : 인천—북경—연길(1)—백두산(1)—북경(2)—인천
민족의 영산 백두산 6일
▶주요순례지 : 인천—북경—연길(1)—백두산(1)—북경(3)—인천
비단길(실크로드) 8일
▶주요순례지 : 인천—서안—돈황(막고굴 등)—유원—투루판(천불동, 고창고성 등)—우루무치
구채구/황룡/성도 7일
▶주요순례지 : 인천—성도(문수원 등)—황룡—구채구—성도—대족—중경—인천
계림/소주/항주 6일
▶주요순례지 : 인천—계림(이강유람, 관암동굴 등)—상해—소주—항주—인천
티벳/성도/낙산 8일
▶주요순례지 : 인천—성도—라싸—시가체—장체—라싸(포탈람궁 등)—성도—낙산—인천
대만 5일
▶주요순례지 : 인천—타이페이—대중불광사—화련—타이페이—인천

세계 문화탐방
중국 운남성 5일
▶주요순례지 : 인천—곤명(구향동굴 등)—석림—곤명(원통사, 곤명호, 민속촌 등)
중국 운남성/대리/여강 8일
▶주요순례지 : 인천—곤명(구향동굴 등)—석림—대리—여강—곤명(곤명호, 민속촌)
일본 오사카/나라/교토 4일
▶주요순례지 : 인천—오사카(오사카성 등)—교토—나라—벳부(온천)—인천
일본 핵심일주 5일
▶주요순례지 : 오사카—교토—신간선—하코네온천동경—닛코—후쿠시마 또는 니가타—인천
일본 북해도 4일
▶주요순례지 : 인천—치토세—오타루—죠잔케이—삿포르—도야—노보리벳쵸
북부 베트남/하롱베이 5일
▶주요순례지 : 인천—하노이—하롱베이—땀꼽—하노이—인천
남부 베트남 5일
▶주요순례지 : 인천—호치민—메콩델타 구찌—붕타우—호치민—인천
유럽4개국 8일(영/프/스/이)
▶주요순례지 : 인천—로마—피렌체—베니스—밀라노—제네바—파리—인천
지중해 3개국+룩소 10일
▶주요순례지 : 인천—카이로—아테네—이스탄불—카이로—룩소—카이로—인천
동유럽+서유럽 완전일주 15일
▶주요순례지 : 인천—프랑크푸르트—프라하—비엔나—짤스부르그—로마—피사—밀라노—파리—런던—인천
미동부+캐나다 퀘백 10일
▶주요순례지 : 인천—뉴욕—워싱턴—나이아가라—토론토—오타와—몬트리오—퀘백—브리지포트—뉴욕—인천
호주/뉴질랜드 남북섬 10일
▶주요순례지 : 인천—시드니—크라이스처치—퀸스타운—오클랜드—로토루와—인천
캐나다 동서부 황공일주 8일
▶주요순례지 : 인천—벤쿠버—빅토리아—캘거리밴프—나이아가라—토론토—인천
중남미 5개국 17일
▶주요순례지 : 인천—멕시코시티—리오데자네이로이과수—부에노스아이레스—리마—꾸스코—인천

여행사는 제조업체가 아닙니다!
아직도 상호와 가격만 보고 상품을 선택하십니까?
"정성이 듬뿍 깃든 마음으로 모시겠습니다."



◇해인사 강원혼성팀과 종무소팀의 해인사 축구대회 경기모습.

화합·우의 다진 '해인축구'

해인사, 단오날 지역주민·신행단체 초청 체육대회

"저 선수 누굽니까. 좋은 기회를 똥볼 차듯 날려버렸군요. 머리 깎은 모습이 다 똑같아서 누가누군지…, 아! 이제 보니 저희 사형(師兄)이군요. 참으로 훌륭한 분입니다. 축구할 때만 빼고요."

15일, 합천 해인사 운동장에서 열린 해인사 축구대회는 홍제, 도원스님의 만담과도 같은 중계로 시작됐다. 해인사는 매년 단오 때마다 지역주민과 신행단체들을 초청, 체육대회를 통해 화합과 우의를 다져왔다.

사교·대교반 양보없는 치열한 결승전

학인들 "10월 전국강원축구대회 반드시 승리"

결승전을 앞두고 강원혼성팀(사집·사교·대교)과 사하촌 청년회간 경기가 열렸다. 전반전에 두 골을 허용한 청년회 팀은 후반 들어 선수를 대폭 교체, 체력전을 편 끝에 결국 2:2 무승부로 경기를 마쳤다. 두 번째는 강원혼성팀과 선원팀의 경기. 결과는 강원팀의 4:1 대승. 경기 중 멋진 플레이가 나오자 인근 사찰에서 온 비구니 스님들은 "오빠"를 연호, 참석자들의 폭소를 자아내기도 했다.

강원혼성팀과 종무소팀과의 경기, 강원 재학생팀과 졸업생팀간의 경기는 스코어와는 상관없는(?)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진행됐다. 특히 강원 졸업생팀과 재학생팀간의 경기에서는 아나운서가 졸업생팀을 향해 "재학생들을 위해 시줏돈이나 넉넉하게 내 놓고 가시라"고 말하자, 재학생팀이 졸업생팀을 극진히 배려(?)하는 플레이를 펼쳐 한바탕 웃음바다를 연출했다. 말 그대로 승가와 재가, 선배와 후배간의 화합과 단결의 한마당이었다.

하지만 마지막 경기인 사교반과 대교반의 결승전은 달랐다. 예선전에서 치문반과 사집반을 각각 꺾고 올라온 사교반과 대교반은 한 치의 양보 없이 치열한 공방전을 펼쳤다.

후반 들어서도 팽팽한 접전이 이어졌으나 체력과 개인기에서 다소 앞선 사교반의 2:0 승리로 끝났다. 하지만 경기가 끝난 뒤 강원 학인들은 승부 보다는 오는 10월 해인사에서 열릴 전국강원축구대회를 철저히 준비하자며 의기투합했다. 강원 최고의 팀다운 모습이었다.

이날 축구대회에서 MVP를 받은 각산 스님(전국강원연합회 부회장)은 "올해는 무조건 우리 팀이 승리할 것"이라며 강한 자신감을 보였다.

한국 화엄종의 근본 도량이자 팔만대장경을 모신 법보종찰 해인사. 있는 그대로의 세계를 한 없이 깊고 넓은 큰 바다에 비유하여, 파도 곧 중생의 번뇌 망상이 비로소 멈출 때 우주의 갖가지 참된 모습이 그대로 물속에(海) 비치는(印) 경지를 말하는 '해인삼매'에서 비롯되었다는 해인사. 해인사는 2002년 한·일 월드컵 성공과 한국축구의 4강 진출을 기원하며 '축구삼매'에 빠져있었다.

합천=남동우 기자

건설사, 정대스님 상대 '건축물 철거…' 소송 제기

불교계, 범불교도대회 통해 강력 대응

북한산 관통도로 및 천성산 고속철도 건설과 관련, 시공사들이 공사를 강행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불교계와 마찰이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산 관통도로 건설 시공사인 서울고속도로(주)는 12일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에 조계종 총무원장 정대스님과 조계사 주지 지홍스님을 상대로 도로 건설 저지를 위해 불교계가 의정부 송추와 호원동에 세운 철마선원 등을 철거할 것을 요청하는 '건축물 철거 및 토지인도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고속도로의 소송제기는 지난 4월 18일 건교부 장관이 총무원장 스님 예방에서 밝혔던 "모든 소송을 취하하고 불교계와 합의를 통해 북한산 문제를 해결 하겠다"는 약속과 배치되는 것이다.

이와 관련 조계종 환경위원 현응스님은 "26일 개최되는 범불교도 대회를 통해 강력하게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천성산 내원사 등이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는 천성산 고속철도 건설 문제도 한층 격화된 분위기를 보이고 있다. 고속철도공단이 환경영향평가를 단독으로 실시하겠다는 의사를 12일 총무원에 전달하자 천성산 관통도로 건설 반대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불교계와 시민환경단체들은 19일 성명서를 통해 "법률적 대응을 비롯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고속철도 건설 저지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강유신 기자



◇6·25 당시 팔만대장경을 구하기 위해 죽음을 무릅쓰고 폭탄투하를 거부한 故 김영환장군을 기리는 공적비가 17일 제막됐다.

'대장경' 구한 김영환장군 공적비 제막

'여기에 화살같이 흐르는 짧은 생애에 불멸의 업적을 남기고 영원히 살아남은 영웅이 있다. 김영환 장군' 〈지관스님 공적비문 중〉

합천 해인사(주지 세민)는 17일 경내 삼선암 입구에 6.25전쟁 당시 미군의 명령에 불복하면서 팔만대장경을 수호한 故 김영환 장군의 공적비를 제막했다.

해인사 주지 세민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불심 깊었던 김영환 장군의 민족문화에 대한 굳은 신념이 없었다면 팔만대장경은 역사 속에 잿더미로 사라졌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정대스님은 총무부장 원택 스님이 대독한 축사에서 "이번에 제막한 공적비를 통해 세계문화유산의 가치와 그 정신이 후손에게 영원히 전해지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김영환 장군과 마지막 비행을 함께했던 공군 6.25 참전용사 김두만 장군(전 공군참모총장)은 "말과 행동이 일치하고 가식과 꾸밈이 없었던 김영환 장군은 수많은 후배들과 공군장병들에게 정신적 죄표가 됐다"고 추모했다.

한편 이날 제막식에는 역대 공군참모총장들을 비롯하여 공군장교출신들의 모임인 보라매회 회원 100여명이 참석 김영환 장군의 당시 상황을 증언하고, 업적을 기렸다.

김원우 기자

'희망의 등 밝히기' 사례모음집 발간

50여사찰 · 단체 사업진행내용 · 결과평가

불기 2546년 부처님 오신날을 맞아 중앙신도회(회장 백창기)와 본사가 공동 주최한 '이웃을 위한 희망의 등 밝히기' 행사의 사례모음집이 22일 발간됐다.

사례모음집속에는 그동안 진행되었던 50여 사찰 및 단체의 사업진행내용과 결과 및 평가에 대한 상세한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또한 모범 단위로 합양불교사암연합회, 조계사, 봉은사, 수원포교당, 불교여성개발원 등 5개의 사찰 및 단체를 선정, 진행된 내용에 대해 사진자료까지 첨부해 행사의 투명성을 뒷받침했다.

중앙신도회는 사례모음집 평가항목에서 "조계사, 우리는 선우 등에서만 개별적으로 진행하던 이웃돕기 초파일 '등 문화'를 발굴, 모범적인 신행문화의 확산에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이번 사례모음집은, 봉축불우이웃 돕기 사업이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연례행사화 할 수 있는 기초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재경 기자

"한국불교 폭력성 '사찰자경대' 서 비롯 비폭력·무소유 부처님 가르침에 배치"

박노자교수 주장

"한국 불교 내에 잠재된 폭력성은 나말 여초의 혼란기에 사찰이 자체적으로 만든 '자경대'에서 비롯된 것으로, 비폭력과 무소유를 주장한 부처님의 가르침에 맞지 않는다."

17일 동국대에서 진행된 '호국불교와 폭력의 문화를 넘어' 주제의 강연에서 박노자(노르웨이 오슬로 국립대)교수는 "한국불교의 폭력성은 승병제도나 호국불교 등이 정치투쟁이나 지배 이데올로기를 강화하기 위해 이용되면서 뿌리를 내리게 됐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또 "현대 자본주의 사회는 탐진치에 의해 움직이고 이런 사회는 제도적인 폭력성을 낳을 수밖에 없다"며 "불교계가 현대 사회의 제도적 폭력성을 극복하기 위해 부처님의 가르침인 아힘사(비폭력)로 돌아가는 것이 급선무"라고 말했다. 또한 대승불교의 사분율에 따라 "스님들은 폭력을 행하거나 폭력을 행할 마음을 가져도 안된다"고 덧붙였다.

강유신 기자

신작 찬불가 9곡 발표

대구불교대 합창단

대구불교대학(이사장 지성, 동화사 주지)은 19일 조계종 제9교구본사 동화사 주최로 대구시민회관 대강당에서 '개교 10주년 기념' 발표회를 가졌다. 이날 대구불교대학 합창단(단장 신수정)은 기원, 부처님은 이르시네 등 총 9곡의 찬불가를 발표했으며, 첼로연주가인 대보사 법현 스님과 동화사 봉황합창단이 우정 출연했다.

손법천 대구지사장

상호 유대·교류 활성화

불교·천주교 체육대회

조계종 중앙종무기관 종무원과 천주교중앙협 직원간의 조직적 유대 및 상호교류 활성화를 위한 제3회 불교·천주교 체육대회가 21일 가톨릭대 신학교정에서 개최됐다.

조계종 총무부장 원택·조계사 주지 지홍 스님, 천주교중앙협 사무총장 김종수 신부, 조계종 종무원과 천주교 중앙협 직원 등 200여명이 참가한 이날 체육대회는 축구, 발야구, 농구, 줄다리기 등 어울림 한마당으로 진행됐다.

김원우 기자

자비의말씀 '한생각 바꿨더니'

초등교 5년 국어교과서 수록

지하철 포교게시판 '자비의 말씀'에 선보였던 정진권(수필가) 한국체대 명예교수의 '한 생각 바꿨더니' 글이 초등학교 5학년 '국어-말하기 듣기' 교과서에 실린다. 이 교과서는 7차 교육과정 개편에 따라 올해 2학기부터 초등학교 5학년 교과서로 활용된다.

교육과정 개편 연구원으로 참여한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국어교육실 이주섭 연구원은 "'한 생각 바꿨더니' 글은 불교 포교용 글이면서도 어린이들의 문장력과 정서적 가치 판단력을 키우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돼 교과서에 싣게 됐다"고 설명했다.

박봉영 기자

'호주제와 종교' 세미나

혜원스님 · 최혜영교수등 발표

호주제 폐지를 위한 종교여성연대는 21일 오후 2시 조계사 교육문화회관에서 '호주제와 종교'를 주제로 심포지엄을 열었다. 불교에서는 혜원스님(동국대 선학과), 원불교에선 이혜화 교무(상생 세상을 여는 원불교 여교무회), 가톨릭에선 최혜영 교수(가톨릭대 종교학과), 천도교에선 정혜정 교수(동국대)가 각각 주제발표를 했다. 심포지엄에서 혜원 스님은 '불교의 여성관'이라는 주제에서 "일체제법은 평등한 법계임을 일깨워 준 대진리"라고 주장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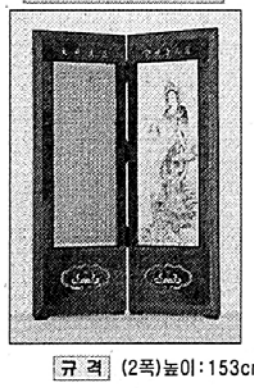
남동우 기자

고침 본지 제374호 23면 '연등축제 시상식' 사진설명중 한마음선원 최선희 신도회부회장을 '이한희 교화부장'으로 바로잡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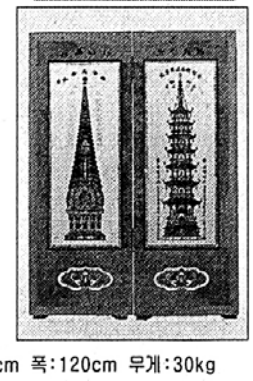
"집안의 어느장소이든 펼쳐만 놓으시면 그앞이 법력(法力)과 법기(法氣)로 충만된 영험스러운 기도처가 되는……

관음(觀音)병풍 과 불탑(佛塔)다라니병풍

▣ 관음병풍



▣ 불탑다라니병풍



특 징

① 집안내의 어는 장소이든 구애 받음이 없이 펼쳐 놓을수 있으며, 어느공간이든 본 병품을 펼쳐 놓으면, 그곳이 법력과 법기로 가득찬 영험스러운 기도처가 됩니다.
② 병풍은 전체가 모두 두꺼운 무늬목 목재로 되어 있어 변형되지 않고, 영구적이며, 백의관세음 보살님은 황동판위에 모시어 훼손 될 염려가 전혀 없으며, 불탑다라니와 관세음보살 보문품경은 황동 판위에 양각으로 새겨서 금도금을 한후 표면에 특수코팅처리를 하였기 때문에 오랜 세월이 지나도 때가 묻거나 변색되지 않으며 먼지등이 묻었을 때에는 고운 융걸레로 닦으시면 됩니다.
③ 불자 집안의 가보로서 대대손손 물려주실수 있는 성품(聖品)입니다

규 격 (2폭)높이:153cm 폭:120cm 무게:30kg

보급가 : ₩1,300,000(한품당)
<신용카드할부구입가능>

※카다로그를 원하시면 연락주시는 대로 보내드립니다.

⊙ 카다로그를 보실때보다 본 병풍을 직접보신 불자님들은 모든분이 한결같이 환희심을 내시어 집안에 모셔가겠다고 마음을 내실 정도의 정품이므로 본회에서도 직접보여드릴방법을 강구하고 있아오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관음병풍과 불탑다라니 병풍은 그효험이 똑같이 나타나기 때문에 인연따라 마음에 닿는 한 병풍만 택하시면 됩니다.
⊙ 현재 큰스님방에 펼쳐놓으시도록 시주하시는 신도분들도 계시고 본인의 집과 분가한 자녀들의 집에 한품씩 놔 주시는 불자님도 계십니다.

성지관음회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능원리 30-1 (능원빌딩 3층)
전화 : 031)334-9490, 334-9491
야간 : 031)706-3060

하기책자 3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혜천법사

책 자 내 용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④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⑨ 팔괘만다라 액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①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②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당이어야 하는가?
③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④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⑤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⑥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⑦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7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책 자 내 용
① 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②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③ 영가천도는 왜 필히 해주어야만 하는가?
④ 태아영가의 천도가 왜 중요하며,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⑤ 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⑥ 조상대대 친족, 연족 인체지영가를 모두 확실하게 100% 천도시킬 수 있는 묘법은 무엇인가?
⑦ 특별천도재에 사용되는 방편은 무엇인가? 각 방편들의 내용 설명 및 사용방법
⑧ 집안에서 하는 영가천도 기도 방법
⑨ 특별 천도재를 지내고 나면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들의 예(例)
⑩ 영가들의 특별천도재를 지낸 후 신행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⑪ 불자들이 알아야 할 기도의 의미와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기도방법
⑫ 꿈이란 무엇인가? 누구나 쉽게 풀 수 있는 108가지 꿈 해몽법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능원리 30-1 (능원빌딩 3층)
전화 : 031)334-9490, 334-9491 야간 : 031)706-3060



가야산의 얼굴 법전스님

퇴설당은 空을 의미…집주인과 잘 어울려

종정 스님께서 머무시는 퇴설당(堆雪堂)은 말 그대로 '텅 빈' 집이었습니다. 퇴설(堆雪) 즉 '눈 더미'를 이름이니, 선가(禪家)에서는 햇빛이 나면 곧 사라질 눈(雪)에 빗대어 '공(空)'을 말하기도 합니다.

본디 퇴설당은 팔만대장경을 돌보는 스님이 머무는 노전채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조계종의 큰 어른이 그곳이 계십니다. 부처님께서 팔만사천 장공설을 하시고도 '한 마디도 이른 바 없다'고 시치미를 떼시는 것과 흡사하다 하겠습니다.

집 주인과 집이 참으로 잘 어울렸습니다.

큰 절이나
작은 절이나
믿음은 하나

큰 집에 사나
작은 집에 사나
인간은 하나

—조병화 詩, '해인사' 전문

그렇습니다. 해인사는 큰 절입니다. 너무 커서 그 실체를 쉽게 가늠하기 힘든 절입니다 그러면서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해인사를 다 아는 양 얘기합니다. 설사 가 보지 않았다 하더라도 해인사는 누구나 다 아는 절입니다 그곳에 팔만대장경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리하여 해인사는 '큰 절'의 대명사이자 하나의 '추상명사'가 됩니다. 그래서 시인은 '해인사'라는 제목을 달고서도 정작 시의 몸통에서는 해인사라는 이름을 감추어 버립니다. 그러면서도 시인은 아주 간략한 언어로, '믿음'이든 '사람살이'든 그것의 진정성은 겉모습에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일깨우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만물의 평등'이라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가슴으로 받아들이게 하는 시적 성취를 이루어 냅니다. 해인사에 대한 직접 언급 없이도 해인사의 '해인사다움'을 너끈히 보여 줄 뿐만 아니라, 그것에 대비되는 작은 것에 대한 소중함을 환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걸음에서는 해인사의 작은 모습을 찾아보려고 작정을 했습니다. 큰 것보다는 작은 것,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그냥 지나치고 말 것들을 살피기로 말입니다.

역시 어려웠습니다. 이모저모를 따져 봐도 해인사는 큰 절이었습니다. 가야천을 거슬러 오르는 일주문까지의 길섶에 선 나무들은 하나같이 우뚝했고, 일주문에서 올려다본 가야산의 근골도 장대했습니다. 그러나 내 눈에는 해인사가 더 커 보였습니다. 해인사가 가야산에 깃든 것이 아니라 해인사가 가야산을 등에 업고 있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일찍이 우리 산천을 빼어난 안목으로 살핀 바 있는 조선의 지리학자 이중환은 그의 저서인 '택리지'에 가야산을 이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경상도에는 석화성(石火星)이 없다. 오직 합천 가야산은 뾰족한 돌이 죽을 잇달아서 불꽃 같으며, 공중에 따로 솟아서 극히 높고 빼어났다."

이런 가야산을 등에 업고도 해인사는 천하태평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해인사의 스님들은 하나같이 선이 굵습니다. 성철, 혜암 그리고 지금의 법전 스님에 이르기까지, 조계종의 종정스님이 삼대에 걸쳐 이 절에서 나온 것만 봐도 그 기백을 능히 짐작할 만합니다.

작은 것을 보겠다는 생각 자체가 억지였는지, 눈에 띄는 것은 온통 큰 것 뿐이었습니다. 전각들의 편액에서도 '大'자만 더 크게 보였습니다. 해탈문의 이마에도 〈해동원종 '대' 가람〉이라는 편액이 걸려 있고 그 안에도 〈해인 '대' 도량〉이라는 편액이 걸려 있습니다. 금당에도 앞에는 〈'대' 적광전〉 뒤에는 〈'대' 방광전〉이라는 이름을 달고 있습니다. 대방광전을 뒤로 하고 성큼 돌계단을 오르니 그곳 또한 〈팔만 '대' 장경〉입니다.

다시 시작하기로 마음먹고 일주문을 벗어나서, 가야천을 왼쪽에 끼고 홍제암으로 향하는 길을 택했습니다. 녹음 짙은 산길 위로, 뭘 딱이는 계곡물 소리가 분수처럼 튀어오릅니다. 그 소리에 취할 새도 없이 반가운 그림 하나가 눈에 걸립니다. 외나무다리입니다.

홍제암과 사명 스님 부도탑으로 발길을 이끄는 외나무다리 위에 몸을 세웠습니다. 계곡 바닥이 그리 깊지 않았지만 급하게 흘러내리는 물줄기가 아찔한 상승감을 일으킵니다. 이 다리의 내력에 대한 기록은 내려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리 앞에 하마비가 있는 것으로 보아 조선조 억불의 시기에 말을 타고 도랑을 들락거리는 유생들의 횡포를 은근히 꾸짖은 다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작은 것으로 능히 큰 잘못을 고쳐놓는 점잖다운 발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학사대로 발길을 옮겼습니다. 고운 최치원이 이곳 해인사에서 종적을 감추기 전에 꽃은 지팡이가 살아났다는 전나무 곁에 섰습니다. 그곳에서 바라본 해인사는 우뚝하기보다는 그윽했습니다.

걸음을 따라서 겹쳐졌다 풀려나는 지붕을 바라보며 대장경판전으로 다가갔습니다. 그곳에서 나는 또 하나의 국보를 만났습니다. 다소곳한 높이의 잘 구운 도자기 같은 담장. 그 위에 포개진 기왓장 위에 서린 세월의 흔적, 진정 우담바라는 저것이 아닌가 싶었습니다. 헛걸음은 아닌 것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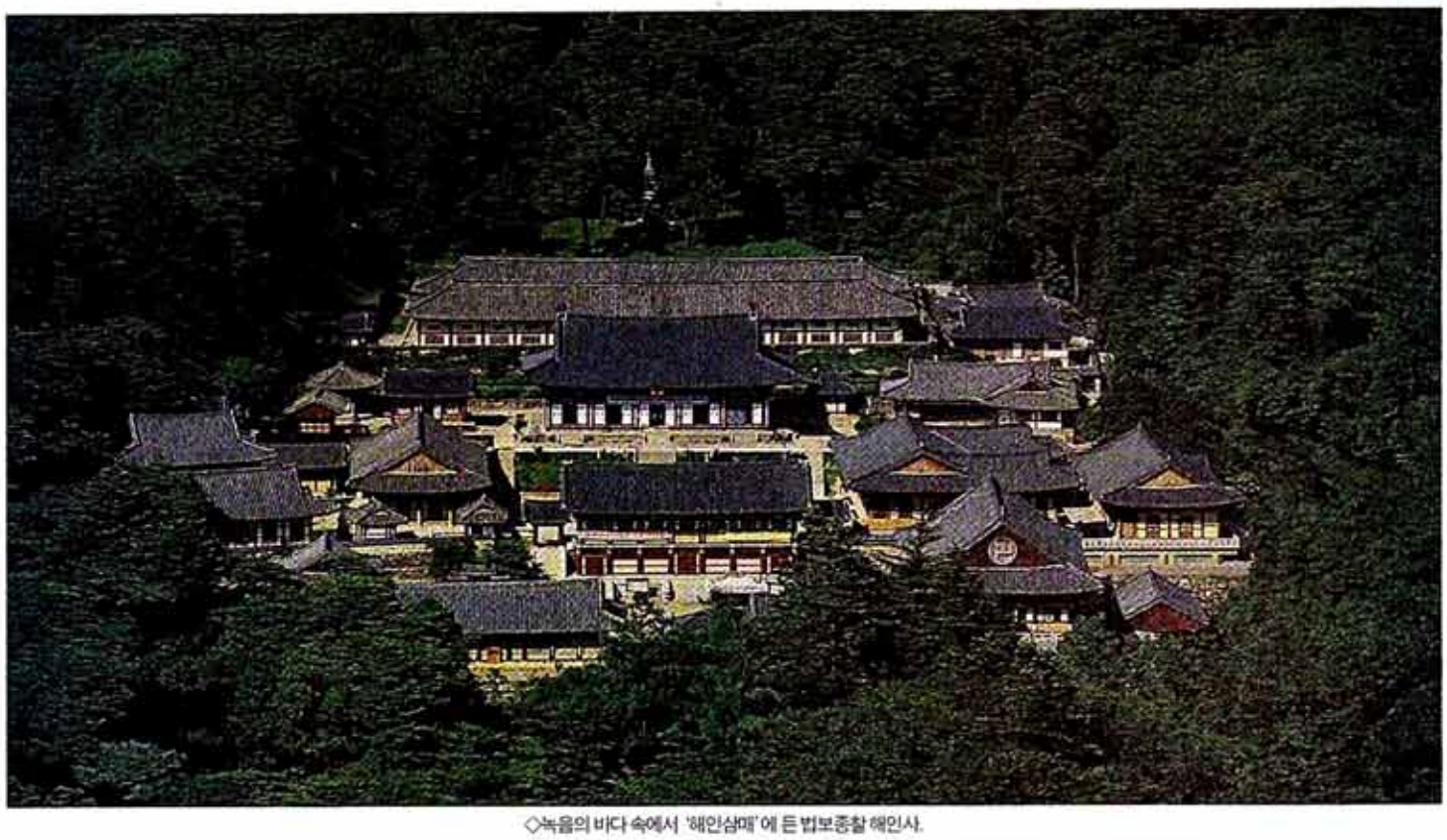
돌아올 채비를 하기 위해 해우소에 들러 근심 한 줄기 풀어 놓는 순간, 진일보(進一步)라는 글자가 눈에 들어옵니다. 남자 화장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한 걸음 더'라는 말과 다를 바 없건만, 그 순간에는 크게 다른 느낌으로 다가왔습니다.

진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오즘 누는 일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는 오늘의 인류는, 과연 진보한 것일까요.

글=윤제학 기자
사진=박보하(사진가)

가야산 해인사

8만대장경 봉안 법보종찰 마치 가야산을 업은 듯



◇녹음의 바다 속에서 '해인삼매'에 든 법보종찰 해인사.

성철·혜암·법전 3대째 조계종정 주석
경판전 담장 세월흔적 우담바라인 듯



영상법당! 불교텔레비전



•동국대 TV' 불교아카데미
한국 종교문화의 이해(월)
인도불교의 사상과 역사(화)
정토사상(수)
여래장사상(목)
한국 선사상 연구(금)
한국 불교사상사 연구(토)

혜거스님의 유식 삼십송강의
매주금,토요일 08:50 / 19:55

성운스님 불경강좌
매주토요일 10:15 / 20:35

홍승스님의 사찰음식
매주수요일 09:20 / 19:15

구본일의 태교와 영상
매주화요일 09:20 / 19:55

간다라 불교와 한국의 미래
매주목요일 09:20 / 19:15

최고의 진리 바로 당신의 소중함입니다.

불교TV후원 전화
060-700-1032(ARS)
한통화에 2,000원의 후원보시를 하실 수 있습니다.

btn www.btn.co.kr
불교텔레비전주식회사
서울시 마포구 마포동 418(금호전기빌딩)

불교TV시청방법 [유선방송 : 전국 각 지역의 종합유선방송(SO)에 연락하여 신청하시면 볼 수 있습니다. / 스카이라이프신청문의 (02)3270-3366~7]
불교TV방송프로그램 판매 [안내전화 :(02)3270-3366~7 불교TV사업부]



불교텔레비전에서는 불교인터넷방송
불교위성방송을 하기 위하여
법당을 건립합니다.
큰 행복 큰 자유 누리고저
지혜와 복덕 구족하도록
큰 공덕 지으소서

불교텔레비전주식회사
회 장 석성우
대표이사 이수덕

• 삼천불은 청동불로 조성됩니다.
• 가족단위 원불조성도 가능합니다.
• 삼천불조성금은 분할하여 입금하셔도 됩니다.
• 법당위치:서울시 관악구 봉천8동 945-2번지
(지하철2호선 봉천역 3번출구)
• 입금계좌번호 : 827-25-0015-134(국민은행)
예금주 : 불교텔레비전(주)
• 문의전화 : (02)3270-3366~7 불교TV사업부
(02)2648-0108,1211 사찰순례팀